



9

1981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1. 9호

(루게 407)



## ◆◆◆◆◆◆◆◆◆◆ 차 례 ◆◆◆◆◆◆◆◆◆◆

행복한 인민의 나라여 .....	4
그이는 위대한 공민(외 1 편).....	6
해발.....	7
인민의 아버지 .....	8
문학작품의 철학적심오성과 세련된 예술적형상 .....	10
빛나는 군모의 별 .....	14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15
정다운 창문들 .....	18
해빛따라 피는 꽃 .....	25
백두산의 잣나무(외 1 편).....	25
사랑의 집 .....	26
림산마을 .....	27
조선의 명산-묘향산.....	28
향산천의 물노래(외 1 편).....	32
탄부의 사랑은... ..	32
동지 .....	33
만폭동의 물꽃노래 .....	34
그가 바라는것 .....	35
공화국기발 .....	42
조국을 떠나 멀리 .....	44
우리는 보람찬 간석지건설자.....	47
맑은 하늘 .....	48
사랑의 보폭우에서 .....	48
사랑의 토방앞에서 .....	49
제발로 걸어라 .....	50

꽃방석 .....	51
사람마다 무병장수 노래하네 .....	54
사회적문제의 예리성은 단편소설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 .....	55
그 한송이 꽃이 되고저 .....	58
강철이 흐른다 .....	59
아동시문학에서 운률을 더 잘 살리자 .....	60
내 고향의 새노래 안고 가오 .....	62
원고료 200 원 .....	63
남포에서 나그네를 보내며 .....	66
민족의 이름으로 .....	67
저주 .....	68
기수 .....	69
미래를 위해 바친 삶은 고귀하다 .....	78
중편소설 《설죽화》를 읽고 .....	79

# 행복한 인민의 나라여

박세옥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깊어지는것

부를수록 간절하고  
외울수록 정겨워지는  
아 나의 조국

조국이어  
때없이 문득  
그대 이름 쉽게 부를순 있어도  
다는 알수 없구나  
그대 손길의 그 자애로움  
그대 눈빛의 그 정다움을

봄빛 푸른 그 어느 들길을 가도  
다정한 그 눈빛은  
푸른 꿈 안고 가는 나를 지켜보더라

때없이 내 느끼는것  
어머니처럼 다심한  
부드러운 그 손길은  
언제나 나를 위해 십을 모르더라

가없이 높푸른 저 하늘밑에  
대건설의 첩탑들이 숲을 이룬  
강대한 우리 나라  
조약돌 씻으며 흐르는  
한가닥 실개울도

인민의 기쁨의 노래가 된  
한없이 살기 좋은 사회주의 우리 제도

얼마나 모질은 세월을 넘어  
험난한 길을 거쳐  
이 땅에 사는 행복이  
우리의 가슴에 물결치고  
인민의 이 권리가  
우리의 억센 손에 쥐여진것이나

아 조국이어  
살뜰하고 정다운 품이어  
사향가의 노래 은은하던 밤마다  
백두의 머리우에 별로 빛나던  
그대의 그 눈길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있구나

머슴살이 터갈린 손에  
첫 연필을 쥐고  
우리 글을 처음 익히던 나를  
어머니처럼 정답게 바라보던  
그 눈빛으로

첫 일터로 가는  
그 기쁨을 안고  
어둑새벽 문을 나서던 그날  
나라의 주인된 권리를 속삭이며  
억세계 잡아주던

그 손길로

지금도 나의 손을 잡아주고있구나

그 눈빛으로

한치 앞을 가려 못보던

내 눈을 천만리로 틔워

그 손길로

걸음걸음 내 손을 이끌어

세계의 주인으로 높이 세워준

아 주체의 넋이 푸른 하늘가에 비끼고

자주의 신념이 강토에 넘치는

이 하늘 이 땅우에

인간의 존엄을 걸음마다 새겨주는

그 은혜로움

사랑하노라

인민이 화목한 내 나라

세상은 하 넓어도

내 첫걸음을 뎌

그 강기슭의 조약돌조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꾸지 않으리라

바꾸지 않으리라

수령님의 은덕아래 피어난

나의 행복

당의 해빛아래 만발한

나의 희망

그 하나의 작은 꽃떨기조차

온 세계를 다 준다 하여도

내 흘리는 땀방울

내 바치는 하루의 로동이

주권을 다지는 피임돌이 되고

창조의 별이 되어 빛나는

성스러운 인민의 나라

은혜로와라 조국이어

나의 생명과 나의 권리를

강철의 주권으로 지켜주는

주체의 조국이어

목숨보다 그대 귀중함을

내 다 모른다면

어찌 그대의 아들이라 내 말할수 있으랴

그대 나에게 준

나의 피 나의 살 나의 생명

그 모두를

그대에게 바쳐가리니

아 나의 조국

아버이 수령님 마련해주신

우리의 혁명주권이어

그 은혜로움

그 고마움에 목메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로 부르는

아아 주체의 조국이어

천만년 받들어가리라!

행복한 인민의 나라여!

## 그이는 위대한 공민 외 1 편

김석주

너무도 쉽게 불러온  
인민이란 말  
얼마나 위대한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 그런 날이었다

이른봄날도 이른새벽  
수도의 교외를 지나  
시와 도의 경계선포말도 지나  
멀리 농장마을에 이르시였다  
아버이수령님  
한 대의원을 몸소 선거하시려

한 마을 한 포전에서  
함께 일하던 농장원들 다름없이  
선참으로 선거표를 받아드신 수령님  
조용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평범한 공민의 한 사람으로

정갈한 휴계실 밝은 창문으로  
이른아침 해살이 비쳐드는데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시며  
그 대의원과 마주앉으신 수령님

누구나 그러하더라  
대의원은 마치  
모든 일을 다 잘 알고있는듯  
어려운 소원도 가까이 들어주고  
무엇이나 관심하는 일 물어보고싶듯

농사일에 가장 큰 관심을 두신  
소박한 선거자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농사짓는 대의원이기에  
누구보다 농사일을 잘 알고있는듯  
그에게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래 금년에도  
농사가 잘 될것 같소?

너무도 소박하신 물으심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했으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농사일을 가장 잘 아시는 수령님께

마치 온 나라 인민과 마주앉으신듯  
마음을 뜨겁게 받아들여주시는  
크나큰 그 믿음을 안고  
그는 풍년가을을 말씀드렸다  
보통 농민이 아닌 대의원으로

이른봄날도 이른아침  
이렇게 수수한 공민의 한 사람으로  
대의원과 오래 의논하시였고  
대의원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선거장을 떠나는 선거자들 다름없이  
손을 잡아주시고 떠나시는 수령님

송구한 그 마음을 풀어주시듯  
자애롭게 웃으시며  
그에게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나도 인민이 선거한  
대의원의 한사람입니다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한평생을 바쳐오시면서도  
언제나 그 인민앞에 자신을 낮추시는  
한없이 겸허하시고 소박하신 말씀

아, 크나큰 그 손길에  
우리와 다름없이  
수수한 선거표도 드시는  
그이는 위대한 공민

그때문에 인민이란 말  
이렇듯 크게  
이렇듯 신성하게  
이렇듯 존엄있게 울리는것이 아닌가

한사람의 보통공민  
그러나 우리에게 크나큰 영예가 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길수 없는것  
위대한 수령님을 받아들여모신 영광도  
그리고 아버지수령님 몸소  
거룩한 손을 드시여 투표하시는  
그런 선거를 받을수 있는 권리도

## 해 발

우리 마음 기쁨에 설레이고  
행복에 잠 못 이를 때면  
조용히 떠오르는  
어머님의 정다운 모습

세월은 물결인양 흘러가도  
우렁이 안겨오는 그 영상  
생각 많은 우리의 가슴속에  
어머님 생각 더욱 깊어지네

강산에 해빛은 은혜롭고  
향도성이 빛나는 나라  
아, 어머님 사랑 꽃피여  
내 나라는 얼마나 더 밝은것이나

태양이 있어  
해발이 파사로이 비치고  
그 해발이 비쳐  
밝은 별이 빛나는것인가

가시는 걸음걸음 수령님 받드시여  
충성의 해발이 되신 어머님  
그 사랑 그 손길로 안아주시였기에  
우리 당은 더 밝게 빛나네

생각할수록 고마운 마음  
무궁한 이 땅의 오늘과 미래를  
충성과 사랑으로 이어놓으셨건만  
한생은 얼마나 소박하시고 겸허하시였던가

그저 소박하시다가엔  
그저 인자하시다가엔  
그 뜻 그 사랑 한없이 크고 높으신  
김정숙어머님이시여

설한풍 모질던 백두밀림  
그 아름답고 고결한 마음을

흰눈우에 깨끗한 자옥으로 남기시며  
일편단심 걸으신 혁명의 한길-

장군님 모시고 봄을 맞으시며  
환히 웃으시던 그 모습은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된  
못잊을 어머님의 모습이였고

혈벗은 마안산의 아이들을  
군복치마자락에 감싸안으실 때  
우리모두 어머니라 부르며  
목메여 안긴 크나큰 품이 아니었더냐

그 품 봄날같이 파사로와  
서리꽃 피는 깨끗한 계절  
희망의 푸른 꿈을 펼치며  
누리에 2월을 가꾸시었고

그 해발의 가닥가닥  
은혜로운 삶의 첫줄기 되어  
우리 가슴 다정히 안아주네  
언제나 맑은 마음 고이 지니라고

어머님... 조용히 부르면  
눈앞에 우렁이 안겨오는  
인자하신 그 모습  
정다운 그 음성...

일생에 한번 여의면  
두번다시 모시지 못하는 어머니라지만  
정다운 그 손길 그 음성 오늘에 들으며  
우리는 영원히 어머님을 모시고 사네

아, 해와 별이 빛나  
만대에 빛을 뿌려갈 조선아  
혁명의 어머니를 길이 모시여  
조선은 해발처럼 더욱 밝으리

## 인민의 아버지

김원복

오늘 우리 인민들은 그 누구나 할것없이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오직 행복만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있다.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두고 응당히 차례지는 것으로 알듯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이 크나큰 사랑과 은덕에 대하여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오늘 우리 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게 잘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를 낳아주고 따듯이 보살펴주는 아버지, 어머니를 아울러 아버지라고 일러왔다.

하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주지 못하는 한 없이 크고 넓은 사랑의 한품에 따듯이 안으시여 살뜰히 보살펴주시고 다같이 혁명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아버지사랑은 무엇이랴 표현해야 하는가...

나는 평범하게만 불려오던 아버지란 이 말뜻을 되새겨보게 되는 기회가 있었다.

그것은 무상치료의 혜택으로 석왕사료양소에 갔을 때의 일이다. 방금 입소식을 끝낸 우리는 석왕사의 유명한 약수를 마시러 떠났다.

반반하게 닳은 모래길이 산정으로 뻗었다. 몇 백년을 자란 소나무의 까마득한 가지에서 피꼴새, 방울새들이 고운 목청으로 지저귀었다. 금강산의 진주담을 그대로 옮겨놓은듯 옥계수가 폭포치며 흐른다. 흰천을 담그면 단박에 파란 물이 들듯싶었다. 수정샘이 흘러내리는 작은 다리를 건너 8각 지붕을 얹은 약수터에 이르렀다.

여기서 우리의 첫눈을 끈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다녀가신 약수터》라고 쓴 화강석 유래비였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 글발을 몇번이고 몇번이고 읽었다.

《이 약수터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친히 다녀가신 곳입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이 약수를 마실수 있도록 따뜻한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아버이수령님!! ...》

우리는 약수를 관리하는 간호원동무로부터 이 뜻깊은 사연을 듣고 목이 짝 메여 숨엄히 서있었다.

인민의 건강을 넘려하시여 머나먼 깊은 산골에 까지 찾아주시고 장생불로약수를 마련하여주시는 수령님!

눈물이 글썽하여 묵묵히 서있던 리동무가 갈린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길동무! 동무는 아버지란 말을 새겨본적이 있소?》

《아버이! 갑자기 그건...》

나는 어망결에 반문하였다.

《보오. 이 약수가 옛날같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차례질수 있었겠소...》

리동무는 떨리는 음성으로 얼마전에

경애하는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였던 감격의 그날을 감회깊이 더듬는것이였다. ...

그것은 어느때없이 굶은비 내리는 한낮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그 멀고도 먼 길에서 이 굶은날 하루마저 쉬시지 못하시고 산골 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동자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리동무가 일하는 기대 앞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작업복차림 그대로 기를때 묻은 모자를 말아쥐고 어쩔바를 몰라하는 리동무앞에 이르신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히 웃으시던 미소를 거두시는것이였다. 리동무를 이윽히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조용히 갈린 음성으로 동무의 얼굴색을 보니 건강이 좋지 않은것 같다고 근심의 말씀을 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 저는 건강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동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지만 얼굴색이 벌써 말해준다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것이 사람인데 로동자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책임일군들에게 거듭 당부하시는것이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방금 옮기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리동무에게 몸을 잘 돌보면서 일하라는 부탁을 남기시였다.

《아버이수령님!》

리동무는 어깨를 세차게 들먹이며 흐느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들도 자식들이 자리에 눕기 전에는 그들의 건강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나라의 많고 많은 사업을 맡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노동자의 얼굴을 보고 그토록 근심하시다니...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은 고사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송구한 마음이 그를 울고 또 울게 하였다.

그날저녁이었다. 밖에서 두런두런 목소리가 들리는듯하더니 조용히 방문을 두드리는데...

그의 안해가 문을 열었다.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방으로 들어서시는 것이었다.

《아니 어버이수령님께서! ...》

《집살림을 구경하러 왔소.》

《어버이수령님!!》

리동무의 식구들은 인사도 변변히 올리지 못한 채 어버이수령님을 방안으로 모시었다.

세간을 낸 아들의 집에 찾아온 아버지, 어머니가 살림걱정을 하는것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아래웃방을 돌아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만하면 살림을 알뜰하게 한다고 만족해하시는 것이었다. 방안을 다 돌아보신 수령님께서서는 부엌으로 내려 서시어 수도물도 틀어보시고 가마뚜껑도 열어보시다가 문득 군식료공장에서 나오는 장맛이 어떠냐고 물으시었다.

동행한 일꾼이 이제는 지방식료공장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장맛이 좋아야 음식맛도 있다고 하시었다.

밖으로 나가시려던 수령님께서서는 리동무를 보시고 아무래도 세대주동무는 료양을 가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었다.

《수령님! 저는 본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다정히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 노동자들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고 생활에서 어떤 불편도 없어야 공장에 나가서 일도 잘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양 말고 치료를 꼭 받으라고 거듭 당부하시교야 떠나시었다밖으로 나가시려던 수령님께서서는 리동무를 보시고 아무래도 세대주동무는 료양을 가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었다. ...

《리동무! 그런걸...》

나는 리동무의 손을 꼭 잡아 나의 가슴에 대었다.

심장은 견잡을수 없게 뛰었다. 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이 그처럼 아껴주는 끝없는 사랑을 안고 료양소으로 온 것이 아닌가!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한평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은덕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아!

공장을 찾으시면 제일 먼저 합숙의 식당부터 들리시어 수저를 들어보시고 농촌에 가시면 흙문은 농장원들의 못박힌 손을 쓰다듬으시며 심려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아!

어렵고 힘든 일을 어서 빨리 덜어주시려고 3대 기술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었고 인민들의 생활에서 불편이 있을세라 누구도 미처 생각 못하는 하나의 옷빈침과 단추에 이르기까지 보아주신다.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을 념려하시어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시고 통학열차를 보내주시는가 하면 세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분교까지. 내오도록 배려 하여주시는 위대한 어버이...

《그전에는 이 약수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체질과 병상태에 맞게 약수를 더 찾아내도록 배려하여주시어 오늘은 우리 석왕사에 십여개나 넘는 약수터를 가지고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어서 빨리 덜어주시려고 3대기술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었고 인민들의 생활에서 불편이 있을세라 누구도 미처 생각 못하는 하나의 옷빈침과 단추에 이르기까지 보아주신다.

《예?!》

우리는 그만이야 목이 메여 고개를 떨구었다.

《수령님! 어찌면 누구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모든것을... 수령님! 수령님께서...》

《어버이수령님!》

약수터에 모인 사람들은 부끄럼을 모르고 모두 눈굽을 뜨겁게 적시었다.

그렇다. 우리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의 어버이, 인민의 어버이시다.

인민의 어버이! 가장 열렬한 흠모와 다함없는 신뢰의 마음을 담아 부르는 이 말에는 사랑의 미소가 봄빛처럼 흘러드는 요람마냥 언제나 은혜로운 보살핌속에서 존엄있는 인민으로 받들려사는 우리 인민들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있다.

노래에 담아 다함없고 높이 우러러 끝없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

진정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인민의 어버이로 우러러 불러도 그 친근감과 위대함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것이 우리인민들의 끝없는 심정이다.

우리의 어버이, 인민의 어버이! 세월의 한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인민의 충성의 한 마음을 담아 우리는 소리높이 부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의 어버이, 인민의 어버이시라고...

# 문학작품의 철학적심오성과 세련된 예술적형상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을 중심으로-

박연경

우리 당의 독창적인 수령형상론이 밝혀준 원칙들을 옳게 구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문학작품에 형상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것은 오늘 우리 문학예술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

수령형상작품은 그 숭고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높은 수준에서의 철학적심오성과 예술적완벽성을 보장할것을 요구한다.

수령형상작품의 철학적심오성과 예술적완벽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창작가들의 충성의 열도를 더욱 높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고귀한 업적이 가지는 백과전서적인 풍부성과 심오성, 불멸의 의의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재현할수 있는 예술적기량을 련마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의 가치는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의 통일에 의하여 규정되며 높은 사상성은 고상한 예술성의 제반요구가 충족될수록 더욱 생동하고 심오하고 설득력있게 나타나며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게 된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혁명사적에 깃든 끝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이야기들과 생활화폭들을 예술적으로 현실하게 재현하지 위하여 형상적묘사의 다양한 수단과 수법들을 능숙하게 구사하고있다.

작품형태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릴수 있는 묘사 표현수단,수법들을 옳게 선택리용하는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소설문학은 생활을 다방면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소설적전개력으로 하여 생활반영에서 다른 문학형태에 비길수 없는 자기의 고유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소설을 생활반영에서 그 어떤 구속을 받음없이 다양한 언어수단의 자유로운 활용에 의하여 생활과 인간의 내면세계를 다면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전개하여 보여줄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은 언어표현 수단들을 적중하고 조화롭게 리용하여 거대한 력사적사건들이 체현하고있는 뜻깊은 내용을 생

활적으로 깊이 캐내어 전개된 화폭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형상의 회화적구체성은 어디까지나 생활을 세부화하여 진실하게 그림으로써만 가능하다.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는것은 문학예술에서의 생활반영의 기본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170페이지)

문예작품창작에서 생활을 세부화하여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산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내어 감명깊은 인간세계를 펼쳐보이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정확히 끌라서 인상깊게 묘사하는것은 생활을 구체적으로 형상하여 사람들의 정서와 감동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밝혀주었다.

총서중의 장편소설들에서는 무엇보다도 뜻깊은 생활을 안고 빛을 뿌리는 생활세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형상하는데 한결같이 바쳐짐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인간의 사상감정이 표현되고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하여나가는 구체적인 생활정황과 단면들을 파고들어 섬세하게 그릴때에라야 작품에서는 감명깊은 인간세계가 펼쳐지게 되는것이다.

특히 거대한 력사적사건과 사실들을 예술적으로 재현할 때일수록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릴데 대한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생활을 통채로 라렬하거나 사건본위로 생활을 그리거나 생활의 결과만을 제시하는것과 같은 편향을 극복할수 있게 된다.

생활세부는 작품내용상측면에서나 작품구성상 측면에서나 종자로부터 끌어낸 기본문제를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술방울, 땀방울, 군복, 담배, 갓, 털모자의 귀덮개, 한이삭의 강냉이, 서른개의 버섯 등...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에는 언제나 생동하게

기억되며 강렬한 사상정서적충격을 불러일으키는 빛나는 세부들이 많으며 그것들은 작품에서 비쌍한 감화력을 가지고 작용하고있다.

특히 세부집중화, 세부심화의 수법을 비롯하여 소설의 형태적특성에 적응한 생활세부들을 잘 탐구선택하여 인간과 그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려보이고있는것은 총서중의 장편소설이 보여주는 모범이다.

사령부의 안전을 위하여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털모자의 귀덮개만은 내리우지 않는 경위중대장 리복철과 관련된 세부는 논리적설명이나 일반적인 호소로써는 해결할수 없는 커다란 감흥과 미학적정서적감화력을 가지고 독자들의 심장을 짹 짹어잡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의 성격의 주도적특질을 참으로 비반복적개성으로 진실하게 밝혀내고있는것이다.

장편소설 《두만강지구》에는 초막끝에 꿰어매단 서른개의 버섯에 대한 인상적인 세부가 있다.

열병에 신음하는 후남아주머니에 대하여 그토록 심려하시고 걱정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의 병치료를 위하여 손수 초막을 지어주시였다.

당분간이나마 부대와 떨어져 인적없는 숲속에서 외로움을 느낄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넉넉히 잡고 한달쯤 참으면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행군길을 떠나시였다.

한달이면 서른날!

한달이내에 꼭 찾아오시겠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이께서 오실 날자를 셈하기위하여 천막앞에 매단 버섯케미, 이 서른개의 버섯에 대한 세부는 뜻깊은 생활을 안고 빛을 뿌리고있다.

이 생활적인 세부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충실성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생활을 본색그대로 그려내는데 효과적으로 맞물리고있으며 작품구성에서는 흠모의 선을 강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이 인상적인 생활세부들이 체현한 미학적정서적특성에서 중요한것은 그 특색있는 세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 고매한 덕성을 생활그대로 진실하게 보여주는데 한결같이 이바지하고있는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은 심리묘사와 등장인물들의 대사 그리고 환경묘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묘사수단 수법들이 또한 높은 수준에서 쓰이고있는것을 찾아볼수 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광복회의 창립을 선포하시는 엄숙한 순간 권학식이 체험하는 웅심깊은 내면세계를 그린 심

리묘사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저술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발표하시는 장엄하고 감개무량한 력사의 그 순간 권학식의 머리속에는 번쩍이는 섬광같은 생각이 날아들었던것이다.

《(태양에는 두가지 속성이 있다. 빛과 열이다. 금성장군님께서도 두가지 성품을 지니고계시니 즉 빛나는 예지와 뜨거운 사랑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빛나는 예지, 그것은 곧 태양의 빛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뜨거운 사랑, 그것은 곧 태양의 별이다.

그 광휘로운 빛과 따사로운 별을 한몸에 지니신 그이는 인간세계의 찬란하고 위대한 태양이시다!》)

권학식의 심장속 깊은 갈피에서 우러나온 이 절절한 웨침은 우여곡절 많은 생활체험에 바탕을 둔 그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신 모든 회의참가자들과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흠모와 신뢰의 정의 직접적표현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에서 읽을수 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의 진실하고 생동한 대사들은 시대와 사회적특징을 집약화한것으로서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부각하는데 훌륭히 기여하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명대사는 풍부한 생활체험과 깊은 사색에 기초해서만 나올수 있다.

생활을 통하여 파악된 진리를 조성된 정황에서 알기쉽고 명백하게 말해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것이다.

총서중의 장편소설들에는 시대의 본질과 인간생활의 특징, 혁명의 원리를 생동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생활적이고 철학적인 대사들이 많다.

특히 소설의 대사들에는 항일유격대원들의 풍부한 생활체험이 잘 안반침되어있으며 그들자신이 심장으로 파악한 생활과 투쟁의 진리가 명백히 표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따르는 긍정인물들-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의 대사들은 한결같이 혁명하는 시대와 항일의 기치높이 투쟁에 일떠선 당시의 사회적특징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한 생활적인 대사들이며 마디마디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자부심과 긍지, 어버이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다하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체현되어있는 명대사들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풍부한 생활체험과 생활축적에 기초한 대사들의 풍부성에 대해서는 장편소설 《두만강지구》를 놓고도 말할수 있다.

등줄기로 식은땀을 흘리며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갑무경비도로》를 정찰하고나서야 안도의 숨을 쉬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던 성림이는 인섭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실을 꿰뚫어보기만 해서도 안된단말이요. 사실을 제 마음대로 휘어잡고 제 마음대로 주물러야 한단말이요. 내 <갑무경비도로>를 땀에 펴서 걸어오면서 그걸 깨달았단말이요. 우리 사령관동지께서는 세상만물을 꿰뚫어보시는 천리안을 가지고계실뿐아니라 세상만물을 혁명의 목적에 맞게 굵혀내고 휘어내는 무궁무진한 힘과 강철의 의지를 지니고계신단말이요. 안그렇소?》

이 말은 성림이와 모든 유격대원들이 생활을 통하여 심장으로 파악한 진리를 조성된 구체적인 상황에서 알기 쉽고 명백하게 표현한것으로 하여 열렬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성림이 인섭이와 생활적으로 주고받는 이 한마디의 말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조국해방을 위한 성전에 몸바쳐싸우는 혁명전사들의 끝없는 영예의 행복감이 웅심깊게 울려나오고 있다.

장편소설들에서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이 주고받는 말들은 투철한 계급적자각과 불굴의 투지, 천금주고 살수 없는 귀중한 혁명동지에 대한 사랑과 의리가 스며배인 말들인것으로 하여 시대상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었으며 작품의 사상에술성을 높이는데 훌륭히 이바지하였다.

이처럼 총서중의 장편소설들에 썩여진 대사들은 참으로 생활과 투쟁의 참뜻을 깊고 폭넓게 파악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말뒤에 말이 있는 웅심깊은 명대사들이다.

생활환경을 떠난 추상화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만큼 인간을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생활환경을 잘 그려야 한다.

환경을 잘 그릴 때 사회계급적관계와 시대의 특징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으며 인간성격의 사회계급적본질도 뚜렷이 밝혀낼수 있다.

특히 력사문헌적의의를 가지는 수령형상작품에서 환경묘사를 진실하게 하는것은 해당시기의 사회력사적현실을 생동하게 보여줌에 있어서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품에서 사회력사적환경을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주제사상적지향을 뚜렷히 할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생활그대로 진실하게 재현할수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환경묘사를 통하여 사회력사적환경을 잘 드러냄으로써 해당한 력사적시기가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초미의 문제를 옹계 제기할수 있었으며 조성된 정세를 주동적으로 통찰하시여 제때에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에 주어진 환경묘사들은 당시의 사회력사적현실을 진실하게 드러냄으로써 포악무도한 일본제국주의의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발가내고 일제강점시기 우리 나라 사회현실을 해부학적으로 예리하게 분석할수 있게 하였으며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도록 하는데 잘 이바지하였다.

《성안으로 향하는 길우에 철수하는 왜놈들의 긴 행렬이 바라보이였다.

부르릉거리는 자동차들, 수레를 끄는 말들, 짐을 잔뜩 걸머진 병졸들이 흰 겔레짜모양 한길에 년질년질 늘어섰다. 여기저기서 껍썩 짐승의 울부짖음같은 고향소리가 울렸다.

병졸들은 조선사람들의 농작에서 뒤흔댄 옷가지와 천필들 그리고 값나는것들을 나누어가지느라고 눈을 희번덕거리고있다. 그들은 상관이 웨치는 고향소리도 들리지 않는 모양인지 왜놈들에게 특유한 근시안과 버덩이들을 드러내놓으며 웃고 지껄여대며 걸어갔다.》

장편소설 《1932년》의 첫부분에는 당시의 사회력사적현실을 방불하게 그려줄수 있는 이상과 같은 환경묘사가 있다.

우리 인민에 대한 강도 일제의 폭압과 략탈이 절정에 이르러 온 나라와 민족이 피바다 불바다 속에 잠겼던 1930년대초의 우리 나라의 력사적환경이 이 하나의 환경묘사에 얼마나 생동하게 함축되어 있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 이후 무장투쟁이 날로 강화되는데 질첩한 일제는 조선혁명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였다.

이 환경묘사는 조선인민을 이르는곳마다에서 탁치는대로 학살하고 재물을 략탈하는 일제《로벌대》놈들의 야수성과 취악성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온 민족의 운명이 칠성관에 올랐던 그 엄혹한시기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바로 이러한 민족수난의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되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

이 벌어진것은 조선혁명운동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사변이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하고있는것이다.

혁명의 성산 백두령봉의 장엄한 기상과 웅장하고도 신비로운 풍경에 대한 시적인 묘사라든가 항일유격대가 넘나드는 태고연한 밀림에 대한 묘사를 비롯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에 주어진 자연묘사들은 모두가 숭엄하고도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예술적화폭을 펼쳐보일뿐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에 대한 다함없는 송가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용에 대한 열정적인 찬양의 노래로 격조높이 울리고있다.

《소백수 여울에 들어서자 강물은 발밑을 간지럽히고 정경이를 어루만지며 무엇인가 귀전에 정다운 말들을 속삭거렸다. 뒤적이며 땀돌며 물결따라 출추는 모래까지 다 들여다보이는 소백수 맑은 물위에 급작스레 연분홍빛 찬란한 그늘이 드리웠다. 고개를 들어보니 강기슭에 넘치도록 진달래가 피어나 금성장군님을 맞이하는 이 나라의 마음인양 떨기떨기 웃음을 짓고있었다.》

이것은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의 맨 마지막에 주어진 자연묘사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땅으로 진군하는 항일유격대원들의 격동된 심정과 어버이수령님을 맞이하는 온 겨레의 한없는 기쁨과 감격의 정을 함께 담아시고 흐르는 소백수의 맑은 물에 대한 이 생동한 묘사는 활짝 개인 조국산천을 바라보시며 진군구령을 내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끝없이 숭고한 풍모를 빛나게 형상하는데 바쳐졌으며 작품의 사상정서적운치를 돈구면서 주제사상적과제를 여운있게 결속하고있다.

무엇인가 귀전에 정다운 말들을 속삭거리는 소백수의 물결, 강기슭에 넘치도록 피어나 떨기떨기 웃음짓는 진달래, 이 주관화된 자연은 그것이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는 온 나라와 온 겨레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대한 마음의 상징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원들을 열렬히 환호하는 뜨거운 혈육의 정에 대한 가장 적중하고 생동한 비유적표현이다.

바로 여기에 이 자연묘사가 가지는 예술적형상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높은 감화력이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특징적인 극적정황과 생활국면들에서 주정토로를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작품의 정서성과 사상적내용의 철학적깊이를 보

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있으며 총체적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진실하게 형상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창작가들자신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고귀한 혁명업적을 심오히 연구체득하고 감동된데 있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를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조와 철석같은 의지를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한데 있다.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의 진행정이 력사적사실로 널리 알려져있고 그 준엄한 로정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그대로 우리 인민의 고귀한 혁명적재부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이 주정적인 시화, 예리한 정론적분석으로 력사적사건의 본질과 의의를 심오하게 밝혀내는것은 작품의 사상교양적기능을 더욱 높이고 력사문헌적의의를 강화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진리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과 주체위업의 영광스러운 한길을 따라 나아가는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찬양과 축복에 바쳐진 주정적인 시화, 예리한 지성적 및 정론적 분석의 열정이 높은것으로써 또한 특징적이다.

거대한 사회정치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건들을 생활적화폭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극적인 정황과 인간관계를 탐구하는 과정은 그것이 곧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창작가자신의 무한한 공감과 경탄, 강렬한 사상적 충격의 련속적인 과정이었던만큼 작품에서의 주정토로, 주정적시화는 그의 당연한 예술적 반영이라고 할수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에 수놓아진 뜻깊은 내용과 본질, 그 의의를 깊이있게 밝혀내는데 적중한 예술적묘사의 수단, 수법들을 옹계 활용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생활그대로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철학적심오성을 보장한 기념비적대작으로 될수 있었다.

창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수령형상작품의 철학적심오성과 예술적완벽성을 보장하기 위한 창작적기량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것이다.

## 빛나는 군모의 별

석광희

해마다 이 땅에 9월이 오면 내 마음 끝없는 흠모의 정에 넘쳐 그리운 영상을 우러른다. 조용한 미소를 지으시는 그 모습, 머리에 단정히 쓰신 군모우의 별이 눈앞에 빛나는것이다. 그럴때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고향집을 찾았던 그날에도 마음은 달려간다.

흰구름처럼 백살구꽃 피어나 향기를 뿜는 회의 아름다운 오산덕기슭, 《회령혁명사적관》 진렬함에 정중히 보관되어있는 항일혁명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의 군모앞에서 오래동안 발길을 떼지 못하고 뜨거운 생각에 잠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혁명선렬들의 불요불굴의 고매한 혁명정신과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본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김정숙어머님의 군모!

이 군모에 위대한 공산주의혁명가의 불멸의 업적과 경애하는 수령님께 바치신 어머니의 빛나는 충성의 생애가 어려있거늘 누구의 가슴인들 벽간 감격과 불타는 흠모의 정 솟구쳐오르지 않으랴.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빛발을 받아안은 그날로부터 모진 착취와 억압의 멍에를 벗어던지신 어머니께서는 수령님 우러러 이 군모를 쓰시고 조국의 해방을 위한 항일무장대오에 들어서시였다.

계급의 무기, 혁명의 무기를 잡으신 영예로 하여 빛나던 어머니의 눈동자처럼 오각별 빛나는 이 군모를 쓰시고 넘으신 준령의 눈보라길 몇만 리이며 헤치신 광야의 포연탄우는 또 얼마였으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를 따라 지나간 세월, 아직은 력사가 알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이 군모가 맞은 비바람과 눈서리에 대하여 어찌 다 말할수 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군복을 입으시던 날, 군모에 빛나는 붉은 오각별을 만져보고 또 만져보시며 그 별처럼 빛나게 영원히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의 해발이 되리라 불타는 맹세를 다지신 김정숙어머님!

심장깊이 간직하신 그 신념 억척같이 드높지 않으셨기에 대사하의 불언덕에서 수령님을 한몸으로 보위하셨고 먼 적후공작의 눈길을 헤쳐오신 그길로 사령부의 불빛을 우러러 스스로 위병이 되시여 새벽을 맞으신적이 그 몇번.

엄혹한 나날, 박달나무 얼어터지는 혹한속에서 얼음을 깬 개울물에 장군님의 군복을 빨아 품에 안아서 말리워드리신 그 지극하신 정성, 소부대를 친솔하시고 떠나시는 장군님의 군화에 윤기흐르는 머리태를 남모르게 깔아드리신 어머니!

사연 많은 군모앞에서 존경하는 어머니의 투쟁사적들을 더듬노라니 군모를 스치며 날으던 총성이 메아리쳐오는것 같고 군모에 불리어 면류관처럼 반짝이던 밀림의 찬서리가 선히 보이는데만 같다.

어찌 그뿐이라, 밀영의 이른새벽 장군님께 드릴 식사를 마련하시며 쌀을 정히 일으실 때 수정같은 맑은 샘불속에 어리어 령롱히 빛나던 군모의 오각별, 조국진군의 날 삼지연못가에서 붉게 된 진달래에 불을 비비시던 어머니의 군모우에 송이 송이 떨어져내리던 꽃잎들의 그윽한 향기가 지금도 이 가슴에 풍겨오는것만 같다.

한두해도 아닌 백두광야에서의 긴긴세월, 걸음마다 막아서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며 철천의 원수 일제침략자들을 쓸어놓으시는 투쟁의 나날에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는것을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신 고결한 심장을 지니신 김정숙어머님.

바로 그러한 공산주의혁명가이시기에 새싹이 파랗게 움트는 밀림에서 봄을 맞으시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으실 때 그 리도 기쁨에 넘치시고 행복에 겨우신 밝은 미소가 피어나신것이 아니었던가!

비록 그 모습은 수수하나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 어느 군모도 붉은 오각별 빛나는 어머니의 이 군모처럼은 소중할수 없고 자랑스러울수 없고 빛날수 없으리라.

대를 두고 자랑하며 전해 갈 빛나는 군모앞에서 어머니의 불멸의 업적과 높이신 뜻을 더욱더 새로이 새기는 나의 가슴 뜨거워져 불덩이를 안은듯 세차게 불란다.

사적관을 나서는 발걸음 천리만리라도 내달릴 듯한 힘이 솟고 말할수 없는 흥분과 감격이 끓어올라 또다시 어머니의 동상앞으로 걸음이 옮겨진다.

찾아와 첫 인사를 드릴 때보다 더 깊어진 생각으로 우러르니 어머니께서는 예처럼 밝고 다정하신 미소로 나를 반겨주신다.

조국개선의 날에 입교오셨던 그 군복차림에 그 군모를 단정히 쓰시고 웃고계시는 존경하는 우리의 김정숙어머님!

가까이 우리들수록 더욱더 친근하고 따사로운 그 품에 안기어 우리모두가 누리고있는 오늘의 행복과 보람을 아뢰이고싶고 자랑하고싶은 생각 다함없는데 오산덕의 설레이는 숲속에서는 온갖 새 우짖고 바람은 싱그러워 어머니의 군복자락을 스치는듯 유정도 하다.

끓어오르는 존경과 흠모로 가슴들먹이며 우러르는 우리의 심정 헤아리신듯 어머니께서는 높이 세워진 내각에서 내려오시여 뜨겁게 안아주실것만 같아 더더욱 발걸음 옮기지 못하게 된다.

항일의 날에 그토록 사랑하시던 조국의 진달래를 안으시고 서계시는 김정숙어머님!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앞에서 새 임무들 받으시는가, 아니면 수령님의 명령 실행하시고 방금 돌아오시여 사령부를 우러러 숭엄히 서계시는가.

충직한 친위전사의 숭고한 영상으로 서계시는 김정숙어머님을 우러르는 우리의 눈동자에 영원히 새겨져 빛을 뿌리는 오각별 군모!

가슴 그득히 피어오르는 흠모의 정과 함께 위

대한 어머니를 모신 영광과 긍지 다함없어 깊은 생각속에 천만가지 사연을 안고 우러르는 나의 가슴을 두드리며 어머니의 뜻깊으신 말씀이 울려온다.

《동무들, **김일성**장군님은 우리모두의 태양이십니다. 우리모두는 **김일성**장군님의 해발이 됩니다.》

아,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찬란한 해발이 되시여 고귀한 생애를 빛내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어머님을 따르는 온 나라, 온 인민이 끝없는 감사와 변치 않을 맹세를 담아 삼가 드리는 마음 이런듯 오각별 빛나는 군모를 쓰시고 서계시는 머리위에 찬란한 금빛해살이 줄줄이 쏟아져내린다.

존경하는 어머니께서 오늘도 쓰고계시는 항일의 군모를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는 젊은 병사들도 탄부들도 어제날의 화선병사였던 로병들도 한결같이 생각한다.

그 오각별빛의 천가닥만가닥의 한줄기가 되어 자기들의 머래우에, 가슴속에 그 붉은 오각별을 새겨안는다.

어머님을 따르는 깨끗한 마음,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한 충성의 별무리가 되어 이 땅우에 굽이칠것을!

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군모에 빛나는 오각별이여, 어머니의 불멸의 업적, 위대한 충성의 빛을 뿌리며 길이 빛나라!

## 련속방분기

#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전호에서 계속)

## 7. 어제와 오늘

우리가 소설가 김원종동무를 찾아 국경도시 해산에 다달았을 때는 북관땅이 신록으로 덮인 6월이었다.

6월을 맞아 나무들은 물론 풀들도 푸른 옷을 한결같이 차려입어 압록강변은 청춘의 자태를 드러내고있었다.

압록강과 오시천이 합쳐지는 해산북쪽기슭에는 바로 김원종동무가 현실체험을 하고있는 립업과학연구소가 자리잡고있었다.

무엇때문에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를 내용으로 하는 소설작품들을 쓰고있는 그가 여기에다 현실체험지를 정하였는가 하는 호기

심이 연구소에 들어서는 우리의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마 틀림없이 그가 지금 쓰고있는 장편소설 《모란봉(전시 인쇄부문의 노동자, 기술자, 과학자들의 영웅적투쟁을 내용으로 하고있다.)》을 완성하고 다음번으로는 립업부문 과학자들과 기사들의 생활을 담은 소설을 쓰려는것이 틀림없다고 우리는 짐작하였다.

우리의 이런 생각을 더 확고히 하여준것은 우리를 안내하여준 젊은 연구사였다.

《김원종동무를 찾아왔단말이지요? 감시다. 우리에게 와있는 소설가동무는 립업분야에 무척 관

심이 높습니다. 그는 지금 분석실험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소의 서쪽끝에 자리잡은 분석실험실에서 연구사들과 같이 실험수치를 놓고 매우 심각해져서 앉아있는 김원종을 볼수 있었다.

알고보니 지금 이곳 연구집단에서 나무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새로운 화학제품의 질이 훌륭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우리는 분석실험실에서 이곳 연구사들과 함께 실패의 원인을 찾고있는 그와 인사를 나누면서 그가 얼마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세계에까지 깊이 침투하고있는가들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떻게 되어 현실체험지를 여기에다 정하였습니까?》

그가 자리잡은 방에 이르러 우리가 이렇게 묻자 그는 우리에게 궁지롭게 대답하여주었다.

《이 연구집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무어 주시였지요. 이곳 과학자들과 연구집단은 당 제6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해 정열적이고도 희생적인 전투를 벌리고있습니다.》

이렇게 말꼭지를 떼 그는 이곳에 자리를 정한 뒤 1년이 되어오는동안 보고 듣고 느낀 과학자들의 미담들을 조리있게 이야기하여주었다.

실험용가마를 어떻게 건설하였으며 그것을 건설할때 얼마나 애를 태웠고 또 새로운 내산제 벽돌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론쟁이 있었는가를 그는 낱말이 말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가 이 연구소의 조수라도 된것같은감을 받았다.

《정말 깊은 체험을 하고있구만요.》

우리가 감탄을 금치 못하자 그는 웃으면서 자기가 어느정도 현실에 접근할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가르침이 있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벽에 모셔진 명제판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가 손으로 가리킨 바람벽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적은 명제판이 정중히 걸려있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늘 로동자, 농민과 접촉하고 로동자, 농민과 결합되며 그들속에서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의 원천을 찾아낼줄 아는, 로동자, 농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적 작가, 예술인으로 되여야 하겠습니다.》**

그 명제판과 마주농인 책상우에는 장편소설 《모란봉》의 초고가 듬뿍 무져져있었다.

장편소설 《광명을 찾은 사람들》, 중편소설 《의사는 집을 떠났다》, 단편소설 《압록강의 봄》, 《발벗은 아이》 등 항일무장투쟁시기를 반영한 작품들을 많이 써낸 그가 이번에는 1년사이에 조국해방전쟁시기를 취급한 작품을 썼다는 사실을 두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가 장편소설 《모란봉》의 초고를 빨리 끝낸것으로 보아 곧 새 장편에 착수할 준비때문에 여기다 자리를 정한것이 아닐가 하고 우리는 생각하였다.

《다음번에는 림업분야의 과학자들을 취급한 작품을 쓰렵니까?》

우리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저는 다음 작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있는 이 장편소설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직접 종자를 안겨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하게 쓰는것은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여기다 현실체험지를 정한것은 장편소설 《모란봉》을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하게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날을 쓰는 작가일수록 오늘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생활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소설을 읽는것은 바로 오늘의 사람들과 태일의 사람들이라는 그 이유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서야 우리는 그가 현실체험지를 이곳에 정한 이유를 비로소 리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이곳 연구사들과 함께 실험로속에 들어가 용접불꽃을 날리고 손바닥이 부르트도록 망치질을 하고 새로운 첨가제를 얻기 위해 과학자들과 함께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운것이 장편소설 《모란봉》에 등장하는 몇몇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형상 때문이었다는것을 알았다.

우리가 마주앉아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있는데 우리를 안내하여주었던 청년연구사가 찾아왔다.

《작가동무, 두번째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이곳에서 그의 참가 없이는 실험마저도 시작할수 없는 존재라는것을 말해주는 그 말에 우리는 그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툼밤에다 새로운 첨가제를 넣어 희귀한 약제를 뽑아내는 새로운 시험이 있습니다. 같이 나가 봅시다.》

그의 권고에 쾌히 응하고 우리는 실험탑과 실험로가 나란히 서있는곳으로 향하였다.

록음진 연구소의 구내길을 걷는 우리의 마음은 마치 자신들도 연구사가 된듯한 기분이였다.

우리는 어제를 쓰기 위해 오늘을 깊이있게 체험하고있는 그의 진지한 현실체험이 틀림없이 빛나는 열매를 맺으리라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였다.

## 8. 열차에서 만난 시인

해산에서 평양행 열차에 오른 우리는 동해선상에서 깊은 명상속에 잠겨있는 한 시인과 만났다.

그는 시인 구희철이였다.



우리의 뜻밖의 상봉으로 하여 렬차안은 흥성이  
였다.

알고보니 그는 혁명전적지를 답사하고 돌아오  
는 길이었다.

20 여일간의 혁명전적지 답사기간에 그는 회령  
의 오산덕, 온성의 왕재산, 웅기의 서수라를 거쳐  
지금은 여러가지의 시상을 안고 혁명의 수도 평  
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것이다.

그의 만족한 기분을 보고 우리는 그가 이번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 로정을 따라 혁명전적  
지들에 대한 답사행군과정에서 받아안은 감동이  
이만저만 크지 않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이  
미 오래전에 서정시 《조국땅우에 밤은 깊어가도》  
와 《아름다운 조국땅 기슭이여》를 써서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의 참다운 모습을 희망차게 노래한  
시인으로 알려진 그가 이번에 안고오는 창작적씨  
앗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싶었다.

《어떤 시들을 쓰려고 합니까?》

우리의 이 질문에 그는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쓰기 위해서만 다녀오는 길이 아닙니다. 시를  
쓰는데서도 초학도이지만 저는 생활을 리해하  
는데서도 첫걸음마를 뎌 사람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알고 우리 혁명의 뿌리와 인민  
의 마음을 깊이 파악하는것이 시인의 의무이지요.  
저는 우리 혁명의 뿌리를 더 깊이 깨닫고싶었습  
니다.

물론 저는 평양에 돌아가서 <오산덕시초>를 쓸  
결심입니다...》

그의 이 말은 겸손성에서만 출발한 대답같지  
않았다.

소박한 시인으로 알려진 그가 그리고 오래전에  
그가 발표한 시 <내 처음 세상길 걸듯>에서처럼  
언제나 자기자신을 출발점에 세우고있는 그의 그  
말은 매우 뜻깊게 들렸다.

우리는 그가 자기의 창작적구상을 쉽사리 터놓  
지 않으리라것을 알고 차창가에 놓은 그의 작  
가 수첩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그는 마지못해 우리에게 그 수첩을 내주면서  
수첩은 처녀들처럼 얼굴을 붉히었다.

《작가수첩》이란 글발이 새겨진 그 수첩에는 수  
많은 시편들이 들어있었다.

그 수첩에 마지막번째로 적혀진 시구절앞에서  
우리는 눈길을 멈추었다.

.....

오 혁명투쟁의 길에서 희생된

그 전사들의 이름

노래로 되울려지는가

수십년 세월은 물결처럼 흘렀어도

그 세월을 이 한순간에 다 거슬러보시는듯

두만강, 두만강

이름만 불러도

떠나간 전사들이 그리워지신다고

두만강, 두만강!

그 물결만 보아도

그 못잊을 전사들의 숨결이 느껴지신다고...

이 시는 이번에 그가 두만강변에서 시원한 강  
바람을 맞으며 써놓은 초고라는것을 알수 있었  
다.

력사의 강, 두만강기슭에서 그가 찾아낸 이 시  
상이 무엇을 담고있는가는 구태여 설명이 필요치  
않았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에서  
크나큰 충격을 받은것이 분명하였다.

그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나는 원고지우에다 잉크로써 시를 쓰는 그런  
시인이 되고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미 청춘이 시작될 때 김책제철소의 1호,  
2호 용광로의 확장공사에 용접공으로 참가한 사  
람입니다.

우리 용접공들에게는 용접면을 쓸 때마다 속으  
로 외워보는 말이 있습니다.

<쇠물로 땀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우리의  
량심과 충성으로 용접봉을 녹이자! >

이 말은 지금도 저의 가슴에서 떠나지 않고있  
습니다. 저는 용접공의 그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  
는 그런 사람이 되고싶을뿐입니다.

이것은 당과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만을 받아온  
저의 소원입니다.》

그의 소박하고 솔직한 그 말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그는 미구하여 조국편답을 할 구상까지 우리에  
게 말해주었다.

책상우에서 시를 짓던 시절과 영원히 헤어진  
그는 약동하는 현실에서 족잡을 자면서 시를 쓰  
려는것이였다.

펜으로써가 아니라 심장으로써 시를 짓겠다는  
그의 결심을 싣고 렬차는 끝없이 달리고있었다.

시창작의 참다운 립장을 지니고 전진하는 시인  
의 앞길은 활짝 열려있었다.

그 길로 그는 렬차와 더불어 끝없이 끝없이 달  
려갈것임을 우리도 믿고 또 믿을수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박호섭)

## 정다운 창문들

리신현

사택마을의 레사로운 하루저녁도 저물어가고 있었다. 즐거운 로동의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마음씨 고운 동네아낙네들이 성수가 나서 겨끔내기로 두드려대던 칼도마소리도 뜸해지고 아빠트 주변을 감돌며 재깰거리던 조무래기들의 장난질도 시들해 진지 오래였다. 지금은 밤의 고요만이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과 집집의 창문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들에 취하여 조으는듯하다.

김영삼은 가벼운 한숨과 함께 창가에서 돌아서 조용히 방불을 껐다. 아직은 행길에 인적이 그치지 않은지라 밖에서 누군가 한시간 가까이 창가에 우뚝 지켜선 자기를 수상쩍게 올려다볼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것이다. 어둠은 그의 사색에 방해로 되지 않았다. 영삼은 다시금 창문앞에 가섰다. 그리고 얼마후에는 것처럼 한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서있는 자신에 대해선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집을 사이에 두고 마주선 건너편 아파트의 한 창문에는 시름에 잠긴듯 팔을 짚고 선 녀인의 그림자가 어려있다. 동준기사의 집이었다.

기사는 작년초에 공장에서 새로 완공한 현대식 주택을 배정받고 벌써 이태동안 거기서 단란히 살고있었다. 하긴 늙은 어머니와 단둘이서 이사해온때만 하여도 넉직한 두칸방은 호젓한 그들의 살림에 지나치게 너랑청한감을 주고 창문도 여느 집처럼 따뜻해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직장사람들은 물론 동네녀인들까지 나이 서른이 넘도록 새살림차릴 궁리조차 하지 않는 기사를 은근히 동정도 하고 걱정도 하며 오히려 곁가마가 끓는다는 소문이 한때 자자했다.

《애그, 하늘에서 고운 선녀라도 데려오려나봐. 오이도 체철에 따랬다구 기사면 단줄 아나봐. 벌써 떡돌같은 아들 하나는 밀진줄 알라오.》

입이 다사한 녀인들속에는 간혹 그렇게 성화를 먹이며 은근히 기사를 탐낸 중매군들도 없지 않아 때없이 기사네 집 문턱우엔 치마바람이 일곤했다.

그때면 동준기사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수줍어하는 기색으로 《나한테 오겠다는 처녀가 있겠습니까. 늦은바엔 서너해 더 있다가 장가들지요.》라고 얼굴을 붉히며 사양하였다.

《아유, 삼년씩이나... 어디 두고보자요. 고작 석달을 참나.》

아닌게아니라 동준기사가 동네아낙네들의 말밥에 오르기 좋을만하게 석달도 못넘기고 물찬 제비같이 어여쁜 안해를 맞아들인 날이었다.

《그것보라요. 그런 일은 장담할게 못돼요. 글썽 눈에 차는 처녀가 없어 소경 잠자듯했겠지. 내원 저런 고운 색시 골라잡고 벼락잔치하지 않는 총각 못봤다니까. 호호...》

동준기사의 결혼식날 그러루한 시시평당한 딸로 신랑신부의 얼굴을 못들게 만든 마을아낙네들의 호돌갑스런 이야기는 마른 가독나무에 불타기듯 하며 어느새 공장안의 화재로 번져갔다.

《아무렴, 남자가 저만큼 인물이 쭉 빠져가지고 체넬 하나 호리지 못해 늙은 에미 애간장 말렸갔소. 듣자니 공장에선 이 집 신랑쟁이에 대한 자량이 프르르합데다. 그런즉 장갈 늦어든 안속이야 알만하지 않은가요. 저앞 6호동에 <압축기박사>라고 소문난 령감 있잖우? 글썽 그 아주바니가 호랑이질하던 뎌 옛날이 될거라 하질 않겠소.》

김영삼은 동네아낙네들이 조심성이란 전혀 없이 벽적 떠들어대며 주여섬기는 말을 듣고 마치고 초청하지 않은 결혼식술에 열근해진 사람의 기분에 잠겨 먼구스럽게 자리를 피해버린 일이 방금 어제런듯 삼삼히 떠올랐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야 그는 오랜만에 안해와 밥상을 마주하고앉아 술가락으로 뜨겁지도 않는 국사발만 휘젓다가 언지시 물었다.

《여보, 내 좀 한마디 묻자구. 임자한테두 인젠 내가 늙어뵈우?》

《원 당신두 몹시 취했구려. 나이 선여넙이 어디 적수?》

《그렇다-》

영삼은 밥술을 뜨는등마는등하다가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나 옷방으로 올라갔었다.

동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압축기직장 현장기사로 배치되어온지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기야 처음엔 누구도 생김부터가 얹전한 청년을 대수롭게 보게나 했던가. 동준이말고도 기사자격을 가진 젊은이들이 수두룩이 혼해 돌아가는판이라 압축기직장사람들은 현장기사라고 해서 특별히 그한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만 호평이 높았다면 남한테 까다롭게 굴줄 모르는 무던한 성미였던 그 청년의 인품이 갑자기 두르려져 사람들로부터 재능있는 기사로 인정받지 않는가? 두달전에 동준기사가 압축기생산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주목되는 《압축기의 변판개조》와 관련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성공하여 사람들을 경탄시킨 적이 있긴 했다. 영삼은 그때 온 직장이 요란하게 떠들썩했던 일을 상기하고 뒤늦게야 기사의

공로를 새삼스레 느끼게 되는 자신에 내심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스스로 가슴에 받아안은 그렇듯 강한 충격과 조만간 기사가 자기를 따라앞서게 되리라고 술렁거리는 주위의 구구한 여론에 겁사리 꺾이고 위축될 그가 아니었지만... 하긴 그 누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만큼 삼십년도 넘는 노동생활을 수많은 창안으로 장식하며 압축기직장의 로련한 기능공으로 존대를 받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왔던 그가 눈앞의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과연 얼마나 오랜 시일이 더 필요했던가?

벌써 영삼은 동준기사의 잔등을 두드려주고 싶은 심정이면서 동시에 자신도모르게 멋없이 살아온듯한 두가지의 모순된 감정에 현실적으로 봉착한 것이었다.

바로 열흘전 압축기직장에서 영문모를 원인으로 밤낮없이 기세종게 돌아가던 3호압축기가 언뜻 고장나서 멎어진 때의 일은 그의 번민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다.

그날은 실로 영삼의 노동생활에서 자신에 대한 실망과 환멸로 충만된 실책의 하루였다. 자기의 일생을 압축기와 함께 살아오며 단 한번의 실수도 몰랐던 영삼은 젊은 기사앞에서 처음으로 무능력한 자신을 통감했던 것이었다.

영삼은 너무도 피로운 생각을 덮어버리려는 것처럼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때마침 그는 아래방에서 전화종소리가 《따르릉》 자지러지게 울리는바람에 흠칫 놀라 다시 눈을 떴다.

어디서 온 전화인지, 이어 안해가 《뭐라고요? 남새도매손가구요? 아니예요.》 하고 수화기를 도로 놓는 철걱소리가 들렸다.

(젠장 저놈의 전화기도 인젠 무용지물로 되는가 보군. 주인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다보니...)

가슴아픈 생각은 또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몇해전 어느 마가을밤이었다. 영삼은 어쩌다 오래간만에 휴양권을 받아쥐고 려행가방우에 한팔을 걸친채 벡타이차림으로 역대합실의 장의자에 기대앉아서 련차시간을 여유있게 기다리고있었다. 직장장이며 작업반원들이 우격다짐으로 등을 떠밀다싶이하여 공장을 떠난 그는 모처럼 떨쳐나선 려행길에 차를 놓치기라도 할가봐 시간을 푼푼히 잡고 나와왔 것이었다. 그런 때 대합실안으로 안내원처녀가 숨가빠 달려들어오더니 압축기직장의 김영삼이라고 어느 손님인가고 떠들썩하게 찾아대며 공장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고 알리었다.

(보라니, 이 량반들이 안떠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보내놓군 이런다니까.)

영삼은 곧 역장실로 불리어가서 전화를 받았다. 압축기현장의 밤교대반장한테서 걸온 전화임에

일인즉 압축기에서 갑자기 별난 소리가 나서 모여붙어 공론하던중 아무래도 압축기전문가인 영삼의 방조를 청하는게 구급대책엔 제격일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자 속이 철렁해난 영삼은 즉시에 현장으로 달려들어갈 작정을 했다. 한데 생산에 물린 기대를 덮어놓고 세워두랄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공장으로 찾아들어가는 사이에 무슨 사고가 생길는지 몰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던중 신통한 궁리가 떠올라 현장전화의 수화기를 압축기에 가져다대라고 소리질렀다. 그러자 얼마 안되어 영삼이가 들고선 수화기의 고막을 통하여 귀에 익은 압축기의 동음이 제법 웅웅 울려왔다. 역장실의 전화기는 그 몇분간 영삼의 손에서 《청진기》로 사용되었다. 지나가던길에 얼핏 압축기소리를 듣거나 손으로 걸표면을 깊이보고도 귀신같이 기대상태를 알아맞히곤한 영삼이었다. 아닐세라 몇분 지나지 않아서 수화기안에서 《아바이, 정말 크랑크실주입구가 막혔댔어요. 들어보세요. 인젠 기대소리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수고하셨어요!》 하고 기쁨에 차서 알려주는 운전공처녀의 애된 목소리가 류창하게 울려왔다. 영삼은 그제야 흐뭇한 마음으로 역장실을 나섰다. 그리고 그후 그가 예정대로 휴양을 기분 좋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난데없이 방안에 저런 전화가 놓여있었다. 공장에서는 압축기의 사소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며 생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히 로기능공의 집에 전화기를 놓아준 것이었다. 온 가족은 직장장택과 동급으로 놓아준 그 전화기를 영삼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임으로 여겼고 누구도 주책용으로 망탕 사용한적이란 없었다. 그런 질서는 전화기에 제일 극성스레 매달릴것 같던 딸금실의 통제밑에 엄격히 유지되었다. 그때 겨우 중학교에 입학한 금실은 수예시간에 재간껏 뜯꽃방석까지 전화기밑에 산뜻하게 깔아주었다. 전화기는 유일하게 압축기 현장과만 련결된 집안의 엄연한 《당직전화기》와 같았고 그후로 영삼은 몸이 불편하여 집에 누워있을 때건 언제든지 압축기결에 있는 마음이었다. 한데 것처럼 친숙해졌던 전화기가 따르릉 울어대는 소리마저 오늘에 와서는 마치도 종착점에 다달은 자기 생활의 마지막 경종처럼 서글프게 가슴을 허비고들지 않는가. 모든것은 3호압축기로 인한 자기의 실책때문이었다...

바로 그날부터 영삼은 웬일인지 때없이 건너편 동준기사네 집 창문에 자주 동경에 찬 눈길을 주게 되었다.

밤이면 젊은 부부의 세살림이 갓 깃을 펴기 시작한 동준기사의 집에서는 은은한 서정곡이 고요한 정적을 타고 흘러나오곤하였다. 기사는 결혼한지 며칠이 되지 않아 신혼생활기념으로 전축을 사다놓고 퇴근후의 한때를 안해와 함께 행복하게

즐거웠다. 그들이 거의 습관적으로 감상하곤 하는 교향곡들중의 대부분은 영삼의 귀에 몹시 설었다. 워낙 로동밖에 모르며 고지식하게 살아온 영삼이 한때는 음악이란 미지의 세계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말거나 젊은 부부중 누가 사랑하는 곡인지 거의 매일저녁 동준기사에 열려진 창문으로 너가수의 고음정이 부드럽게 울려나왔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네  
푸른 하늘 밝은 달 고요히 흐르네

어쩐지 한쪽의 그림을 펼쳐보이는 것처럼 우아한 그 노래를 듣느라 젊은 기사의 신흥가정이 부럽고 단조롭게 보낸 자신의 생활에 아름다운 장미빛 노을이 때늦게 비껴드는 듯한 생각이 갈마들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제저녁부터 갑자기 전축이 어디 고장이 생기기라도 한 것처럼 그 노래소리가 똑 끊쳐 버리고 영삼의 생활에 어떤 대조적인 음영을 던져주는 듯하던 창문들은 굳게 닫혀버린 것이었다...

깊은 명상속에 잠겨 오래동안 창가에 머물러 있던 영삼은 등뒤의 인기척을 느낀 때에야 우람진, 몸을 돌리며 천천히 돌아섰다.

뜻밖에도 어두운 방구석에는 딸이 서있었다. 금방 공장에서 퇴근해온 길인지 발치에는 들가방이 놓여있고 옷도 외출복차림 그대로였다. 원 저 애가 방에 들어온 줄도 모르구... 그게 아무 허물할 것 없는 제살붙이중에서도 응석으로 자래우다 싶이 한 막내라는 의미에서 영삼이가 그 순간에 느낀 민망한 마음은 한결 서글프고 쓸쓸한 것이었다. 딸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금실이냐, 왜 그리구 섰느냐?》

영삼은 짐짓 태연한 체하면서 물었다.

그러나 마침내 《아버지-》하고 부르는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불을 켜려고 손더듬하던 영삼의 팔은 먹을 쓸며 힘없이 미끄러져 내리었다. 나직한 그 목소리에서는 너무나도 세찬 감정의 진폭이 파동치며 영삼의 가슴속을 정 울려주었다.

《아버진 왜 불도 켜지 않고 그렇게 서있어요?》

《.....》

영삼은 딸을 멍히 바라보았을 따름이었다.

금실은 말없는 아버지의 태도로 미루어 도리어 피로운 심정만을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드디어 어리광을 부리듯 품에 와 얼굴을 묻었다.

《아버진 동준기사동지때문에 그러지요?》 영삼은 딸한테서 것처럼 동정과 애원에 찬 음성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었다.

금실은 바로 3호압축기교대운전공이었다. 작년에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금실은 공장에 진출한 뒤에도 좀처럼 집에서 버릇된 응석티를 가지지 못하는 것 같더니 그런 내색을 조금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애두 네가 뭘 안다구 그러니?》

《전 알아요. 아버지 3호압축기가 고장난 날 괜히 기사동지한테 성냈지요? 기사동지가 옳고 정당한데요. 그래서 3호압축기수리작업도 기사동지가 책임지게 된 거지요 뭐. 전 정말 아버지가 벌써 그렇게 될 줄은...》

《됐다. 넌 참견할 일이 아니야.》

《아니예요. 전 아버지가 기사동지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걸 보고 가만있을 수 없어요.》

《뭘라구? 썩 가서 잠이나 자지 못할가!》

평소에 말수가 적다가도 한번 욱하면 기상이 무섭게 변하는 영삼의 성미를 모르지 않는 금실은 눈물이 글썽해진 고운 눈매를 들어 아버지를 야속스럽게 쳐다보더니 쫓기듯 아래방으로 와락 달려 내려갔다. 담겨진 사이문짬으로는 딸이 무어라고 소곤거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뒤이어 《아니, 너의 아버지가 환장을 한가보구나. 널 다 올려놓은 걸 보니...》 하는 무던한 안해의 슬까스르는 소리... 영삼은 그 모든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방안을 거닐었다.

(그래. 내가 저 엘 왜 올려놔담. 금실은 아버지가 가슴아파하는 걸 말했을 뿐인데...)

그러자 서글프고 착잡한 그의 생각의 갈피속으로는 3호압축기가 멈춰선 때의 일이 다시금 선명히 비껴들었다. 그날 아침 압축기현장은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 찾아드는 사람들의 발길로 붐비었다.

그 뜻밖의 《비상사고》가 발생한지 몇분 안되어 공장지배인이 급히 달려왔는가 하면 독감에 걸려 누웠던 기사장까지 어디서 통보를 받았는지 숨이 턱밑에 닿아 혈색거리며 나타났다. 하지만 어떻게 되어 기대가 고장났는가는 다급한 물음엔 누구도 변변한 대답을 한 사람이 없었다. 영삼은 숨죽은 압축기앞에 쭈그리고 앉아 침묵만 지켰다. 당황해난 교대반장이며 운전공처녀 할 것 없이 모두 압축기직장의 년장자인 그의 얼굴만 안타깝게 쳐다봤으나 아무리 기대를 만지고 쓸며 간간히 살펴봐야 도무지 무슨 조화속인지 짐작이 가질 않았다. 혹시 기대공의 부주의로 인한 과부하현상이 아닌가? 그런 것 같지도 않았다. 기대가 멈춰서기 직전까지 운전공처녀가 착실히 정리한 작업일지에는 《130기압》이란 수자가 또렷이 적혀있었다. 130이면 그닥 높은 기압이 아니었다. 요즘에 와서 공장생산이 긴장되는 바람에 압축공기소요량이 부쩍 높아져 기압계의 바늘들이 그 이상을 쟁충 치달아오르는 경우가 드문하지 않는가?

그때였다.

동준기사가 류달리 새하애보이는 로동장갑을 손에 쥐고 영삼의 옆에 와앉으며 어렵지 않게 한 마디 슬쩍 귀띔했다.

《영삼아바이, 자꾸 들여다보야 속만 상하는놈의걸 와락 해체해봅시다.》

《뒹어놓고 해체하자는 소린 아닐테지? 어디 짐작이 가는데가 있나?》

《혹시 압축기축이 휘지 않았을가요?》

《뒹야?》

영삼은 덴접하여 눈을 홑뜨며 큰소리로 반문했다. 압축기축으로 말하면 웬만치 한아름이나 되는 귀중한 물건이다. 영삼은 현장기사의 《체면》을 봐줄 생각이 없었다면 아마 당장 무슨 일빠진 소릴 하느냐고 되게 면박을 주었을것이였다. 그닥 별많은 자그마한 부속품 하나도 제살점처럼 소중한 그한테는 압축기축이 휘지 않았느냐고 묻는 그 말이 지어 자기 등심뼈가 부러지지 않았느냐고 묻는듯한 모욕적인 말로 들리기까지 했다.

《이보게, 기사동무. 그 말이 쉽게 나오든가? 압축기축이 휘다니? 원 그런 버락맛을 소리두 하나?》

동준기사는 압축기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으로 하여 것처럼 과격해질수 있었던 로기능공의 조언을 존중히 여기는것 같았다. 영삼은 그가 군말없이 돌아서는걸 보고는 고마운 생각까지 들었다.

했던 일인데 얼마후 다시 현장에 나타난 동준이가 언죽번죽 말주변이 좋게 한참 사리를 캐여 가며 설명하고나서

《아바이, 제 예측이 틀림없을겁니다. 간놈의걸 밀저야 본전인데 해체해봅시다.》 하고 자기 주장을 완강히 고집했다. 그바람에 대뜸 기분을 잡친 영삼은 뉘앞에서 감히 훈제길인가는듯 마뜩잖게 현장기사를 흘려보고나서 당치 않은 소릴 그만두지 못하겠느냐고 버럭 성을 내었다.

일이 그쯤되자 동준기사는 저대로 바깥 등이 달아서 정식 직장장 승인을 받는다고 드달려다나였다. 영삼은 동준의 자못 도전적인 행동을 젊은 혈기에 충분히 그럴만한 일로 대수롭지 않게 왔고 또 한편 내심 쓰겁듯한 마음도 없지 않았던지라 아예 못보는척해두었다. 한데 괜한 소동을 피우며 돌아친다고 우습게 여겼던 동준기사의 타산이 뜻밖에도 면바로 들어맞을줄이야 뉘 알았겠는가!

영삼은 동준기사의 주장이 옳다고 판명된후 도무지 눈앞의 현실을 믿을수 없었다. 그것이 천번중에 단 한번 당하게 되는 일생에 드문 일이라해도 다름아닌 자기가 그런 실수를 했다는것은 그저 꿈만 같았다. 그것이 자기 생활에서 한순간 얼핏 나타날수 있었던 어떤 우연한 착오라고 해도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그럴것이 어느덧 삼십년이상이나 압축기직장에서 첫손 꼽히는 로련한 기능공으로 무탈히 지내온 그가 제몸뚱아리와 다름없이 아껴온 압축기축이 쓸모없이 되었는데도 눈뜬소경처럼 그것을 가려보지 못하지 않았는가.

영삼은 지금 작업반세포비서를 하는 김기섭이 말고도 해방후 맨주먹으로 공장을 일떠세우며 한

날 한시에 조선로동당의 당원증을 받은 귀중한 벼들이 있었지만 전쟁의 맹폭속에서 바로 압축기를 구원하려다가 그들과 영결하며 원통한 눈물을 흘렸다. 그 일을 모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아바이, 인젠 직장에 나와 <기술고문>이나 하시지요.》라고들 자주 권고하였다. 그 말인즉 년세가 많아 일손을 잡지 못해도 좋으니 공장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였다. 그때면 영삼은 《고맙네만 아직은 생각이 없어. 설사 <고문>노릇을 해도 내자리에 대신 끝끝한 젊은이를 세워놔야 할게 아닌가.》하며 허탈히 웃었다. 한데 수십년 로련한 기능공으로 살아온 자기가 벌써 젊은 기사를 볼 면목 없이 되다니, 영삼은 너무나 눈앞이 아찔해지는 자신에 대한 환멸감에 사로잡혀 현장안의 해체해놓은 기계부속품들을 바라보기조차 괴로웠다.

이제껏 자기를 존경과 경탄의 눈길로만 떠받들던 사람들을 보기가 부끄러웠다. 모두는 그를 두고 말년에 너무 일욕심을 부리면 젊은이들앞에서 의례히 망신을 당하기마련이라고 생각하는지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면구스러워하는 기색들이였다. 다년간 친숙하게 지낸 동년배들중에도 예전과 달리 어색하게 대해주는 친구들이 눈에 띄었다. 그로 하여 상처받은 마음은 더욱 아팠다.

영삼은 부질없이 자주 바깥에 나가 어시병거리였고 무심히 날아에는 날짐승들을 향해서도 한동안씩 멍한 시선을 던졌다.

그가 무거운, 심정을 안고 현장안으로 도로 들어왔을 때였다. 3호압축기앞에는 여러명의 로동자들이 동준기사를 빙 둘러싸고 무슨 이야기인가 열중히 나누고있었다. 그들속에는 김기섭세포비서의 얼굴도 보였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없는 영삼을 찾거나 돌아다보지 않았다.

(내가 벌써 이렇게 딱일이 되는가...)

저녁무렵이 되어서였다.

김기섭이 그를 찾아와서 예상외로 즐거운 기분에 잠겨 이렇게 귀뜸해주었다.

《이사람, 기뻐하게. 인젠 동준기사가 임자 못지 않게 됐거던. 3호압축기수리작업은 그가 책임지기로 됐네.》

영삼은 도리어 오랜 친구가 몹시 흠족해하는 그 말을 듣고서야 눈곱이 뜨거워지며 비로소 자기의 욕된 생각에 분이 치미는것을 느꼈다.

과연 자기가 이제껏 그 어떤 공명이나 명예를 바라며 살아오기라도 했더란말일가? 일생 처음 자신을 무기력한 인간으로 느낀 쓰디쓴 감정때문에 순간이나마 잃어진 명예에 얼굴을 돌리지 않을수 없었던 그는 자신이 저속하게 여겨지고 스스로 그 더러운 랑심에 침이라도 콧 뺨고싶었다. 실로 그 짓은 그가 뒤늦게나마 부질없이 허탈상태에 빠져있었음을 깨닫게 된 마음의 울부짖음이야 해야 할것이였다.

그날부터 며칠 후.

바로 어제처럼 동준기사가 책임지고 완성한 3호압축기의 시운전이 랑패로 돌아갔다.

실로 그 일은 채 아물지 않은 영삼의 가슴속 상처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새로 축을 교체하여넣으면 만사가 풀릴 줄 알았던 동준이가 도리어 주축메달까지 태워먹고 어깨죽지가 처져 한숨만 내릴 때 압축기를 바라보는 로기능공의 마음엔 예리한 칼끝이 날아와 박히는것만 같았다.

하루사이 몰라보게 눈확이 폭 꺼진 동준기사는 그를 찾아와서 풀죽은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하였다.

《영삼아바이, 전번엔 정말 미안하게 뻘었습니다. 그뻘 짧은 소견에 당장 압축기를 살려낼것 같아 헤덤비다보니...》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기사동무가 잘못된거야 없지. 그건 도리어 내가 할 소릴세.》

《참 아바이두 그렇게 말씀하시는걸 보니 아직 노염이 풀리지 않았구만요. 일을 이 꼴루 만들고 말하긴 부끄럽습니다만 사실은 수리작업도 관록이 있는 아바이가 책임졌어야 했지요. 괜히 주제넘게 말아놓고 후회가 많습니다.》

영삼은 그만 눈이 동실해서 동준을 쳐다보았다. 그 순간 기사의 혈끔해진 얼굴표정에서 그가 진정 신심을 잃고 고민한다는것을 직감한 영삼은 무어라고 말을 못했다. 며칠동안 노상 자신에 대한 생각에 파묻혀 지내면서도 기사가 성공하기를 바란 마음만은 말없는 가운데 뜨겁게 간직한 그였다. 영삼은 동준기사가 이렇게까지 실망한줄 몰랐던지라 그앞에서 끝내 아무런 위로의 말도 찾지 못하고 묵묵히 돌아서 천천히 걸음을 옮겨 놓았다.

집채같은 여러대의 대형압축기들이 체통에 어울리게 떠엄떠엄 간격을 두고 앉아 지심을 울리는 현장의 드높은 천장유리창에는 때마침 랑조의 잔광이 불그레 물들어있었다. 과연 이 하루도 무심히 지나가고마는것인가?

영삼은 3호압축기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자 웅장한 동체에 손을 얹고 저도 모를 땀발이 내솟는것을 느끼며 머리를 떨구었다. 전쟁후 김기섭 세포비서와 함께 재먼지 날리는 폐허속에서 파괴된 압축기부속들을 파내어 손바닥에 피가 지도록 끌고다닌 일이 떠올랐다. 너무나도 앞이 막중한 생각에 그들은 배고픔과 피곤을 알았던가? 원통한 가슴을 치며 흘렸던 그때의 땀방울과 줄칼자욱이 다시금 짙어는듯하여 영삼은 얼나간 사람처럼 몇번이고 몇번이고 압축기표면을 쓸어만지었다.

저쪽에선 동준기사가 그런 로기능공을 이윽도록 지켜보며 우두커니 서있었다. 그러나 조금후 그와 눈길이 마주친 기사는 이내 힘없이 발길을 돌리는것이였고 그로하여 영삼의 생각은 더욱 깊어졌다.

낮에 바로 그런 일이 있은후로 영삼은 집으로

돌아와서 여태 잠들지 못하고있다...

오늘도 사택마을에서는 맨마감으로 동준기사네 창문의 불이 꺼지고있었다. 그 마지막 불빛을 보고서야 영삼은 창가에서 서서히 물러섰다. 이 밤도 기사의 안해는 공장에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저렇게 늦게야 잠자리에 드는것이리라.

조금후 영삼은 마침내 차비새없이 집을 나섰다. 당자인 동준기사는 두말할것 없고 밤이 깊도록 짝얇은 원앙처럼 혼자 안타까와하는 그의 안해를 봐서라도 직장에 나가보지 않을수 없었다.

어느덧 그가 압축기현장에 당도했을 때였다. 동준기사가 거처하는 기술준비실에는 아직도 불이 환히 켜진체로 있었다. 다만 아무런 인기척도 느낄수 없어 방안이 피자늑한걸 보니 기사가 잠들기라도 한 모양이었다. 그래 그 앞에서 잠시 주춤거리던 영삼은 곤히 잡든 기사를 깨울가 저어하듯 조심히 발걸음을 옮겨 3호압축기쪽으로 향하였다.

여라문대의 대형압축기들이 주련이 늘어선 압축기현장은 말이 직장이지 사실은 하나의 공장을 방불케 하는 큰 건물을 쓰고있다. 게다가 이런 밤교대면 기대에 불어돌아가는 운전공처녀들도 눈에 잘 띄지 않아 현장안의 모든 생산공정은 무인조종으로 진행되는것 같기만 했다. 오늘밤도 현장만 여러대의 압축기들에서 흘러나오는 고르로운 동음을 만이 어우러져 울릴뿐인데 3호압축기 혼자 공상스럽게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덩실하니 서있었다. 운전공처녀들이 잠시도 손이 놀세라 탁달질해놓아 다이루바닥 못지않게 정갈하던 기대의 주변에는 크고작은 기계부속품까지 불품없이 널려 마치도 밤새워 기사가 고심한 흔적을 보여주는듯싶었다.

(원 녀석이 저렇게 몽겔줄이야 뉘 알았노...)

영삼은 머쓱하게 큰 그의 키에도 다가서면 저절로 고개가 젓혀지기마련인 3호압축기의 우뚝 솟은 동체앞에 마주앉자 두손으로 무릎을 싸쥐며 가슴꺼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한동안 땅바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자신도 알지 못할 사색의 미궁속으로 건잡을수 없이 빠져드는가싶었다. 그러던 영삼은 그만에야 눈을 휘둥그렇게 사려뜨며 기대앞으로 한발 가까이 다가앉았다. 육중한 기대가 널찍이 틀고앉은 자리의 네귀에는 큼직한 기초볼트가 솟아있었다. 그것이 무슨 신기한 물건인것처럼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의 눈길에는 순간적인 이상한 광채가 스쳐지났다. 정전직후 밤도와 압축기를 설치할 때 기대의 성능과 진동을 면밀히 타산하여 그 고정볼트의 조임세에 각별한 주목을 돌린 생각이 얼핏 떠올랐던것이다. 그때로부터 어언 오랜 세월이 경과한사이, 직접 3호압축기를 설치한 당자들이 아니고서는 알아보기조차 어려울만큼 해묵은 기름때속에 파묻혀있는 기초볼트! 누구도 그 볼풀없이 된

하찮은 기계부속의 조화로 압축기에 무리를 주었다고 한면 과연 곧이들을 사람이 있겠는가?

드디어 영삼은 움쭉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며칠간 동준기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써 모대기면서도 무심히 간과해버린 실패의 비결이었지만 결코 로기능공의 눈만은 속이지 못한 것이었다. 영삼은 마침내 두눈에 눈물이 그렇게 졌다. 사람들은 흔히 가장 기쁠 때 잃었던 자식을 만난것 같다고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을 되찾은 마음이였다.

영삼은 너무도 반가운김에 현장기사한테로 달려가 잔등이라도 철썩 깔쳐주고싶었다. 녀석이 얼마나 기뻐할텐가! 오늘은 일을 마치기 바쁘게 밤늦도록 안해가 기다리는 집으로 날개돌쳐 달려갈게고 아름다운 생활이 깃든 창문으로는 끊어졌던 음악이 다시금 흘러나올테지... 그때 영삼은 불현듯 기사의 결혼식날 사택마을아낙네들이 모여앉아 떠들썩히 주고받던 말들이 귀전에 울려오는듯하여 저도모르게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멀지 않아 자기는 어차피 압축기에서 물러날 사람인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반면에 동준기사야말로 앞으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곳곳이 살아가야 할 유망한 젊은이였다. 그럴진대 저렇게 신심을 잃고 동요하는 기사한테 자기가 찾아낸 성공의 비결을 그대로 넘겨준다면 그것이 무슨 도움으로 될수 있단말인가?

자기 가슴속의 어떤 일시적일 흥분이나 압축기 직장의 《좌상》만이 할수 있는 레의 그 실무적인 일장훈계로 젊은이의 사색을 중단시키곤했던 마음이 없었던 그였다. 물론 동준은 시운전의 실패로 하여 몸부림이라도 치고싶도록 고통스러울것이였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모대기는 인간의 고된이 그 어떤 달콤한 사랑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것이다. 기술준비실안은 여전히 불이 켜진대로 잠잠하였다. 영삼은 그제야 요 며칠간 매일같이 쪽잡으로 밤을 새우는 기사를 살뜰히 돌봐주지 못한 아픈 생각이 갈마드는것을 느꼈다. 그는 소리없이 기술준비실문을 열고 들어가 스위치를 꺼주고 나왔다.

그리고는 작업반휴계실에 가서 우두커니 앉아 동준기사를 도와줄 무슨 묘책이 없을가고 장밤이 궁리 저 궁리 하였다.

날이 새자 딸 금실이가 밥보자기를 들고 휴계실로 찾아왔다. 금실은 지난밤 자기때문에 아버지가 성이 나서 직장으로 나와버린줄로 아는지 공연히 호들갑을 떨며 책상우에 보자기를 풀어놓더니 제법 새침해서 재깰거렸다.

《아버진 정말 성나셨지요? 그래도 어머니 낄보구 뭘했는지 알아요? <그까짓 똑쟁이 령감한테 밥은 무슨 밥을 날라가?> 하고 옥박지르질 않겠어요. 그리구 집에 있는 닭알을 다 마사 반찬을 만든다고 야단하며 막 쥐여박았어요. 정말 어머니 참, 호호...》

막내딸의 본성이 터져나오는바람에 어처구니없

는 웃음을 허허 웃고난 영삼은 밤새운 피곤이 홀날아나는것을 느끼며 책상우의 밥보자긴 한엿으로 밀어놓고 금실의 손목을 살뜰히 잡았다.

《금실아, 내 한가지 물물가? 너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구 그랬지?》

《네?》

금실은 아버지의 똥판지같은 질문에 눈웃음을 짓다말고 어리둥절해하였다. 영삼은 그런 딸을 일귀세워가지고 무작정 3호압축기현장으로 털썩 걸어나갔다.

《이리 오너라.》

영삼은 압축기기초자리앞에 굵석히 앉아 투박한 손을 내밀어 기름때투성인 고정볼트를 가리키며 조용조용 말하였다.

《너 이게 뭇지 알지? 글썽 이놈때문에 압축기가 고장난걸 몰랐구나.》

그 말에 금실은 갑자기 발그스름한 랑불에 진한 홍조가 활짝 피어나며 탄성을 질렀다.

《아이! 아버지 그래서 어제밤에 직장에 나오셨군요!》

《떠들지 말어라.》

《왜 그래요, 아버지. 줌전에 기사동지를 만났는데 어제밤에도 현장에 새운가봐요 어서 가서 말해주자요.》

《떠들지 말래두.》

영삼은 딸한테 엄하게 눈짓하였다.

《괜히 기사한테 찾아다닐 생각말구 여기서 이거나 착실히 닦아놓아라, 누가 와서 뭘래도 아무소리 말구.》

《아이참 그건 왜요? 왜 기사동지한테 뭇뭇이 말해주지 못한단말예요. 아버지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아버지가 압축기에서 물러나게 될가봐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어요? 아버지 늙어가도 압축기기능공으로서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 남아있어야해요. 전 아버지가 그렇게 되길 바랄뿐이에요.》

《금실아, 그래선 못써. 기사동무가 네가 깨끗이 닦아놓은 이 기초볼트를 와보구 스스로 시운전이 실패한 리유를 알아내면 그게 훨씬 더 좋은거다. 이 아버지를 위해서도말이다. 저걸 보려마. 저 압축기의 각종 계기판들은 얼마나 번쩍거리구 시린다는 요란해되느냐? 하지만 이 기름때속에 묻힌 기초볼트와 같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 않으면서 압축기를 떠받들어주는 중요한 기계부속도 있느니라. 넌 잘 모를테지만 전쟁기간 이 압축기를 살리려고 목숨을 바친 내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들중에는 나와 같은 날에 당원증을 받은 오랜 당원도 있었어. 그들은 언제한번 사람들앞에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다. 알만하냐?》

단지 영삼은 어쩐지 딸한테 자기의 실책, 삼십년이상이나 압축기와 함께 살아가며 로련한 기능공으로 존대를 받아온 자기 파신과 자만, 그로 하여 젊은 기사를 믿지 못했던 그 엄중한 착오에

대해서만은 말하게 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자식 앞에서 다시 돌이켜보기엔 그것이 너무나 가슴아픈 일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내 금실을 혼자 남겨두고는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도로 휴게실쪽으로 어정어정 걸어갔다. 딸이 뒤에서 따라오며 금시 《아버지!》 하고 부를 것 같았으나 영삼은 돌아다보지 않았다. 금실은 아버지를 이해할 것이었다.

그러나 조금후 그가 작업반에서 아침모임을 마치고 압축기현장으로 나왔을 때 이상하게도 금실은 그 자리에 없었다. 어디로 간 것인가? 다소 마음이 불안하여진 영삼은 나타나지 않는 딸을 기다리며 한동안 현장안을 초조히 오락가락하였다.

(그 애가 그럴리 있나...)

그는 딸을 믿었다. 그러자 벌써 그의 눈앞에는 잃었던 정열과 신심에 넘친 동준기사의 밝은 얼굴이 사랑스럽게 떠오르며 오늘따라 별로 현장안이 어수선했어 보이는 것이었다. 영삼은 혼자서 말없이 압축기주위를 돌아가며 이것저것 눈에 띄우는 대로 널린 기계부속과 공구들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받침목으로 쓰던 크고작은 통나무들도 한쪽 구석에 보기 좋게 정돈해놓고 기름묻은 걸레조각들과 쇠바줄이 밭길에 걸쳐져 덩구는 땅바닥을 말끔히 쓸어내기도 하였다.

얼마나한 시간이 지나선가. 그는 작업반세포에서 김기섭이 결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던지시 묻는 소리를 듣고서야 꾸부정히 허리를 폈다.

《이사람, 자네 오늘은 어떻게 된 문세인가?》

《어떻게 되긴?》

《임자가 기대를 살려놓기 전에 바닥부터 거뒀는데 걸 못본 것 같아서 묻는 걸세.》

영삼은 그 말에 시무룩이 대꾸하였다.

《별소릴 다 하는군.》

《시침을 따지 말라구. 이런 일은 육십사납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야.》

김기섭이 오랜 로동생활을 통하여 깊이 사권 로기능공의 무표정한 태도에 마음을 쓰며 다시금 의미심장히 고개를 돌리었다. 영삼은 무슨 일인가 하여 그의 시선을 따라 3호압축기쪽을 던지시 바라보았다. 그앞에는 금실이가 바로 그들 두 기능공들처럼 동준기사와 다정히 마주서있었다. 굵실굵실한 머리칼이 작업모뎀으로 흘러내린 기사는 전에없이 얼굴에 심중한 표정을 짓고 서있었으며 금실은 무엇인지 모를 궁지와 자랑에 찬 다감한 눈매로 그를 쳐다보고있었다. 그러던 딸이 아버지의 눈길과 마주치자 갑자기 고개를 수그리고 자리를 피해 달려가는 것이었다.

그바람에 두 기능공은 서로 마주보았다.

《저 앤 늘 봐야 저 응석이 탈이라니.》

《정말 입잔 늙어가는 게 아깝군!》

김기섭의 혼자생각에 잠긴 말이였다.

그날저녁이었다.

공장에서 돌아온 영삼은 자기네 6호동아빠트밀에서 건너편 동준기사의 집을 흐뭇한 마음으로 울러다보며 오래도록 서정거렸다. 낮에 3호압축기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마친 기사네 열려진 창문에서는 예전처럼 아름다운 선물이 미풍에 실려 은은히 흘러나오고있었다.

아 정다운 어머니 내 고향

그립구나 어머니조국의 땅이여

이미 귀에 퍼그나 익은 너가수의 부드러운 고음창이었다. 오늘저녁따라 그 노래에는 이전에 미처 감수하지 못했던 많은 의미가 보태져 영삼의 가슴에 더없이 정답게 안겨오며 기사네 창문에서 더욱 눈길을 땔수 없게 하였다. 순간 어쩐지 눈앞에는 다시금 3호압축기결에서 병글거리던 동준기사의 밝은 얼굴이 떠오르는가 하면 그를 둘러싼 직장사람들이 《과시 현장기사가 다르긴 다르군. 이제 영삼아바이가 늙었어.》 하는 말을 듣고 눈물을 머금던 금실의 얼굴이 얼른거리며 눈굽이 뜨거워졌다. 그는 자기의 명예보다도 동준기사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심을 새롭게 가다듬고 살아가게 된 것이 그토록 귀중함을 가슴빠근히 느끼고있었다. 잠들줄 모르는 기사네 불밝은 창문에는 언젠가처럼 문설주에 비스듬히 등을 기대 앉은 젊은 녀인이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에 취한 듯 서있는 풍만한 모습이 행복의 그림자인양 황홀히 비껴있었다. 어찌 생각하면 그 창문은 동준기사가 네가 갑자기 웃음으로 이사를 해간 게 아닌가 싶게 더 높아보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 밤 사택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창문이 바로 자기 집에 달려있다는데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있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자 이내 불을 꺼버렸다. 벌써 며칠밤을 버쉬우며 잠이 밀릴대로 밀린 그였다.

《따르릉...》

조금후 아래방에서는 《당직전화기》의 전화종 소리가 요란히 울렸다.

그 누구도 모르는 《압축기박사》의 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공장지배인이 로기능공한테 걸어온 전화였다.

때마침 집에 도착한 딸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전화를 받고있었다.

《너 금실이나, 아버지가 집에 왔겠지?》

《왔어요, 지배인동지.》

《그럼 됐다. 오늘밤은 네가 아버지를 꼭 쉬게 해드려라. 꼭! 알겠니? 지배인이 전화 걸더란 말은 말구.》

영삼은 거듭 당부하는 지배인의 말에 딸이 눈물이 글썽해서 서있었으나 그 일마저도 전혀 몰랐다.

이미 깊이 잠들어버린 것이었다...



# 해빛따라 피는 꽃

구희철

꽃을 피워도  
찬 눈비속  
뿌리를 내려도  
폭풍 세찬 바위우에

시련을 맞받아  
언제나 피어웃는  
만병초, 너는  
내 마음의 꽃

아, 수령님  
조국진군의 그날에  
흰눈속에 피어 반긴 너  
눈서리 내려도 변함없이 피는 꽃

내  
너처럼  
산도 백두산 그 한끝  
태양가까이만 피고싶어

거기서 해빛 먼저 받아  
만리에 꽃향기 날리고  
오는 봄도 남먼저 알리며  
너처럼 살고싶은 내 마음

참말로 높은 대가로  
삶의 봄은 꽃핀것

수령님 고생많이 걸어오신  
그 길에 내가 꽃수를 놓았구나

뿌리도 혁명의 첫뿌리 내린 그 산악  
자옥도 우리 당 첫자옥 찍힌 그 성산  
그래서 백두에 오르는 사람들 가슴에  
그 뿌리 귀중히 옮겨내리는것 아닌가

만병초, 네 마음은 나  
내 마음은 너  
억세인 그 기상  
백두산 머리처럼 숙어질줄 모르는 꽃아

너처럼 천신만고 다 이겨내며  
태양만을 향해  
내 신념 이 땅우에 뿌리내려  
삶의 행복을 꽃피우리니

수령님 우리러  
깨끗해지는 내 마음  
눈보라 천만리라도  
이 세상 한끝이라도 따르리

아, 모진 시련 다 맞받아 피는  
너에게 내 마음 송두리채 맡겼음은  
너처럼 내 서야 할 자리를 알고저  
너처럼 내 영원히 변심을 모르고저

# 백두산의 잣나무 외1편

김희중

땅이 끝나고  
숲이 끝나는  
그 한끝에 서있구나

얼음덩이 흘날리는 모진 설한풍에도  
부석을 그려안고  
하늘에 솟으며  
해빛따라 가지를 펼쳐가는

백두산의 누운잣나무야

나는 듣는다  
푸르른 너의 잎새에 옷자락 스치며  
그 울부짖는 눈보라속을  
쓰러지며 부추기며 헤쳐가던  
투사들의 장한 발자욱소리...

나는 본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너의 가지에 뜨거운 불을 비비며  
백두산의 해돋이를 우러러  
미소를 보내던 투사들의 그 모습...

아, 너는 누운잣나무

그러나 너는  
백두산을 안은 불패의 기상  
눈바람을 이겨내는 마음은  
그리도 빛나고 숨엄한것이나

시련의 고개 높고 험하여도

넘으면 봄이 오고  
넘으면 꽃이 피는  
혁명의 길을 내 생각하노니

땅이 끝나고

숲이 끝나는곳이 아니라  
혁명절개의 가장 높은 한끝에 서서  
여기로 오라 여기에 서라  
너는 우리모두를 부르고있구나

## 사랑의 집

선들바람 푸른 잎에 미소지으며

조용히 흘러내리는 숲  
물결도 정답게 부서지는 호수가에  
급작스레 집 한채 일어섰네

꽃무늬 돋친 화려한 방에

복도까지 달린 집  
채광창의 햇빛은 얼마나 눈부시나  
마을에서 으뜸가는 집

그러나 농장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네

군의 돌격대원들이 지은 집  
마을의 좌상령감은  
잘 고른 집터를 대견히 바라보며  
영웅뜨락뜨라운전수를 생각하고...

군에서 칠십리

직통전화선이 놓인 날  
지나가던 기동선전대처녀들은  
양어장에 새 지배인이 온다더니  
아마도 그 집이 분명하리라...

새 집이 설 때마다

은근히 남먼저 달려와보는  
제대군인총각은  
이런 경치좋은 집이야  
이름난 농산과학자라도 오는게라고...

아, 좋기도 하지만 신비롭기도 하여라

저마다 제나름의 생각속에  
날마다 새 꿈을 피워가고  
주인을 바꾸어가며  
하늘에 높이높이 솟아오르는 집

어느 가을날 난데없는 승용차 두대

호수가를 굽어돌아 이 집에 머물렀네  
누가 왔을가 차문이 열리자  
뜻밖에도 평양산원에 갔던 아주머니가 웬일이냐

또 한대의 차문이 열리자

우리 군당의 책임일군은 웬일이냐  
뒤따라 흰 위생복의 두 처녀  
안고내리는 새 아이는 웬일이냐

터져오른다. 감격의 열풍이어

저마다 꽃피워오던 농장원들의 꿈은  
이런 순간, 이런 영광을 위하여 있었던가  
정중히 어버이수령님의 배려를 전하는  
우리 군당의 책임일군

아, 주인을 기다리던 이 집은

평범한 농장원아주머니의 집  
세쌍둥이의 미래를 하늘높이 받들어  
의사와 보모까지 따라온 사랑의 집

밝은 창문들이 활짝 열리자  
하늘땅에 어러오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여  
숲도 호수도 온 누리가  
아버이 말씀을 뜨겁게 받아외우네

-나라가 흥하니  
세쌍둥이도 많이 태어나는구만!  
-1981. 황주군 석정리에서-

## 림산마을

강림석

### 1

기차로 넘은 령은 그 얼마이며  
빠스로 지난 령은 그 얼마이라  
더는 갈곳이 없어  
길도 여기서 끝이나는곳

문을 열고 나서면  
이마를 찡을듯  
앞에도 산이고  
뒤에도 산이요

이렇게 깊은 두메 외진곳에서  
사람이 한생을 어떻게 사느냐  
인정 많은 나그네여  
공연한 동정은 그만두시라

함해서 스물세집 이 마을을 위하여  
체신분소 창문이 언제나 열려있고  
진료소 빨간 적십자표식이  
무병장수 보충처럼 빛을 뿌리오

휘우듬한 통나무굴뚝과 나란히  
군데군데 팔을 벌린 텔레비죤안테나  
동기와 산뜻한 구락부에선  
평양과 같은 날에 같은 제목 강연회

토장앞 물동길에 웃음 날리며  
소문난 영웅이 산으로 가고  
한해에도 그 몇번 수령님 뵙고오는  
최고인민회의대의원이 난 마을

아 여기서 여기서  
우리의 별목공들이 사노라  
우리의 운재공들이 사노라  
세상에도 자랑할 행복을 누리며!

### 2

순간의 흥분을 앞세우지 말라  
늘러앉아 살고싶다  
그렇게 가벼이 말하지 말라

때로는 눈이 오면 길도 막히고  
령 넘어갔다가도 묵어서야 오는곳  
때로는 무엇인가 그리움이  
골짜물소리처럼 가슴에 젖는곳

하늘도 막히고 세상도 먼 산중에서  
그 누가 눈여겨 아니보아도  
량심을 더럽히지 않을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사는 마을

공명과 허영, 사치와 안일을 모르고  
오직 나무를 베어보내는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보람을 삼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사는 마을

아 여기서 여기서  
우리의 별목공들이 일하노라  
우리의 운재공들이 싸우노라  
산처럼 성실하게 조국을 받들며!

## 조선의 명산-묘향산

백의선

우리 나라의 5대명산의 하나인 묘향산은 금강산의 신비로운 조각미와 지리산의 웅대한 자태, 구월산의 맑은 정기를 다 겸비한 절경의 산이다.

산모양이 하도 기묘하고 언제나 향기가 그윽하다하여 그 이름 묘향산!

수려한 산천의 그 아름다움과 보배로움을 한껏 자랑하며 인민의 명승지로 세상에 이름높은 묘향산!

탐승의 길에 오른 우리 일행은 시인, 작곡가, 촬영가, 영화문학작가, 연출가들로 무어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아름다운 산들과 맑은 물, 수려한 경치들이 모두 인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위하여 복무하게 된다면 우리 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은 낙원으로 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오늘 묘향산의 아름다운 산들과 맑은 물, 수려한 경치들이 인민들을 위한 휴양지로, 탐승지로 되었다. 하여 묘향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칠새 없다.

묘향산을 탐승하는 우리 일행의 시인들은 가장 격조높고 빛나는 시어를, 작곡가들은 가장 섬세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고를것이며 영화문학작가는 자기의 흥미있는 줄거리속에 촬영가는 자기의 렌즈속에 묘향산을 담을것이다.

### 1. 상원동

류달리 맑은 아침이다.

봉우리들을 휘감고있던 부드러운 비단안개도 일찍 걷히였다.

우리들앞에는 거대하고 기묘한 봉우리들이 어께걸고 하늘가까이 솟아있다. 깊은 십산속에서 그 무슨 신비로운 돌문을 열고 나오는듯 향산천의 맑은 물이 청신한 물소리로 골안을 흔들며 바빠 흐르고 있었다.

《야!》

저마다 환성이였다.

촬영가 정아바이는 벌써 사진기의 셔터를 누르며 돌아쳤다. 입을 벌린채 멍하니 얼어붙은 사람도 있었다.

첫걸음부터 이렇게 넋을 잃고 섰으니 그 언제 묘향산을 다 보랴. 하기에 옛 시인도 묘향산이 너무 아름다와 열걸음에 아홉번 쉬였다고 하지 않던가.

우리들은 먼저 박물관 관장의 안내를 받으며

상원암으로 가는 길입구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동상 좌우편에 만발한 꽃들도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끝없는 영광을 안고 고요히 설레이고있었다. 우리들은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정중히 인사를 드린후 거기서 곧바로 상원암으로 오르는 골짜기를 향하였다.

상원암 등산길은 시내를 끼고 그늘속에 놓여있어 서늘한것이 아주 좋았다.

우산을 쓴것처럼 노가지향나무가 들성들성 서있는 잔솔밭사이로 뻗은 오솔길을 지나자 울창한 수림과 어마어마한 바위가 앞을 막아섰다. 그 밑을 헤치고 반가운듯 달려나오는 시내물소리는 이름모를 갖가지 새들의 지저귐과 한데 어울려 그 무슨 대교향곡의 서곡을 울리는듯하였다.

미리 말해두건대 묘향산에서는 삼경을 보아야 하는데 삼경이란 나무와 돌, 물을 말한다.

동화에 나오는 돌문처럼 생긴 큰바위사이로 난 비좁은 길을 빠져나오자 우리들을 안내하던 관장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에는 이 산에 들어오려면 입산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고장에 태를 묻고 살던 사람들도 입산료가 없어서 제 고향산천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안아볼수 없는 형편이였습니다.》

입산료?! ...

어린시절 지나긴 여름방학을 송도원이나 삼지연 야영소에서 즐겁게 보낸적 있는 나로서는 실로 놀라운 말이 아닐수 없었다.

황금만능의 착취사회는 얼마나 악착스러운가... 이런 생각을 하니 오늘의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가슴 절절히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부드럽고 향긋한 바람이 숲속에서 불어왔다. 꽃들은 한창 제철을 맞아 서로 시샘하며 하느적이였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끄는 꽃은 두봉화였다. 아무리 잡관목이 우거진곳에서도 두봉화는 인차 남의 눈에 띄우는 숲속의 미인이였다. 그 곁에서는 못꽃들이 감히 얼굴을 들려고도 하지 못하는것 같았다.

우리가 여기저기 피어있는 두봉화를 보며 감탄하자 관장동무는 이너머 불영대가 있는데 거기엔 천연의 두봉화가 둔덕을 덮었다는것이다. 두봉화피는 5월 불영대에서 달맞이하는 그 경치야말로 아름다운 노래에도 다 담아내지 못할것이라고 하였다.

바위를 에돌아 우리는 한참 골짜기를 올라갔다.

시내가 점점 넓어지고 바위들도 웅대해지었다. 이윽고 바위와 바위쥬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시원한 바람을 풍기며 안겨왔다.

《금강폭포요!》

나는 저도모르게 소리쳤다.

앞을 바라보니 높은 산릉선을 마주한 천연바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상원암으로 오르시면서 하신 교시가 힘있는 글씨로 정중히 새겨져있었다. 항일의 혈전만리 험산준령을 넘고넘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 인민들이 마음껏 휴식 할수 있는 터전을 잡아주시려고 이 험한 길을 걸으셨구나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찡찡해왔다.

오래도록 머물러 깊은 생각에 잠겼던 우리들은 다시 힘있게 발걸음을 옮겼다. 크지 않은 줄다리를 건너가니 계단모양의 대하폭포가 걸음을 멈춰세웠다.

금강폭포보다 훨씬 물량도 많고 폭도 넓었다. 큰 솔처럼 생긴 소에 떨어진 물은 운기도는 넘적한 바위에 옥구슬을 휘뿌리며 사방으로 넘쳐났고 그것은 다시 눈가루처럼 날리다가 뽀얀 안개로 피어오르는것이였다. 소에는 버들잎같은 물고기들이 한가로이 재주를 부리며 놀고있었다. 이런 높은 산우에 물고기가 산다는것이 신기로왔다.

우리는 또 한참 걸었다.

어데선가 갑자기 신선한 바람이 땀젖은 가슴에 부드러이 스며들고 은은하면서도 둔중한 봄우뢰소리가 들려왔다.

고개 들어 바라보니 아찔한 벼랑이 막아섰다. 그 앞에는 큰 돌들이 하늘을 찌르고 일떠서있었다. 서쪽을 바라보면 거인이 푸른 갑옷을 입고 서있는듯한 바위가 머리를 저으기 숙이고있었는데 그것이 금시 떨어질것만 같아 아슬아슬하였다. 이것이 옛날사람이 호랑이발자국을 따라 넘었다는 인호대였다. 뒤에는 자욱히 물안개가 덮였다. 그 오른쪽에는 넓은 반석을 세차게 구르며 폭포수가 쏟아져 내렸고 왼쪽에는 기암절벽이 떡 버티고 서있었다.

일대 장관이였다.

우리모두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린듯하였다. 너무나 큰것, 장엄한것에 갑자기 부닥쳤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보잘것 없이 느껴지는 모양이였다.

해빛에 번쩍이며 산산이 부서져 진주빛의 비가 그냥 쏟아져내리는듯한 산주폭포, 안개속을 굽이치며 흰룡이 하늘로 날아오르는듯한 룡연폭포, 푸른 하늘에서 흰비단을 드리운듯 유유히 흐느적이는 천신폭포, 여기는 서로서로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다투는 거대한 바위와 장엄한 폭포의 세

계였다.

이렇게 세계의 긴 폭포가 한데 어울려 미의 조화를 이룬곳은 그 어데서도 찾아볼수 없다. 하기에 예로부터 《인호관폭》을 《묘향산의 8경》에서 가장 아름다운것이라 하였다.

우리들은 인호대의 정각우에서 잠시 쉬고 상원암에 이르렀다.

상원암은 룡연폭포와 산주폭포가 드리워져있는 암반우에 자리잡고있었다. 넓지 않은 뜰 한끝에는 금관처럼 생긴 붉은 빛 가지의 기이한 소나무가 사색에 잠긴듯 조용히 서있었고 그와 푸른 손을 마주 잡고 산듯이 몸단장을 한 아름다이 은행나무가 자기의 자태를 뽐내며 잎을 흔들고있었다. 뜰안 오른쪽에는 기묘하게 생긴 바위가 하늘을 떠받들고 서있는데 이것이 룡각석이다. 그우에는 푸르싱싱히 자란 두그루의 소나무가 호위병처럼 서있었다. 룡각석의 앞면에는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노래가 새겨져있었다.

여기서 또다시 10리가량 더 가면 상원동의 주봉인 법왕봉이 있다. 법왕봉의 험준한 산발은 기암괴석으로 가득차있다. 어떤것은 코끼리의 이발같이, 또 어떤것은 사슴의 뿔 모양으로, 어떤것은 날아가는 학처럼 생긴것도 있었다. 피상하고도 거룩하고 웅장하고도 기묘하여 마음껏 재주를 부린 그 비상한 형태를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실로 천태만상이였다.

그래서 법왕봉을 묘향산의 《만물상》이라고 부른다.

우리들은 장쾌한 폭포소리를 들으며 숲에 묻힌 등산로정을 굽어보았다. 그 어디인들 수령님의 사랑이 깃들지 않은곳이 있으랴. 어버이수령님께서 상원동의 험한 길을 세차레나 오르내리시면서 줄다리를 놓을 자리, 정각을 지을곳, 발흙을 팔 바위까지 세세히 정해주시고 로인들과 아이들까지도 조국의 아름다운 산수를 다 보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편리한 등산길을 닦도록 배려하여 주신 불멸의 자취가 력력히 안겨왔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받들려 이런 황홀한 꿈세계에 올랐다고 생각하니 절로 가슴이 뜨거웠다.

그 누군가가 선창을 떴었다.

우리에게 이 행복을 안겨주시려  
한평생을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  
아버이 그 사랑 그 품속에서  
오늘의 이 행복은 꽃폈습니다  
.....

마음은 한없이 숭엄해지였다.

이 아름다운 강산은 인민에게 안겨주시려 백두의 눈보라길과 불길만리를 헤쳐오신 어버이수령님.

인민의 강산을 더욱 빛내이시기 위하여 오늘도 눈비를 맞으시며 걸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들은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우렁찬 합창은 폭포소리를 누르며 멀리멀리 메아리쳐 갔다. 그 장엄한 메아리는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빛발아래 자기의 아름다움을 되찾고 날이 갈수록 더욱 빛나고있는 저 웅심 깊은 대자연이 감격에 못이겨 받아부르는것이라.

## 2. 자연교재원

시내물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줄곧 말문을 열어 놓고있는 촬영가 정아바이는 오늘아침 웬일인지 시무룩하여 말이 없었다. 아마 시내물이 깊은 호수를 만나 조용히 그 흐름을 멈추었는지...

알고보니 그의 사진기에 필름이 동나가고있었던것이다. 떠나올 때 필름을 넉넉히 가져오느라고 했는데 경치에 반해 사진을 너무 많이 찍었던것이다. 지금처럼 사진을 찍다나면 틀림없이 등산도중에 빈 필름통만이 남게 될것이였다. 우리를 인솔하는 한 일군이 필름을 여기서 못얻으면 평양에 지급전화를 걸어서라도 가져오게 할테니 근심 말고 정고싶은 풍경을 다 찍으라고 하였다. 그래서야 정아바이는 아이처럼 빙긋 웃고나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만폭동 입구에 빠스를 세워놓은 우리들은 칠성골(하비로골)로 향하였다.

얼마 안가서 우리는 옥바위 병풍을 둘러친 구룡포에 이르렀다. 아홉마리의 룡이 날아올랐다는 전설이 깃들어있는곳이다. 수정같이 맑은 물이 잔주름을 지으며 설레이고있었다. 물이 어찌나 맑은지 마음속까지 다 비칠것만 같다. 얼핏 보기에는 무릎이나 칠가 생각되는데 실상은 길이 넘는다. 팔뚝같은 송어들이 서둘지 않고 천천히 헤엄치고있었다. 어서 실컷 보고 가라는듯...

더 좋은것은 구룡포의 전망이다. 수십수백개의 희고 둥근 바위들이 서로 친절히 이마를 마주대고 혹은 버성기게 떨어져있는 모양이 어떤것은 버날가리갈기도 하고 또 어떤것들은 흰곰들이 시내에서 장난을 치다 그대로 굳어진것 같기도 하였다.

거기서 칠성골로 조금 들어서면 그전날 금광을 개발하려던 자리가 력사의 흔적처럼 그대로 남아있다.

묘향산에 금이 풍부히 매장되어있다는것을 알게 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이곳에 금광을 차려놓을 계획을 세웠다.

이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금을 캐면 경치가 손상된다고 하시면서 광산을 차리지 말도록 하시였다.

황금과도 바꿀수 없는 이 절경!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덕을 지녀 묘향산의 바위돌 하나하나가 황금보다 더 빛나는것이 아닌가. 여기서는 한그루의 나무, 하나의 돌도 무심히 볼수가 없다. 자연은 자기의 빛과숨결, 향기로서 어버이수령님의 하늘같이 높은 은덕을 이야기 하며 우리들을 끌어당기는것만 같았다.

여기 사람들은 칠성골을 《자연교재원》이라고 한다. 골이 깊은 이곳에는 하록지대, 중록지대, 고산지대 식물상이 명백하기때문이다.

묘향산이 원래 수종이 많은 산으로 손꼽히는데 여기 칠성골에 다 집중되어있다.

목본식물로부터 초본식물에 이르기까지 없는것이 없다.

더 흥미있는것은 동물상이다.

칠성골에 오르느라하면 새소리가 기이한데 청조, 피꼬리, 홍방울새, 바위종다리 등 수백여종의 새들이 마음을 합쳐 합창을 불러대는가 하면 저마끔 제 목소리로 독창을 부르기도 한다. 밀림속가수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들을 그래로 선물에 담을수 있다면 서로 개성이 특이한 노래들로 될것이다.

활엽수가 많은 골짜기 아래쪽에는 노루, 토끼, 다람쥐들이 의종게 살고있고 밀림이 무성하고 절벽이 기세찬 산우에서는 산양, 곰, 매돼지, 송나이가, 범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살고있다.

우리는 먼저 금강굴에 올랐다. 커다란 바위를 지붕삼아 세칸짜리 집을 묘하게도 지었다. 주위에는 가래나무, 전나무들이 엇갈려 자라고 앞뜰에 내려서면 다래, 머루 넝쿨이 서로 부둥켜안고 씨름을 하고있다.

집옆에는 위장병에特效가 있다는 《명안수》가 풍풍 샘솟아 나온다. 우리는 그 물을 한바가지씩 마시고 하비로를 향하였다.

우리들은 잠시 숲속에서 쉬었다. 관장동무가 말하였다.

《조선침략의 원흉 이등박문이 죽은후 조선총독으로 된 데라우찌란놈은 이 묘향산에서 해마다 수만립방의 통나무를 베어내라고 하였답니다.》

락탈에 이끌이 났다. 일제놈들이 그 무엇을 가렸으랴만 이 아름다운 산촌에까지 날선 도끼를 휘둘렀다는것을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36년간이나 일본침략자들의 발굽에 짓밟히고 락탈의 피물은 도끼에 맞아 강산은 황폐화되였었다.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해빛아래서만 자연도 소생의 숨결을 지니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다음해 이른봄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문화적인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구상을 안으시고 이

곳에 오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전쟁때 이곳 사람들이 나무에 껍쇠를 박고 줄다리를 맨것을 보시고 수많은 애국자들이 조국의 재부를 지켜 피를 흘렸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일목일초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이러한 사랑속에서 오늘 묘향산의 《자연교재원》은 더욱 푸르게 무성하지 않았는가.

칠성골에서 특이한 경치는 목란이다. 금강굴을 지나 한참 오르면 하비로에 조금 못비친곳에 몇길씩 자란 목란이 골짜기를 메우고있다. 골짜기에 온통 향수를 부어놓은듯 온몸에 향기가 젖어든다. 이렇게 많은 목란꽃이 한꺼번에 피어있는 경치는 여기서만 볼수 있을것이다.

우리 일행은 하비로를 거쳐 형제폭포에 이르렀다. 폭포는 물량이 많아 기세찬감을 주었다. 여기서 특이한것은 폭포가 자연의 병풍림과 둘러싸여 있는것이다. 그래서 장쾌하면서도 아늑하여 마음의 뒤뜰안같은 느낌을 준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쉬다가 오후의 만폭동로정을 서두르며 칠성골을 내렸다.

### 3. 산천이여 더욱 아름다우라

만개의 폭포가 만가지형태로 내린다고 하여 만폭동이라 부른다.

우리는 만폭동어구에 들어서자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천연의 미술적인 화폭앞에 모두들 놀랐다.

큰길에서 몇발자국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서쪽 폭포가 거품을 일으키는가 하면 몇걸음 더 안가서 무룡폭포가 파도친다. 떨어지던 폭포는 도중에 돌확에 부딪혔다가 반원형의 곡선을 그리며 유유히 씻겨내리는데 이것은 폭포의 교예적인 기교라고 할수 있다.

만폭동등산길은 거의나 바위와 절벽으로 난 길 이여서 안전쇠바줄을 잡고서야 올라간다. 그래서 등산은 더 재미가 있었다.

강렬한 물소리에 머리를 드니 사람의 손으로 파놓은듯한 좁은 골짜기와 벼랑틈을 굽이쳐 내리는 폭포가 있었다. 이것이 은선폭포이다. 은선폭포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뛰여오르는 기상의 사자봉이 있다.

은선폭포의 북쪽에는 아찔하게 솟은 거암이 하나의 산봉우리를 이루고있다. 거기에는 아름다리 나무보다 더 굵은 획으로 《주체》라는 글발을 새겼다.

만폭동의 장관의 하나가 여기서부터 펼쳐진다.

은선폭포에 이어 팔담이 층층이 놓여있고 인차 유선폭포가 잇달았으며 그우에 멋있는 줄다리가 건너갔는데 아슬아슬한 줄다리우에서 아래우를

관망하는 경치는 아주 독특한 흥미를 안겨준다. 폭포들은 이웃들을 서로 올려보고 내려보며 기발함을 다루고 재주를 자랑하고있었다. 바위를 층층이 포개여 쌓아놓은것, 곱게 다듬어놓은것. 계단을 만들다 그만둔것... 다양하기 그지없는 자연의 걸작품들이 수없이 우리와 마주서는것이였다.

은선폭포의 우에는 산악같이 웅장한 대장군바위가 근엄히 서있다. 가슴도 넓어지고 마음도 커지는것 같았다.

대장군바위에서부터 바위층계를 라선형으로 휘 휘 돌아 올라가면 선녀들이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비선폭포가 서늘한 물보라를 뿌리며 흘러내린다. 칠색무지개가 곱게 비낀다. 선녀들이 흰날개를 저으며 금방 오른것만 같다. 모든것이 신선하고 깨끗하였다.

이제부터 길은 더 험해진다.

구층폭포에 다달으자 눈부신 광채가 우리의 눈을 빼앗는다. 지금까지 보던중 가장 넓은 화폭의 폭포가 우뢰치는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아홉번 파도치는 그 모습이야말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의 극치였다. 웅장하고도 섬세하며 수려하고도 기이한것을 보려면 반드시 여기를 와야 한다. 모든것이 사람들을 황홀케 한다. 보이는것은 다 아름답고 장엄하였다. 앞을 보면 묘향산의 못봉우리들이 가까이 마주섰는데 어떤것은 나눈듯싶고 어떤것은 춤추는듯하며 어떤것은 외롭고 또 어떤것은 엮드려 잠자는것 같다. 그 모든것들은 우리를 향해 《보람차게 살라》, 《장하게 살라》라고 저마다 웨치는것 같았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받드는 길에서 저 바위처럼 억세게, 저 맑은 물처럼 깨끗한 혁명의 량심을 간직하고 살리라.

내 혁명을 위해 한몸 바쳐야 할 그런 순간이 온다면 천길만길 주저없이 떨어지는, 떨어지며 구슬구슬 더 빛나는 폭포의 절개를 지니니라...

제일강산-조국강산을 위하여 내 한몸 바친들 무슨 한이 있으며 여기에 굳어져 한덩이의 돌이 된들 무슨 후회가 있으랴.

아름다운 강산이 아름다운 인간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하나 이 아름다운 강산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품에서만 한껏 빛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해발 누리에 가득찼거니, 자연이여, 더욱 빛나라! 인간이여, 더욱 아름다우라!

자연은 자기의 자태와 빛깔, 향기와 음향으로서, 인간은 무궁한 정치적생명을 지닌 아름다운 삶으로서 영원히 이 땅을 받들고 빛내이라,

자연도 사람도 자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사랑할수 있는 우리 조국은 얼마나 좋은가.

## 향산천의 물노래 외1편

한 호

풀마다 봉마다 절경이어서  
그 모습 비껴내려 물소리도 좋은가  
향산천 파란 물에 발 잠그니  
시원히 젖어드는 물소리 물노래소리...

오라는듯 부르는듯  
그 무슨 이야기 속삭이느냐  
자재돌 흰돌 어루만지다  
큰 강 찾아 가노라, 내 가슴에  
기쁨 절로 남기고 가는 물노래

목란꽃 정향꽃 향기 담아  
네 노래 그리도 아름다운가  
시내가쳐너들 밝은 웃음에  
네 노래 그리도 흥에 겨운가

계곡마다 폭포수 걸어놓고서  
이 골 저 골 일만퐁치 비껴실고  
산구경 물구경에 그만 취한듯  
등산객들 즐거운 탄성소리를  
장단과 곡조로 맞춰 흐르는 물노래

네 노래 젖어서 고운 꽃 피고

네 노래 흥겨워 절경이라  
산도 물도 나무도 기묘하지만  
네 노래 없이야 무슨 멋이라  
네 노래 없이야 무슨 묘향산이라

상원골, 하비로골 풀마다 물도 좋아  
걸음걸음 못내 기쁘시여 바라보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등산길에 새겨진 당의 발걸음  
향산천 맑은물에 어리고어려  
큰 강 찾아가노라, 흘러흘러도  
노래만은 이 가슴에 주고 가는 물소리

아, 가는 길에 천길벼랑 막아선대도  
이 마음 한줄기 담아실어  
굴러도 물노래!  
부딪쳐도 물노래!

낮에 밤에 끝없는 향산천 물소리는  
은혜로운 해와 별 따르는 길에  
부서지고 떨어지고 덩군다 해도  
언제나 너처럼 맑고맑을  
내 가슴속 깨끗한 노래로 흘러가네

## 탄부의 사랑은...

들꽃피는 초소길 떠나올 때  
전우들과 떠들썩 웃으며 그려본 처녀는  
맵시있고 인물 고운 처녀였다지  
검탄공처녀에게 그만 정이 든  
우리 탄광 체대군인-채탄공동무야

그 마음 어디에 정들었는지  
말 좀 하려마  
늘 푸른 작업복 단정히 입고  
석탄을 다루는 그 처녀에게  
언제부터 그 마음 끌리었는지...

찔레꽃 향기로운 시내가 언덕으로  
언제한번 나란히 걸은 때는 없어도  
탄가루 날리는 운탄장에서  
산처럼 가려지는 석탄더미에  
한줌의 버력이 껴도 안타까와하는  
그 처녀의 그 마음이 아름다와

생글생글 잘 웃는 다감한 처녀-  
시집가면 어디로 가겠는가고  
익살 많은 탄부들이 물으면  
못간다고, 탄전에 정들어 못간다고  
그 한마디에 마음은 더 이끌려



속깊은 그 마음에 정들었다누나  
기름진 검은금 차판가득 보낼 때면  
그보다 더 기쁜 때는 없다고  
돌 하나도 말끔히 고르는 처녀!  
비내리는 온밤 탄장을 지켜선  
기특한 그 마음에 정들었다누나

탄전에 정들어 일손에 정들어  
채탄공 그 총각이 사랑하는 처녀는  
석탄을 다루는 극성스러운 처녀!  
하루일 끝내고 돌아오는 저녁이면  
깡박을 나서는 채탄공을 바라보며  
머리 다소곳이 웃음을 보내는 처녀...

축복을 보내자  
보화로 가목찬 검은금에 꿈 없으며  
별들이 돌아나는 하늘밑  
운탄장을 넘어  
콘베아 흘러가는 불빛은 언덕으로  
다정히 걷고걸는 탄전의 주인들에게-

축복을 보내자  
온 나라 바라는 검은금 섬기며  
그 마음 하나로 맺어졌나니  
채탄공동무야! 검탄공처녀야!  
날마다 하늘높이 가려가는 석탄산에  
기쁨도 사랑도 하나로 엮었구나

## 동 지

김흥권

사랑으로 정다웁고  
믿음으로 뜨겁더라  
함께 있어도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하나로 이어지는 그 이름

시련 겪던곳에서  
땀에 젖던곳에서  
그리고 가보지 못한 그런곳에서까지  
심장에 안겨오는  
동지

그 이름 무엇으로 얻어졌기에  
마음속에 그려보면  
가슴뜨거워  
순간의 간격도  
세월의 공간도 없이  
심장의 말 주고받는것인가

진정 무엇으로 얻어졌기에  
서로 부르면  
마음은 더없이 깨끗해지고  
우주를 채우듯

믿음으로 가득차는것인가

동지-  
그 이름이었다  
둘도 없는 아버지, 낳아기른 어머니도  
나에게 안겨주지 못한 힘  
나에게 안겨준것은

그렇다. 그 이름이었다  
원썬들이 뒤따르는 적후의 날엔  
보통 사람들앞에 내놓고 할수 없던 말  
내 가슴에 안겨준것은

그러기에 집을 버리고  
그 이름으로 혁명앞에 나섰고  
숨지어도  
그 팔을 베고 눈감고싶은  
그 이름으로  
조국앞에 나서지 않았더냐

그 이름 지니면  
수천리 먼 조국도 지척에 있었고  
아득한 미래의 삶도 눈앞에 놓여

모든것 거룩하게 바치고싶거니

동지-

그 이름 지녀

품속의 어린것과 기약없는 작별을 하고

머나먼 눈보라 밤길에 나서

너인은 혁명대오를 따랐고

그 이름 더불어 투사는

조직을 지켜 허를 끊었더라

그러하더라

그 대오의 그 이름을 부르며

쇠물의 뜨거움도

파도의 울부짖음도

한밤의 지새움도 잊게 하는

뜨거운 그 이름

아 동지

동지란

투쟁속에서만 얻어지는

그러기에

억세고도 성스러운 사랑의 세계!

사랑도 하나

의리도 하나

믿음도 량심도 하나

두가지 심장을 가지고서는

그 이름속에 서지 못하리

동지-그 이름은

가사

정녕 하나의 심장속에서만 사는 녀

세상 만가지 다 씻을수 있다 하라

더럽혀진 녀 그것만은 씻을수 없어

한번 더럽히면

한생을 더럽히는것

죽어서도 씻지 못하는것이니

그 이름을 저버리고는

조국도 조국이라 부르지 못하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살뜰한 안해도...

동지를 얻는것은

하나의 세계를 얻는것!

그때문이더라

천만대오 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속에서

혁명가의 삶을 빛내이며

수령님 우러러 동지라 부르는

영광의 길 땀땀이 걸을수 있을 때

걸어온 길

한생을 가장 빛나게 총화할수 있음은

천만마디 말보다 높이 올리는

아, 그 이름 동지

아버이수령님 받들어

우리 당중앙을 받들어

심장이 하나로 합쳐진

그 이름속에 나는 영원히 살리

## 만폭동의 물꽃노래

윤석범

물이 많은 묘향산 폭포 많아 절승인가

옥구슬을 내뿜는듯 은실타래 물꽃인가

숲속깊이 앉아보고 벼랑끝에 올라봐도

만폭동의 폭포경치 천하의 절경일세

흐르다가 부서지면 물보라의 꽃이 되고

해동실 비껴오면 무지개의 꽃이 되네

천만가지 물의 조화 이 골안에 다 있는가

만폭동의 폭포경치 못보면 한이로다

아홉굽이 꺾어지는 구충목표 은하수라

층층바위 내려쏘는 비선폭포 눈가루라

은혜로운 해빛아래 물꽃노래 높아가니

만폭동의 폭포경치 볼수록 절경일세

## 그가 바라는것

장흥섭

## 1

진주는 선선한 굴길을 걷고있었다. 땀이있는 작업복은 그의 몸매를 더 날씬하게 해주었다. 검량 소대장인 진주는 소대원들이 있는 저광사를 순회 하고있었다.

은은한 압축기소리가 가까이 들려왔다. 진주는 가벼운 흥분을 느끼며 넓은 승강장으로 들어섰다.

대문짝만한 경쟁도표판이 승강장 굴벽에 세워져 있었다. 진주는 이끌리듯 그리로 다가갔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여기서는 발걸음이 멎곤 하는 그였다.

진주의 눈길은 제일 높이 올라선 붉은줄끝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다. 《엄대석》이라는 이름에서 진주의 눈길은 멎었다.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피어났다. 엄대석은 그의 남편이며 손꼽히는 채광소대장이었다. 지금까지 그는 갯에서 첫자리를 다른 소대에 양보하지 않고있었다. 진주는 남편이 자랑스러웠다.

얼마후 진주가 탄 승강기는 가볍게 땅 밑에 내려 앉았다.

승강기에서 내린 그는 3저광사부터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백년통맥이 새로 발견되고 채굴장이 더 늘어난후 일거리가 많아진 3저광사였다. 거기에 검량공 옥희가 있다. 이전 검량공이 남편을 따라 가게 되자 종합저광사를 담당했던 옥희를 그리로 보냈던것이다.

옥희는 비록 검량공 년한은 길지 않아도 약빠르고 몸이 가벼워 칭찬을 받고있었다. 그러나 땅벌처럼 내쏘기 잘해서 가끔 사람들과 부딪치곤하는데 그것이 진주를 불안케 했다.

싱그러운 송진내가 코를 쿡 찔렀다. 진주는 소나무동발을 세운 구간을 걷고있었다. 짹짹 메질소리가 들려왔다.

진주는 검량공실을 들여다보았다. 군대의 보조소처럼 우뚝 서있는 그안에는 의자만 멍그라니 놓여있었다.

(어디 갔을까?)

진주는 두리번거리다 메질소리가 나는 저광사로 갔다. 두사람은 대활강(저광사옆에 있는 공지)에서 갯난아이 배개통만한 망치로 거석(큰덩이광석)을 깨고있었다. 진주는 눈이 둥그래졌다. 옥희가 바로 거기 있었던것이다. 뜻밖이었다.

때마침 허리를 펴던 옥희가 진주를 보자 방긋 웃었다. 코등에 구슬같은 땀방울이 맺혀있었다.

《소대장언니!》

대활강도 몸을 일으켰다. 이마가 나오고 랑눈귀와 미간에 주름이 깊은 다부진 아바이였다.

《수고하시누만요. 아바이!》

진주의 상냥한 인사말에 대활강은 빙그레 웃으며 발끝으로 광석덩이를 툭툭 차서 저광사도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대견한 눈매로 옥희를 바라보았다.

《옥희, 이젠 좀 쉬어서 할가?》

하여 세사람은 동발나무에 걸터앉았다. 옥희는 가운데 끼였다. 마치 아버지와 언니에게 떠받들린 막내동아처럼.

진주는 무르익은 앵두알같은 옥희의 한쪽볼을 애무의 눈길로 어루만지며 생각했다.

(공연히 걱정했구나. 제할일을 다하면서 대활강 아바이의 일손까지 도와주고있는걸 모르구.)

검량공의 임무는 막장에서 나오는 광석의 랑을 확인하는것이였다.

《소대장이 복덩이를 보내주었구만.》

대활강이 칭찬하는 말에 사르르 눈을 내려간 옥희는 진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소곤거렸다.

《아바이 하시는 일이 썩 힘들구만요.》

진주는 긍정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 못할 그가 아니였다.

옥희의 손을 쥐고있던 진주는 흠칫했다. 물질이 생긴것 같았다. 급기야 손바닥을 보려 하자 옥희는 손을 두무릎사이에 끼우며 판전을 부렸다.

《참 소대장언니, 이 구역에서 어느 소대가 제일 앞섰는지 아시나요?》

《그건 알아 무엇하니. 우리야 검량이나 잘하면 되지.》

진주는 짐짓 무관심한체 했다.

《야. 아저씨네 소대는 보통이 아니야. 다른 소대에선 아직 두탕밖에 못했는데 거기선 벌써 세번이나 나왔다 들어갔어요.》

대활강이 맞장단을 쳤다.

《아무렴. 엄대석이냐 누구라구.》

남모른 기쁨을 안고 진주는 다음 저광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작업종화때 진주는 옥희를 높이 평가해주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옥희가 시달지 않게 여기는것이였다. 지쳐서일가?

검량공들을 다 보내고나서 진주는 옥희를 조용히 불렀다.

《힘들지?》

옥희는 흘러내린 머리오리를 쓰다듬어올릴뿐

대답이 없다.

《팔이 빠근할거야.》

옥희는 여전히 입을 꼭 붙이고있다. 그러면서 그냥 서있을적엔 하고싶은 말이 있는 모양이었다. 다심한 진주는 듣고싶었다.

《누구하고 닮았나?》

그때야 옥희는 살눈섭을 들었다. 까만 눈동자가 진주의 눈과 마주치자 《아무것도 아니예요.》하고 바람처럼 문밖으로 사라졌다.

(무엇때문일가?)

진주는 이러한 의문을 풀지 못한채 탁아소에 들려 아이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뒤미처 임대석이기도 들어섰다.

저녁을 먹고난뒤였다. 임대석은 책상에 돌아앉아 글을 쓰고 진주는 뜨개질감을 꺼내놓았다. 벽시계소리가 방안의 공기를 조용히 흔들었다. 장갑 목다리를 몇돌기 떠나가던 진주는 문득 생각난듯 남편을 바라보았다. 마침 임대석이기도 이쪽으로 돌아앉았다.

《여보. 검량공의 임무가 뭐요?》

《갑자기 그건 왜 묻나요?》

뻔히 알면서도 떠보는 소리같아 진주는 생긋이 웃었다.

《대답이나 하지, 웃기는...》

《말하지 않으면 나도...》하고 진주는 살레살레 머리를 저었다. 남편과 둘이 있을 때는 룡을 곧잘 거는 진주였다. 여느때같은 히죽히죽 웃으며 룡을 받아줄 임대석이 웬일인지 지금은 무뚝뚝한 기색이었다.

《도대체 그 브레키는 뭐요?》

《브레키라니요?》

진주도 정색하여 남편을 뻔히 건너다보았다.

《아니 제가 보내놓고도 묻는건 또 뭐야?》

눈을 슴벅이던 진주는 짐작이 간다는듯 새죽이 웃어보였다.

《브레키가 뭐예요. 옥희라고 하지.》

《래일부터는 다른 사람을 보내오.》

《그건 왜요?》

진주는 더럭 의심이 들었다. 임대석은 마뜩지 않게 내뱉었다.

《글쎄 바꾸라면 바꾸오.》

《왜 화부터 내세요. 내가 아무리 소대장이라도 사람을 함부로 장기쪽 옮기듯하면 되겠어요. 리유도 없이.》

임대석은 내키지 않는 어조로 말했다.

《거석이 많다고 검량을 안해주고 전차운전공을 두번씩이나 공결음시키는데가 어디 있어. 도대체 그 처녀는 뭐야?!》

알고보니 두사람의 충돌은 거석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이런 때 진주는 어떤 립장을 취해야 하는가?

물론 진주자신도 거석을 방입해서는 안된다는걸 모르는바 아니다. 하나 거석을 처리하는 대활공이 있는이상 검량공이 간참하지 않아도 될것

같았다. 그런데 보나마나 바른말 잘하는 옥희가 거석에 대하여 시비를 거니까 남편이 울퉁한게 틀림없었다.

진주는 입을 다문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윽하여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런데 그 거석을 안나오게는 못하나요?》

《이번에 새로 타고왔은 막장이 그전 막장같은줄 아오? 하여튼 암질이 제일 골다는것만 알고있으면 돼 ...》

막장실정을 모르는 안해와는 말할 상대가 못된다는듯 임대석은 책상으로 돌아앉으며 호기있게 한마디 던졌다.

《썰잡는게 매라고 어쨌든 광석을 많이 캐야 혁신자지!》

진주는 놓았던 뜨개질감을 다시 잡았다. 옥희에게 줄 장갑이었다. 그런데 옥희의 침울한 모습이 눈에 밝혀 뜨개바늘이 허튼데를 꿰었다.

진주는 뜨개질을 멈추고 천정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 2

메질소리가 멎었다.

진주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의 가름한 얼굴은 땀으로 뒤덮여있었다. 어깨가 빠근하고 손바닥도 얼얼했다. 처음 해본 메질이라 힘이 들었다. 대활공과 옥희가 메질하는걸 곁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것이다.

《소대장언니!》

옥희가 장갑을 벗더니 손수건을 내미는것이였다. 진주는 장갑을 보니 그것을 받아들고 좋아하던 옥희의 모습이 생각났다.

《어서 땀을 씻으라요.》

진주는 옥희가 준 손수건으로 이마를 푹푹 누르며 혼자 생각했다.

(옥희를 대활장이 없는 다른 처광사로 보내는게 어떨가?)

진주는 옥희에 대한 남편의 충고도 있었거니와 애어린 처녀가 대활공을 도와 메질을 하는게 속은 아릿하게 했다. 더우기 옥희에 대한 남편의 인상을 더 흐리게 하고싶지 않았다. 암질상태로 하여 남편의 소대는 다른 소대보다 거석을 더 많이 낼개고 그러면 땅벌같은 옥희와 울퉁벨이 있는 남편은 또 맞서게 될것이다.

(우리 명국이 아버지 그 울퉁벨이 탈이야.)

진주는 남편이 그 점만 없었으면 좋을듯도싶었다.

여하튼 옥희를 돌리는건 좀더 생각해봐야 했다. 갑자기 그런 변동이 생기면 약빠른 옥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도 문제였다...

《어때요?》

옥희가 묻는 말이였다.

《정말 힘들구나.》

대활작업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걸 짐작 못한바 아니였지만 이렇게 힘든줄은 몰랐다. 체험은 그로 하여금 이런 힘든 로동은 비록 일시적인것이

라 해도 하루빨리 가서내야 한다는 절박감을 통절히 느끼게 했다. 그런데는 거석이 문제로 되었다.

(거석은 왜 나오는것일가?)

지금에 이르러 진주는 거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거석이 나오는곳은 채굴장이었다.

진주는 쉬는참에 막장으로 가서 남편에게 자기 생각을 비쳐보았다.

《내가 우정 내는줄 아오?》

엄대석은 성을 냈다.

《아이참 묻지도 못하겠네요.》

《암질이 굳다고 벌써 몇번이나 말했소? 좀 보라구...》

엄대석은 구멍을 뚫다 만 암벽쪽으로 안해를 이끌어갔다. 그는 곰보대로 돌가루물이 질벽하게 흘러내린 암벽을 두드렸다.

《똑똑히 보오.》

얼굴이 빨개진 진주는 아무 소리도 못했다. 암질에 대해서는 아는것이 없는 그였다.

《이젠 그런줄 알고 대활공아바이한테 장갑이나 한켄레 떠드리오. 수고하는데...》

《알겠어요.》

진주는 남편의 의견을 순순히 받아들일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거석을 깨주면서 장갑까지 떠다주면 대활공에게 더 큰 도움이 될것 같았다. 진주는 밤새워 장갑을 떴다.

《이젠 왜 떠왔나. 내 손은 일없어. 이렇게 단단한데.》하고 장갑을 받아든 대활공은 장갑이 배긴 손바닥을 내보이며 덧붙였다. 《고맙게 끼긴 하겠네만 이제 그만두라구. 이놈의 망치자루한테는 장갑이 견뎌내지 못한다네.》

사실 장갑은 사흘도 되기전에 숨물치로 돼버렸다. 하지만 진주는 밤마다 장갑을 떴다. 열켄레 아니라 백켄레라도 뜨고싶었다.

며칠후, 저광사 순회를 끝낸 진주는 3저광사에 또 들렀다. 이날도 옥희는 대활공옆에서 빠질빠질 땀을 흘리며 메질을 하고있었다. 볼수록 사람이 가는 미더운 옥희였다. 찬찬히 보니 그사이 옥희의 얼굴은 눈에 알리게 수척해졌다.

(그러니 이 일을 하는 대활공아바이는 얼마나 힘이 들랴.)

이런 생각이 들자 진주는 장갑이나 떠주는것으로는 결코 그의 짐을 덜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도와야 하는가?...

《아바이, 대활작업을 기계화하자고 제기해보는게 어떨가요?》

《기계화?》

대활공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이제 무슨 큰 일이라고 여기다 기계를 놓자겠나. 일없어. 거석은 넘려 말라는데. 내가 있지 않나.》

대활공은 보라는듯이 참나무등걸같은 자기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해보였다.

결에 있던 옥희가 눈을 핏기죽했다.

《아바인 락후한 소리만 하셔.》

《락후한 소리라...》하고 대활공은 껄껄 웃었다. 《대석이 그 사람보고 광석이나 많이 캐라구 해라. 어디 내 망치와 경쟁해보자구말이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도 긍지에 찬 말도 진주를 감동시키지 못했다. 이 갯안 어디서나 현대적인 기계들이 활개치며 돌아가는데 아직도 여기서는 메질소리가 울린다는 사실이 수치로 여겨지는 그였다. 마치 그 잘못이 자기에게 있는것처럼...

이때 몸집이 우람한 지배인이 대활장에 나타났다. 그런데 검량공들의 인사를 받는 그의 표정은 밝지 못했다.

《동무들은 아바이를 도와드리는데 이 지배인은 파쇄기 한대도 만들지 못해 부끄럽구만.》

지배인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옥희가 서슴없이 입을 열었다.

《지배인동지. 다른 광산의 저광사엔 파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 당돌한 옥희였다.

《후충광채로 형성된 광산들은 대발파를 하기때문에 2차파쇄계통이 갖추어져있소. 그러나 우리 광산처럼 세맥광층으로 되어있는곳에서는 파쇄기를 높을 조건이 못되오...》

지배인은 빙긋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창의고안소대동무들이 우리 광산 실정에 맞는 소형파쇄기를 만들었소. 시험해봤는데 대활장이 배좁고 진동이 심해서 바닥이 못견딜것 같아 뜯어고치고있소.》

진주는 속이 후련해졌다. 그가 지배인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그런 내용이였다.

지배인이 선뜻 망치를 집어들었다. 메질을 해보려는것이였다. 진주와 옥희가 만류하려 했다.

《허. 이러지 마오.》

진주도 망치를 쥐었다. 무겁던 망치가 휘휘 가볍게 올라갔다. 대활공도 옥희도 신바람이 나서 메질을 했다.

우렁우렁 굴안을 흔드는 진동음이 들리더니 빨간 불빛이 어둠을 동그랗게 녹여냈다. 전차가 달려왔다. 경쟁도표에 늘 엄대석소대의 붉은줄을 바투 따르는 2소대의 광석이 나오는것이였다.

광차를 돌아본 지배인은 목침만한 광석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광석규격이 이 정도로 보장되면 구태여 파쇄기를 놓을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지배인은 동의를 구하듯 대활공을 마주보았다.

《글쎄올시다. 막장들의 암질이 똑같다면 별문제겠지만...》

대활공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진주도 대활공과 같은 생각을 하고있었다. 가령 자기 남편네 막장같은데는 암질이 형편없이 굳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진주의 이런 생각은 금방 뒤집히고말았

다.

《아닙니다. 이 구역은 서쪽맥을 내놓고는 암질이 비슷합니다. 별차이가 없습니다...》

지배인의 이 말에 진주는 정신이 버쩍 들었다.  
(비슷하다니? 그럼 명국이 아버지가 한 말은 무슨 소릴가?)

진주는 지배인의 말에 바짝 귀를 강구었다.

《내가 요구성을 높이지 못하다나니 새 작업방법이 굵뜨게 도입되어 아직도 거석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는 순식간에 머리가 땡해졌다.

(새 작업방법?)

순간 천연스럽던 남편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며 진주는 딛고있는 땅 밑이 푹 내려앉는 것처럼 느껴졌다.

### 3

광산구내의 뺨스정류소 옆에 두다리를 깊숙이 박고 서있는 경쟁도표판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퇴근하던 로동자들이 경쟁도표를 들여다보며 떠들고있었다.

《야. 엄대석이네 날개가 달린 모양이구나.》

《2소대도 그런걸.》

《암만 그래도 황새걸음과 메새걸음이야.》

와- 하고 웃음통이 터져나왔다.

진주는 턱을 들고 앞사람의 어깨너머로 제일 높이 올라선 남편의 붉은줄을 더듬고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칭찬도 나래가 돌친듯한 그 붉은 줄도 그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 그가 이렇게 개운치 못한 마음으로 여기 서있어보기는 처음이었다.

경쟁도표는 진주의 류다른 관심속에 있었다. 그것은 이 직판물이 진주의 가슴속에 엄대석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싹틔워준것때문인지도 모른다.

2년전, 그들이 아직 한지붕아래 들기전에 진주는 검량공으로, 엄대석은 착암공으로 일했었다. 직종과 일터, 교대가 같지 않던 두 청년 남녀는 만날 기회가 적었다. 그러나 경쟁도표와 속보에 자주 오르는 엄대석의 이름과 영예게시판에 나붙은 그의 림름한 모습을 날을 따라 진주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갔다.

그런 어느날, 문화회관에서 사회주의경쟁총화 모임이 있었다. 진주는 혁신자들에게 줄 꽃다발을 맡게 되었다. 떠나갈듯한 박수소리를 뚫고 달려나간 그는 꽃다발을 덤썩 안겨주었다. 아귀센 손이 진주의 작을 손을 꼭 쥐어흔들었다. 그 순간 얼굴이 확 붉어진 진주는 눈길을 떨구어버렸다. 엄대석의 눈과 마주칠줄 어찌 알았으랴... 그 다음부터 진주는 숯불마냥 이글거리던 그의 눈길이 무시로 떠오르는걸 어찌할수 없었다. 그때마다 진주는 혼자 낮을 붉히곤했다.

그런데 하루는 엄대석이 진주네 집에 불쑥 나타났다. 뜻밖의 손님을 놓고 진주도 그의 부모들도 어리둥절해졌다.

부모들에게 꾸벅꾸벅 절을 하고난 엄대석은 자기를 소개했다.

《진주동무는 잘 알고있지만 아버님과 어머니는 처음 뵙습니다.》

불의의 정황에 맞닥들린 아버지는 웬일인가 했다.

《그래서?》

《.....》

말문이 막힌 엄대석의 얼굴은 난로통처럼 벌겋게 달아올랐다. 안절부절을 못하던 진주는 살며시 옷방으로 올라갔다. 그제야 짐작이 간다는듯 아버지는 껄껄 웃었다.

《자네 배짱이 보통 아니구만.》

엄대석은 두손을 공손히 무릎위에 올려놓았다. 머리를 끄덕이던 아버지는 안해를 슬쩍 결눈질해 보며

《로친네 반장네 집에 텔레비나 보러 가자구.》 하더니 먼저 자리를 뜨는것이였다.

해대보뒤에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있던 진주의 두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이윽고 엄대석의 걸걸한 목소리가 문턱을 넘어왔다.

《이거 절간에 온것 같아 견디겠나.》

진주는 다소곳하고 아래간으로 내려와 한컨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다. 울렁이는 마음을 조용히 달래며 ...

《동문 왜 아무 말도 없소?》

엄대석이 침묵을 깨뜨렸다.

《아이 제가 무슨 말을...》

진주의 말소리는 목안으로 기여들었다.

《앞으로 생활하는데 부락하고싶은 말도 없을까?》

진주는 조용해 눈을 들었다.

《전... 동무가 언제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혁신자가 되여주기를...》

《아마 동무의 기대는 어긋나지 않을거요.》

엄대석은 억척스러운 광부였다. 그가 가는 막장에서는 어김없이 많은 광석이 쏟아져나왔다. 진주는 기뻐다. 더없이 행복했다.

그러나 것처럼 보람찼던 나날을 지금 쓸쓸하게 돌이켜보게 됨은 무엇때문일까?

땡땡- 뺨스의 경적소리에 진주는 현실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뺨스로 밀려가고있었다. 어느새 왔는지 그속에 끼여있던 엄대석이 안해를 발견하고 재촉했다.

《여보! 뺨스 안타겠소?》

진주는 못박힌듯 서있을뿐 응답이 없다. 엄대석은 히죽이 웃으며 진주곁으로 다가왔다.

《오늘은 걸어볼가?》

엄대석은 기분이 좋아서 안해를 구슬렸다. 진주는 남편을 따라 스택스적 걸었다.

하늘은 석양별에 붉게 물들고 길뚝아래 정가로운 시내물은 무엇인가 주절거리며 흘러간다. 서서늘한 바람이 그윽한 꽃향기를 실어왔다. 아름

다운 저녁이었다.

엄대석은 머리를 스치는 아카시아꽃 한송이를 꺾어들었다. 입이 빙글썩해졌다. 꽃향기에 취해서만 아닌듯싶었다. 날을 따라 높아가는 생산성과가 그토록 만족케 하리라.

하다면 웅당 같이 기뻐해야 할 진주가 아닌가. 그러나 무거운 자책감이 그를 괴롭히고있었다. 문득 등이 굽은 대활공아바이와 땀배인 옥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거석과의 힘겨운 싸움으로 남편의 성과를 뒤받침해주는 그들이었다. 그런줄도 모르고 혼자 기뻐하며 남편의 붉은줄이 더 빨리, 더 높이 치달아오를것만 바라던 자기, 그러한 자기가 어찌 남편을 진실로 돕고 떠밀어주는 진정한 안해로 될수 있었으랴.

참다운 기쁨은 저 하나의 만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바칠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속에 있는것이다. 그래서 대활공아바이는 그 힘든 일을 부담으로 생각지 않는지도 모른다.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고보면 지배인이 말한 새 작업방법을 받아들이는것은 남편의 성과를 올리는 동시에 갯안에 남아있는 고된 로동의 마지막 흔적을 가셔내기 위해 한시도 미룰수 없는 문제였다.

진주는 크나큰 기대가 담긴 시선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여보...당신네 막장에서는 새 작업방법을 도입하지 않나요?》

《새 작업방법?》

《그 방법대로 하면 거석이 나오지 않는대요.》

엄대석은 시답지 않게 대꾸했다.

《우리 막장엔 잘 맞지 않아.》

《그래도 지배인동지는 그 구역 암길은 다 비슷하다고 그러던데요.》

《우리 막장 암질을 내가 모를가?》

희뻘하게 한마디 던진 엄대석은 더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았다. 진주는 섭섭한 생각이 들었지만 물려서지 않았다.

《다른 소대들에서는 다 새 작업방법으로 일한 다나봐요... 그러지 말고 당신도 한번 적용해보시라요.》

진주는 애원하듯 엄대석이결로 바투 다가섰다. 그러나 또 한송이의 아카시아꽃을 꺾어든 엄대석은 탄소리를 했다.

《꽃은 별치 않은데 냄새는 기가 막히구만.》

진주를 그만 온몸이 나른해졌다.

어느덧 노을이 스러진 하늘에서는 어둠이 천천히 나라를 퍼기 시작했다.

## 4

저광사에는 광석이 가득 차있었다. 구들장같은 거석들이 쇠그물을 막아버려 밑으로 빠지지 못 한채 밀려있는 광석이였다.

진주가 대활공을 도와 한쪽귀통이에 숨구멍이나 겨우 열어놓았을뿐이었다. 그리고 복데기가

술술 흘러내리고있었다.

대활공은 망치자루 맞추려 창고에 가고 대활장에는 진주 혼자 있었다.

진주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대활장형편이 이런줄 모르는 엄대석은 광차만 자꾸 들어밀었다. 그의 막장에서는 광석이 많이도 나왔다. 승벽이 강한 엄대석은 이번에도 상반년계획을 남먼저 끝내려고 불같이 내밀었다. 그것만이 광부의 본분을 다하는것이며 혁신자의 영예를 지키는것이라고 생각하는 엄대석이였다.

옥희와 충돌이 있은후 엄대석은 한번도 대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새 작업방법을 도입하라는 진주의 권고가 더욱 잦아지자 엄대석은 암질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고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뒤로 미루었다.

진주는 광석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암갈색바탕에 검은 반점이 다문다문한 화강암이였다. 붓상에도 무른돌같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명국이 아버지는 기술이 팔리는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무엇때문에 미루기만 하고 선뜻 받아들이지 못할것인가.)

그러자 진주는 남편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들어댄것 같아 후회가 들었다. 설사 기술이 부족하다 해도 그런 내색을 할 남편이 아니였다.

자기나름으로 판단해버린 진주는 퇴근하면 기술과에 찾아가서 기사들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

하나 지금은 발동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했다.

진주는 망치를 들었다. 망치가 몇급질 더 무거워진것 같았다.

《쨍쨍 ...》

몇번 크게 울리던 메질소리는 차츰 약해지면서 도간도간 떠졌다. 진주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뿜쳤다.

《아주머니!》

문득 부르는 소리에 진주는 뒤를 돌아보았다.

2소대의 전차운전공이 광차를 끌고온것이다.

《또 나왔습시다.》

《그래요?》

진주는 근심이 앞섰다

《쏟을가요?》

전차운전공은 서둘렀다. 전자회귀속도를 높이라는 소대장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였다.

진주는 대답대신 간데라불로 광차를 비쳐보았다. 이번에도 거석이였다.

《쏟지 말라요.》

광석을 더 받으면 저광사를 열기가 무척 어려울것 같았다.

눈이 커졌던 전차운전공은 흐물쩍 웃었다.

《아주머니, 저기 빈자리가 있지 않나요.》

《그 구멍까지 막으면 어떡해요. 안되겠어요.》

전차운전공은 무안해하였다.

더 말하지 말라는듯 그대로 돌아서버린 진주는

망치를 잡았다. 광차가 나와 기다리는걸 보니 마음이 조금해났다. 뒤에서 뭐라고 말을 시키려들었으나 진주의 귀에는 메질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아주머니, 이거 왜 이러시나요?》

잠잠해진듯싶던 전차운전공의 끈덕진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젠 더 양보 못하겠어요.》

진주는 단호하게 나왔다.

《양보라니? ...왜 이럽니까?》

전차운전공은 약이 오른듯 말소리가 거칠어졌다.

《동문 량심이 있어요?》

진주는 호되게 한마디 내쏘았다.

그러자 2소대전차운전공은 도전적으로 나왔다.

《아주머니, 그럼 엄대석이네 량심이 있구 우린 량심이 없다는거요? 거석도 량심인가요?》

전차운전공의 말은 창끝처럼 가슴을 찔렀다. 진주는 아무 말도 못했다. 조금전까지만 해도 남편네 소대 광차는 빼것이 거석을 부리지 않았는가. 진주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쫓으시라요. 미안하게 뻘어요.》

진주는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그만 고개를 떨구고말았다. 그는 2소대 전차운전공이 성이 나서 씨근거리며 광석을 부리고 가버릴 때까지 그 자리에 굳어진듯 꼼짝 안하고 서있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목소리가 진주의 귀청을 때렸다.

《무엇때문에 그런 망신을 당하는거야?》

엄대석이었다. 진주는 눈앞이 아찔했다. 엄대석의 주격턱이 부르르 떨리고있었다. 그렇다. 그는 흥분되었다. 광차때문에 막장에서 나오다 안해와 2소대 전차운전공이 맞서는 광경을 톡톡히 보았던것이다. 그 전차운전공의 말은 엄대석에게 모욕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런 참을수 없는 모욕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안해의 태도가 그의 화를 더 돋구었던것이다.

《당신은 대활공이요? 검량공이요?》

《.....》

진주는 얼빠진 사람처럼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이건 남편을 망신시켜도 폰수가 있지...누가 당신보고 대활공일까지 하랍니까.》

《예?!》

진주는 반쯤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남편이 그처럼 박절하게 나울줄은 몰랐던것이다.

《저광사를 열어야 광석을 쏠을게 아니예요?》

진주와 말소리는 서글프게 울렸다. 엄대석은 안해를 무섭게 쏘아보았다.

《광석이 쌓이든 말든 당신이 상관할바가 뭐가 말야!》

진주는 놀랐다. 주저함이 없이 그런 말을 내뱉는 남편이 너무나 놀라왔다. 그는 비로소 남편이 거석을 내는것은 변화된 암질조건이나 기술의 부

족때문이 아니라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남편은 자기가 생각해온,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그런 혁신자가 아니었다.

(어쩌면 주위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진주는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당신은 ... 당신은...》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떨렸다.

《대활공아바이한테 장갑까지 떠드리라더니...》

진주는 겨우 이 한마디를 하고는 얼굴을 폭 싸 쥐며 어깨를 떨었다.

## 5

2번교대 검량공이 나타났을 때야 진주는 교대시간이 된것을 알았다. 착잡한 상념속에 경황없이 보낸 하루였다.

진주는 인계를 끝내자마자 황황히 대활장은 떠났다.

《콩-콩-쿠궁콩-》

사방에서 남포소리가 터져올랐다. 갱도가 부르르 떨렸다. 간데라불이 뿔뿔거렸다. 진주는 부지런히 걸었다. 인도사다리알까지 왔을 때 쿵쿵 사다리말판 구르는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옷굴에서 구울듯이 달려내려왔다. 옥희였다.

《소대장언니!》

진주를 보자 옥희는 무척 반가와했다. 그는 요즘 1저광사에 가있었다. 휴양간 그곳 검량공이 돌아올 때까지 당분간 거기 가있으라고 했었다.

《그러잖아도 같이 가자고 찾으러 가려뎠지요.》

《그래?》

진주는 생긋 웃으며 옥희의 손을 꼭 쥐었다. 옥희의 그 마음이 고마웠다. 그들은 가지런히 서서 걷고있었다.

《참 언니. 요즘은 거석이 좀 적어졌나요?》

옥희가 갑자기 묻는바람에 진주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야 그런걸 난 공연히 아저씨를 노협했뎠구만요. 아저씨의 속은 알지도 못하면서...아저씨는 참 훌륭한 혁신자야.》

옥희는 감탄했다. 그럴수록 진주는 더 가슴이 아팠다. 남편이 진정 그런 혁신자라면 얼마나 좋으랴.

갱도가 두갈래로 갈리는 길목에서 진주는 주춤거렸다.

《빨리 가자요. 재미나는 영화 한다는데.》

옥희가 재촉하는 말이였다.

《먼저 가봐. 난 좀...》

눈이 울롱해진 옥희는 진주의 팔소매를 잡고 놓지 않았다.

《이제 순회를 할려구요?...가자요.》

《어서 가보라니까.》

《언니 참, 명국이도 탁아소에서 기다릴텐데.》

서운해하는 옥희를 보내고난 진주는 왼쪽 굴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저광사순회가 아니라 막장



으로 가고있었다. 경도는 고요했다. 이따금 천정에 뗏혔던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무겁게 들려올뿐이었다.

진주는 어느덧 엄대석소대 막장휴계실앞에 와있었다. 안에서 누구를 나무라는듯한 말소리가 흘러 나왔다. …

휴계실에서는 엄대석소대 작업총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왜 전차운전을 못하겠다고요?》

엄대석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전차운전공은 대활장에서 있는 일을 상기시킨 다음 자기의 불만을 털어놓았다.

《무슨 체면으로 또 전차를 끌고 저광사에 나간단말입니까. 우리때문에 검량공들까지 메질을 하는데… 이걸 정말 창피해서…》

그러자 소대원들이 웅성거렸다.

《검량공들이 메질을 하다니?》

《아니 우리가 너자를 덕을 입는단말야?》

엄대석의 거칠은 목소리에 진주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다.

잠시후 진주는 엄대석이네 채굴장에 당도했다. 가쁜 숨을 녹쫓힌 진주는 망치를 들었다.

팅빈 외진굴안, 어둠과 무거운 정적만이 도사리고있는 채굴장 한복판에서는 망치질소리만이 힘있게 울렸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진주의 등뒤에서 울려왔다.

《거-누구요?》

진주는 텅기듯 벌떡 일어났다. 불빛이 꼭 내뿜치며 큼직한 사람의 형체를 드러냈다. 그는 뜻밖에도 남편이었다.

《아니, 당신이?》

진주는 무등 반가왔다.

진주의 발앞에 자루가 부러진 대활망치와 깨다만 거석이 덩굴고있는것을 본 엄대석은 얼굴부터 찡그렸다.

《여기가 거석 깨는덴줄 알아?》

마뜡지 않게 뇌까린 엄대석의 눈길은 앞에 모아 켜진 진주의 손등에서 떴었다. 손등은 터져 피발이 내배있었다. 거석을 깨다 다친것 같았다.

《당신은 참…》

엄대석은 책망하면서도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남편을 말없이 쳐다보는 진주의 두눈은 피로와 원망, 애달픈 빛이 뒤엉켜있었다. 그는 풀기없이 중얼거렸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망신당하는게 가슴아팠어요.》

《영?》

엄대석은 그만 쓴웃음을 짓고말았다.

(너자들 속이란 정말 웅졸하구만. 화김에 던진 그 말을 여태 품고있다니…)

《그 말이 그리도 노여웠소?》

《노여워서가 아니예요. 전 은 광산에 혁신자로 알려진 당신이 거석때문에 남의 말밖에 오르는게 가슴아파요. 정말 안타까와 못견디겠어요.》

엄대석은 사뭇 울상이 되어 부르짖는 안해를 머쓱히 바라보며 굳입만 다셨다. 아직 한번도 안개 앞에서 그래본적이 없는 그는 어쩐지 몸가짐이 부자연스러워짐을 느꼈다. 진주의 침착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람들이 혁신자라고 박수를 쳐주고 꽃다발을 안겨줄 때 당신은 기뻐했지요? 저도 기뻐하구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건 기쁨이 아니였어요. 남을 구속하는 기쁨이 무슨 기쁨이겠어요?》

《남을 구속하다니? …누가 누구를 구속한단말이요?》

엄대석은 안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당신이에요. 그리고 저두…》

《뭐라구?!》

급소를 찢린듯 엄대석은 소리를 질렀으나 진주는 주저함이 없이 자기 속심을 터쳐놓았다.

《대활공아바이는 허리를 못펴고있어요. 거석을 깨느라고 지금도 대활장에 있어요. 그게 누구때문이에요? 그게 구속이 아니고 뭐예요? 당신은 그런줄도 모르고 장갑을 떠드리라고 했지만 장갑이 허리를 퍼주나요? 망치자루를 놓아야만, 거석이 없어져야만 그 아바이는 허리를 펴수 있어요. 여보…》

진주는 엄대석의 결으로 바투 다가서며 애원하듯 말했다.

《정말 부탁이에요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광석을 캐시라고. 예?》

진주의 두눈에는 물기가 펴 돌았다. 엄대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뜨거운것이 가슴으로 주르르 흘러드는것 같았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광석!)

이 말을 속으로 외워본 엄대석은 이제야 안해가 무엇때문에 거석문제를 가지고 그토록 안달아했으며 이 채굴장에까지 와서 거석을 깨느라 애쓰는지 그 마음이 헤아려졌다. 그러면서 자신이 캐는 한덩어 한덩이의 광석이 어떤 광석으로 되어야 하는가는 생각지 못하고 높아지는 생산도표에만 정신이 팔렸던 지난날이 가슴아프게 돌이켜지는것이였다.

엄대석은 빙그레 희심의 미소를 지으며 안해의 어깨우에 손을 얹었다.

《여보. 이젠 거석때문에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는 뺨 돌아섰다.

마치 견고성을 뽐내듯 동가슴을 내밀고있는 암벽을 맞받아 처억처억 발걸음을 옮기는 엄대석의 모습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는 진주의 얼굴에는 아침노을과 같은 밝은 빛이 함뻑 어려있었다.

# 공화국기발

김정순

나는 공화국기발을 들고 포화속을 달려보지 못한 이십대의 젊은 청춘이다. 그러나 바로 그 기발아래서 삶의 첫젊음을 떼었고 그 기상앞에 군인선서 엄숙히 다졌던 병사시절도 지나왔다. 전우의 피에 젖고 총탄자욱 무수한 공화국기발을 내두르며 육박전에 뛰어들던 로병사들의 위치에 자신을 세워보는 이런 순간이면 병사시절 돌격참호에 었던것처럼 기발의 부름따라 내달리고싶은 충동이 가슴에 짝 차오른다.

기발이란 무엇이기?

조국의 기발이란 무엇이기? 그 어느때고 바라보면 가슴이 후련해지고 말못할 열정의 설렘이 찾아드는것인가.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를 부르며 손에 기발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조선의 한 어머니가 나를 낳았고 내 또한 고향집 대문가에서 언제나 반기던 그 펄럭임소리 들으며 자랐으니 지방은 잊지 못할 고향의 한 모습이라 할가.

경사롭고 즐거운 날이면 집집의 지붕마다에서 손을 짓는 다정한것.

간고하고 준엄한 때이면 가슴마다 품고 펼쳐나서는 소중한것.

진정 공화국기발은 우리 겨레 찾아온 운명이 아니던가!

...나의 병사시절 작은 수첩에는 언제든지 그날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로 꼭 글을 쓰리라곤 푹푹히 적어놓은것이 있다. 나의 중대, 포연에 절은 전투기록장에 옛전우들이 남긴 중대공개당총회 결정서이다.

《…………》

첫째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 다진 맹세대로 마지막 한사람이 남는 한이 있어

도 조국의 고지-가막봉을 점령할것.

둘째로, 돌격전에서 공화국기발을 항시 대오의 맨앞에 세우도록 할것.

기발수- 당원 박철수 (※전투시 희생)

당원 오태원

민청원 박성훈

근위 X련대 3대대 2중대 공개당총회

1952년 7월 X일》

짧으나 큰 충격을 가슴에 안기는 글발이다.

공화국기발-그것은 우리의 조국이며

위대한 수령님 펼치신 우리 민족의 영원한 하늘이다.

조국을 사수한단은 말과 기발을 지킨다는 말은 같은것이다.

인민학교때 녀선생의 손목잡고 찾아갔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낮을 익힌 한 기록이 떠오른다. 어느 한 보병중대가 수백차례의 전투마다에서 휘날린 승리의 기발!

나는 그때 총탄에 뚫린 자리를 하나 둘 짚어가며 세여보았다. 백이 넘는 그 자리를 쏘아나가다가는 매번 헛갈려서 끝내는 녀선생에게 총탄자리가 몇개인가고 물었었다. …

지금에 와서는 혹 세여낼지 모른다. 허나 그 수자는 헤아린다 해도 그 위훈의 흔적마다에 스민 고결한 정신과 피타는 맹세와 넘겨주고 넘겨받으며 웨치던 절절한 목소리들의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기발에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오랜 기간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항일혁명선열들의 숭고

**한 애국주의정신이 깃들어있으며 간고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인민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몸바쳐싸운 참다운 애국투사들과 영웅전사들이 흘린 붉은 피가 스며있습니다.》**

피로써 쟁취하고 피로써 지켜낸 기발이다.

못잇을 모습들이 자꾸만 떠오른다.

어두운 감방속에서 천만의 깨끗한 마음을 모아 공화국기발을 정히 누벼놓고 사형장으로 곳곳이 나간 이 나라 녀인들, 원쑤들이 짓밟은 고향마을 창공에 그 기발을 높이 휘날린 기특한 조선의 어린 녀들...

아, 공화국기발이여! 진정 너는 무엇이기에 이 나라 마음들이, 심장들이 너의 빛갈, 너의 그 펄럭임아래서 자신의 죽음을 영생으로 바꿀수 있었던가!

어찌하여 이 나라사람들이 가장 엄숙한 맹세를, 너를 부여안고 다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일지라도 너의 기폭에 불을 비비고 선뜻 떠났던가!

공화국기발- 그것은 우리 조국의 절개이고 민족의 명예이다!

공화국기발- 그것은 우리의 맹세이고 신념이다!

그것을 들고 나아가다 쓰러지면 인간의 더없는 영광으로 되고 그 펄럭임밑에서 물려선다면 비겁한자로 되거나 공화국기발은 애국과 반역을 가르치는 섬광!

바람세찬 사형의 벼랑끝에서 굴복을 강요하는

총구에 대한 대답으로 가슴헤쳐 기폭을 펼쳐든 사람들이 공화국기발의 영원한 기수들이다.

앞서나가던 기수가 쓰러지면 그다음 전사... 열백의 기수들은 쓰러졌어도 기발만은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내달았거니 넘겨주고 넘겨받던 그 손길들이 공화국기발의 영원한 반석이다.

어찌 그들만이라!

우리모두가 마땅히 공화국기발의 기수로 되어야 한다.

공화국공민- 이는 조국을 가꿀뿐아니라 지킬 의무도 지닌 공화국기발의 수호자이기때문에...

그렇다!

나도 공화국기발의 기수다!

나는 펄럭이는 람홍색기발밑에 달려가 이렇게 웨치고싶은 충동을 금할수가 없다.

기발이여! 나의 조국이여!

나는 그대의 작은 상등병,

그대의 어엿한 보통병사!

위대한 해와 별을 따라

나아가고 나아가는 저 기수들속에

나도 너를 추켜들고 들어선다

무수한 어깨와 어깨들속에

나도 너와 함께 영광을 누린다!

무수한 총검과 총검들속에

나의 총창도 너의 원쑤들을

찢어버린다!

## 조국을 떠나 멀리

리광근

### 사랑의 하늘길

높이도 떠올랐구나  
구름과 구름우에  
멀리도 날아왔구나  
하늘길로 대륙을 넘으며

손을 뻗치면 해가 잡힐듯  
한결을 나서면 구름에 실릴듯  
아득한 저밑은 내 밟고 다니는 땅  
앉아있는곳은 허공중천 푸근한 자리

내 지금 어디에 있는것인가  
모진 세월, 소먹이 저녁에 풀피리 불며  
까마득히만 올려다보던 그 창공  
책상에서 처음 우리 글로 적어보고  
포연 가신 고지에서 환희로이 바라보며  
서툰 시문장에 옮기던 하늘에 올라-

바라보는 비행기의 시창밖으로  
어제와 오늘이 엇바뀌고  
엇바뀌는 생각속에 뜨거워지는 마음  
나도 몰라라 흐려지는 눈을 습벅이니

스스로 속깊이 불리워지누나  
-어버이수령님! ...

오 꿈같은 이 시각  
하늘길에서 어버이 그 영상 우리르니  
받아안은 온갖 사랑이 하늘길에 모여오는것이나  
날아가는 시간마다 조국은 멀어져가도  
사랑속에 지나온 날은 가까이만 다가와

가까이만 다가와 가슴 뭉클히 울리누나  
먼길 떠나는 나의 짐을 챙겨주며  
내 어머니 조용히 하던 그말  
-맨발로 밭고랑을 타고다니던 네가  
하늘길에 오르는구나

고마와라, 크나큰 은덕이여  
땅우에서 받아안은 그 사랑  
무한대한 하늘에 비껴 생각했건만  
아 하늘길에 오르니  
어버이사랑 다 비길곳 세상에 없구나

### 세상은 넓고 사람들 많아도

밤도 퍼그나 깊어  
잠시 머무른 한 비행역  
낮선 외국인들과 함께 들어설 때  
파아란 눈빛, 반가운 웃음속에  
-코레아, 코레아  
정어린 안내원처녀의 목소리

응접실의 수많은 손님들마저  
저마다 우리를 반겨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휘장을 우리르며  
-김일성주석, 김일성주석!  
몇번이고 불러보는 흠모의 눈빛들

그 어느 나라 누구인지도 모른다만  
낮익은 사람들만이 가까운것이 아니구나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함을 불러  
내 조국은 이들의 가슴에  
친근히 안겨있어  
마치 이 사람들 모두가 구면같아

정겨운 그 목소리, 저 눈비들  
언제인가 내 나라를 다녀왔을수도 있으리  
망송과 신문에서 가까와졌을수도 있으리  
《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깊이 알수도 있었으리

번영하는 나라, 우리 조국을

아, 어제날엔 세계지도우에  
이름조차 찾을길 없어 가슴을 찢더니  
오늘엔 우리 수령님의 존함을 하나로 부르는  
이 수많은 나라 사람들의 하나같은 목소리  
멀리 조국을 떠나온 이 가슴을 흔들어

산너머 대륙너머 머나먼곳  
만나는 낯선 사람, 낯선 땅에서  
조국의 숨결 이토록 뜨거이 안으니  
조국의 모습을 우리 가슴에 안고온것인가  
조국의 마음이 우리를 맞아주는것인가

깊은 밤, 외국의 한 비행역  
잠시 머무른 이 순간에조차  
수많은 벗들의 정다운 맞음속에서  
떠나올 때엔 다 알수 없던 큰 자부심이  
가슴가슴 세차게 끓어올라라

아, 하늘땅 넓고 사람들 하 많아도  
위대한 수령님 우러러모시여  
주체조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어데 가나 낯선 사람이 없으라  
이 세상 한끝까지 낯선 땅이 없으라

## 비는 내려 내려

먹구름하늘이 파랗게 열리더니  
다시금 구름이 덮이여 소낙비 소낙비  
푸르른 종려수잎이 몸부림치고  
무성한 망고나무들이 뒤설레인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넓다란 빠나나잎을 우산처럼 받고  
길거리를 내달리는  
분주한 흑인들의 발걸음 발걸음

비  
비  
아프리카의 큰 장마철 소낙비  
조국을 떠나온 내 마음 흔들며  
비는  
내려 내려

화창한 봄날에 조국을 떠나  
조국의 봄하늘을 안고온 내 마음  
비물에 젖어

떠나온 땅이 그리워

그리워 눈앞이 흐려지는가  
비물이 유리창을 흐리는가  
창너머 비구름너머 멀리 내 조국은  
떠나온 그 봄날의 화창한 모습으로  
언제나 이 가슴에 어려있어

승엄한 만수대의 푸른 언덕  
맑은 물 출렁이는 대동강반  
정다운 나의 집 밝은 창문가  
활짝 피여있는 꽃향기를 비껴담고  
가까이 안겨오는 조국의 밝은 하늘이어

비  
비  
아프리카의 소낙비  
세차게 내려 내려도  
아 나의 마음엔  
조국의 봄하늘만이 푸르리라

## 그리움

떠나올 때엔 고마움에 눈물을 삼켰더니  
떠나와선 그리움에 목메입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이국에 온 몸이어서  
태어나 처음으로 그리워지는 조국입니다

어렸을 때엔 가난에 쫓겨 집을 떠나며  
슬픔에 잠겨 어머니 품에 울었더니

어른된 오늘엔 조국을 멀리 떠나  
자애로운 그 품이 그리워지는 마음입니다

떠나왔다고 어버이 품을 떠난 몸 아니언만  
떨어져있어 더 뜨거이 안아주는 품이언만...

가까이 뵈옵고 살 때엔 그 행복만을 알았더니  
멀리 떠나있어 그리움의 한세계를 안아봅니다

야자수 설레이는 이국거리에 나서면  
수령님 뵈옵군하던 조국의 거리가 떠올라

저녁산보길에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  
이렇게 걷고걸어 조국땅을 밟고싶어

이역하늘에 나뭇기는 우리 기발 바라보면  
차오르는 궁지로 하여 조국은 더 그리워

그리움의 마음속에 인자하신 수령님 영상  
우러러 경건히 다짐하는 마음입니다

돌아갈 때엔 크나큰 기쁨안고 가리다  
그리움의 한마음을 충성의 보고로 올리리다

어버이수령님  
자애로운 조국의 품이여!

## 기쁜 날

멀리 멀리  
길손이 왔다고  
조국에서 아프리카 이 나라를 찾아  
귀한 손님들이 왔다고  
우리는 즐거이 모여앉았다

저마다 말은 없어도  
이국에서의 벌써 수백날  
하나처럼 기다린것은  
조국의 새소식  
어서 알려주었으면

천천히 일어서며  
찾아온 그 책임일군  
동무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겠다고  
몸가짐도 정중히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건강하십니다

썩-가슴을 울린다  
젖어드는 눈시울  
모두가 하나같이 바라던 마음이건만  
문득 받아안은 크나큰 이 소식

기쁨이 겨울 때는 할 말이 막힌다고  
끓어오르는 뜨거움만을 삼키고 삼키고

긴긴 날 이역의 하루하루에  
기다려지던 조국의 새로운 소식  
떠나온 일터와 보고싶은 사람들  
그 모든 소식을 따로 받든들 무엇하리  
세상의 기쁜 소식 모두 합쳐도  
이룰수 없는 큰 기쁨을 하나로 안았나니

조국에서는 늘쌍 듣는 소식이어서  
그 기쁨 다는 몰랐던가  
아마도 난생처음 조국을 떠나  
조국의 그리움속에 받아안아서이리  
난생처음 집을 떠났던 어릴적같이

어찌랴 우리 이날에  
어린이때의 마음이 되는것을  
아마도 한생이 다할 때까지  
마음의 이 버릇은 버릴수 없으리  
경애하는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시였기에

기쁜 날, 즐거운 날 웃음으로 보내며  
모두의 가슴속 생각은 하나  
조국땅에 있어도 멀리 떠나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안아 행복하리라  
-어버이수령님께서 건강하시다!

## 아프리카의 한밤은 깊어가도

야자수 잎새에 걸린 달이  
숙소의 창문에 비쳐들고  
어디선가 흑인들 밤무도회의  
북소리창단 가락맞게 울려오고

깊어가는 아프리카의 밤  
시침이 열한시를 가리키는 때  
조국땅엔 벌써 새날이 밝았는가  
라디오의 전파를 타고 울려오는  
조국의 아침소식

구름너머 산발너머 수만리  
대기에 엇갈리는 수만의 전파를 뚫고  
여까지 울려오는 조국의 목소리  
떠나있는 자식들에게 반가운 소식 알려주는  
어머니의 정다운 목소리런가

떠나올 때엔 눈같이 한창이던 별이  
푸르른 벼포기 설레여 물결쳐오고  
새 제철지구의 하늘을 물들이며  
첫 출강의 쇠물빛이  
여기 아프리카의 밤하늘에 비껴오는듯

그러하리, 지금 이 시간에  
가사

내 사는 거리의 창문들 활짝 열려  
사람마다 일터로 갈 차비를 서두르리  
어쩌면 유치원 가는 손녀의 인사를 받으며  
내 어머니 집 떠난 나를 그릴수도 있으며

그러하리라 즐겁게 일터로 가는  
활기찬 걸음, 웃음어린 얼굴들  
새벽안개 걷어올리며 피어오르는 흰연기  
프락포르 줄지어 달리는 넓은 들길  
오, 조국의 아침길로 날 부르는 목소리어

그 목소리  
나의 첫 출근길을 바래워주며  
일 잘하라던 정겨운 어머니의 음성  
나를 찾아 일터로 함께 가자고  
불려주던 벼들의 다정한 마음이런가

나를 불러 이끌며  
조국땅에 세워주신 그 목소리  
아프리카의 한밤은 깊어 깊어가도  
나는 상쾌한 아침길을 걷는다  
정다운 사람들과 나란히  
멀리 조국의 걸음에 발을 맞추며-

## 우리는 보람찬 간석지건설자

김병두

갈매기 춤추는 수평선 저 멀리  
조국땅 넓혀가는 이 마음 달리네  
당의 부름 받들고 바다를 밀어내는  
우리의 걸음 따라 백리벌 펼쳐지네  
아 우리는 간석지건설자

몰아치는 파도는 우리의 노래  
뻗어가는 제방은 우리의 자랑  
수령님의 만년대계 구상을 펼쳐가는

청춘의 가슴속에 희망은 넘쳐나네  
아 우리는 간석지건설자

오늘은 여기에 바다물결 설레여도  
래일은 여기에 벼바다 설레이리  
조국땅 새 기슭에 꽃피는 행복 위해  
이 한몸 다바쳐 위훈을 떨쳐가네  
아 우리는 간석지건설자

## 맑은 하늘

조용관

해빛은 강산에 파사로웁고  
날씨는 전에 없이 좋아도  
하늘을 바라보고 또 보고  
수령님 오시는 날  
맑고 개이기를 바라는 마음

몸소 오시는 길  
하늘길이라만  
만정성 엮은 꽃다발  
책장 뵈는곳에 얹어놓고  
하늘만 하늘만 바라보는 마음

백두밀림에 계실 때엔  
조국의 해방을 위하시여...  
대원들 돌아올길 지키시여  
아 눈비하늘아래 계시였고-

호랑이사수가 보고싶으시여  
전선천리 불비속을 걸으시고  
너성보잡이 찾으시여  
후방천리 포연서린 하늘아래 계시고...

불노을 타는 구내길 걸으시며  
자동차의 봄을 가꾸시고  
진눈까비 내리는 들길에서  
만풍년 가을을 무르익히시고...

오 락원으로 꽃핀 주체의 조국을 위하시여

행복의 꽃떨기로 핀 인민을 위하시여  
음산한 하늘아래 서계신 수령님  
다시 그렇게 모시고싶지 않은 소원

수령님 백두산에 오르실제  
몰아치던 눈발이 딱 멎었다고  
하늘도 천기를 타신 그이를 안다고  
그리도 기뻐 웃던 얼굴들이

제고장에 오시어서만이라  
산너머 먼곳 가시면  
그곳 날씨 좋기만 바래서  
기상예보를 알아보는 마음

대륙 넘어 대양 건너  
외국방문 가시면  
온 세상 눈비내려도  
오직 수령님 계신곳만 개이기를...

오 조국 위해 인민 위해  
한평생 눈비하늘아래 계신 수령님  
더는 진정 그렇게 모실수 없어  
맑은 하늘 되고싶은 인민의 마음

그 마음속에  
언제나 맑은 하늘이 열려있어라  
그래서 진정 그래서  
내 조국 하늘은 맑고 푸른가!

## 사랑의 보둑우에서

박함집

개울가 버들방천엔  
봄빛 줄줄이 드리우고  
어버이수령님 서계시는 보둑아래선  
이슬을 굴리며 모일이 춤추어라

행복하구나 그 보둑에 올라서서  
허리 굽혀 수령님께 절을 올리는  
저 김매는 기계운전수치너는

재롱부린 손녀 무릎에 앉히시듯



자애로우신 품에 안아주시오니  
보폭에 들판에 온통 넘치는건  
그이의 미소런가 해빛이런가

원동기가 작고 가벼워서  
기계가 빠지지 않아 좋다고  
기계로 농사일을 하니  
논두렁걸음이 가벼워지신다고...

오늘에 바쳐오신 로고는 잊으신듯  
그 기쁨의 모두를 농민들 가슴에  
김매는 처녀의 손에 안겨주시며  
수령님께서 만족하시여 하시는 말씀  
이번엔 원동기를 더 작게 해서  
새로운 자행차도 만들자고...

눈굽이 젖어온다  
대를 두고 논판에서 허리를 못펴던 일을  
사랑의 기계우에 얹혀주신  
아 크나큰 그 은덕

정녕, 이 땅에 기율이시는 어버이사랑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디이신가  
농민들이 손으로 김매는걸 보시면  
한밤에도 잠이 아니오신다고  
아프시도록 참으로 손이 아프시도록

잔디풀 뜯어보시던 그날의 보폭이여!

이제는 모내기기계화도 끝났으니  
세상에 대고 소리칠만하다고  
그러히도 대견해하시던  
잊지 못할 그 발머리는 또 어디

땅에 가슴에 은정은 차고 넘쳐  
이제 무엇을 더 바라랴만...  
베푸시는 사랑 끝간데 없어  
일터로 오가는 하찮은 걸음마저  
어버이수령님 보살펴주시여  
즐거움에 자전거를 타고다니는  
아 고마와라 어버이사랑

받들자 처녀야 수령님 그 은덕을  
이 세상 하늘이 비좁도록  
만풍년의 낱알을 듬뿍이 쌓아  
오곡의 무게로 땅이 꺼지게  
충성의 높이로 하늘이 들리게 하자

세월과 함께 가벼워지는 우리의 일손처럼  
우리 수령님 발걸음도 가벼워지시게!  
해마다 떨어지는 우리의 힘든 일같이  
우리 수령님 심려도 떨어지시게!

## 사랑의 토방앞에서

홍준성

찾아오는 걸음들  
떠나가는 마음들  
하루에도 그 몇번이건만  
그때마다 다는 몰랐구나

알수 없었구나  
기쁨의 왕진길 돌아올 때도  
해종일 나들면서  
환자를 맞고보내면서도...

산촌에도 심심산촌에  
소문없이 찾아오신 수령님  
우리 농장 진료소에 들리시여

몸소 오르셨던 이 토방

할머니를 부추겨주시는듯  
어린것의 손목도 잡아주시는듯  
한동안 생각해 잠기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시였어라  
-오르내리기 불편할테니  
이 토방을 낮추어줍시다

아 이름없는 이고장  
자그마한 토방의 높이도 헤아리신 사랑  
돌기돌기 토방이 낮아질 때  
돌기돌기 솟구치는 생각이여

내 잊을수 없어라  
 지주네 집 높은 토방아래  
 피멍든 히리 구부정하고 섰던 아버지  
 《자혜》병원 높은 토방 붙들고  
 가냘피 떨던 동생의 그 고사리손...

모진 그 세월엔  
 가는곳마다 높고높은 토방들  
 밥비는 아이들 눈물에 젖었고  
 골병든 사람들 더욱 지지누르던  
 죽음의 언덕처럼 아슬했건만

허지만 오늘 여기  
 낮아진 우리 토방가에는  
 얼마나 많은 기쁨이 꽃피었더나

집집마다 들어서며 방실 웃고  
 마을마다 나서면서 병실 웃고...

기쁨안고 어서 넘어서라고  
 행복안고 어서 넘어가라고  
 내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더 낮추어주신 이 토방, 이 사랑

수령님의 사랑을 받들어올렸구나  
 구름가 평양산원의 꽃창제도  
 인민보건의 법전도!

아, 심심산촌의 진료소  
 토방은 낮아졌어도 낮아졌어도  
 내 차마 선했 못넘어서누나  
 수령님의 그 은덕은 높고높아서...

## 제발로 걸어라

황승명

용타, 애기야  
 엄마의 젖몸에서 방싯거리며  
 나를 반기더니  
 일어섰구나  
 두발을 벗디디고

주고받는 칭찬에  
 첫걸음을 땀다  
 두팔을 펴고  
 춤을 추듯  
 한걸음  
 또 한걸음

한치 앞이 멀어서  
 땀을 흘리누나  
 발 한번 옮겨디디기가  
 천금보다 무겁구나

제가 딛고 가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제발이 얼마나 작은지  
 모르면서도  
 고사리같은 두손을 부르쥘고  
 한걸음

또 한걸음

그래도 제발로 걸어서  
 용타!  
 넘어져도  
 제힘으로 일어서거라  
 너의 가야 할 앞길이  
 평탄한 이 방안에만 있지 않다

부모들이 못다한  
 큰일을 위하여  
 때로는 천길 땅속도 헤치고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할  
 너는  
 새세계의 창조자

빛나는 그 눈동자에  
 우주를 담아라  
 태어나자부터  
 나라의 《보배》로  
 《왕》으로 떠받들린  
 너의 그 한걸음에  
 지구가 돌고  
 미래가 마주온다

## 꽃방석

장기성

저녁해가 서쪽하늘을 붉게 물들이고있었다.

어느덧 휴식의 하루가 저물어가는것이다. 온종일 불별을 쏘아뿔던 한여름 해는 벽계산마루에 걸려서까지 한동안 이글대더니 더 어쩔수 없는듯 서서히 꺼져버리고 미구에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했다. 집집의 굴뚝에서 저녁 짓는 연기가 술술 피어올랐다.

(...성진이 아버지 왜 아직 안돌아올가?)

바람이 휩휩 통하게 앞뒤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오늘 빨아말린 옷가지들을 다림질하고있던 순녀는 큰길쪽으로 눈길을 보내며 혼자속으로 뇌였다. 이틀전에 기계화작업반에서 수명이 다되어 뽑아놓은 부속들을 재생해보겠다고 군농기계작업소로 간 남편 김윤복을 기다리는것이였다.

마침 반두와 고기다래끼를 들고 좋아라 재깅거리는 아이들을 앞세우고 기분이 뚱뚱 떠서 돌아오는 두 농장원이 눈에 띄이자 순녀는 저도모르는새 나직이 한숨을 지었다.

《오늘이야 좀 일찌기 돌아올것이지...》

책임운전수인 남편과 교대하며 모내기전투 전기간을 만가동하고 이어 김매기후치질에 들어서자 긴장하게 일해온 순녀에게 있어서 오늘 휴식일은 또 휴식일대로 드바빴었다. 탁아소에 다니는 성진이와 은순이를 데리고 빨래를 하고 터발김도 매고 밀려오던 집집승우리도 말끔히 치웠다. 그러는사이 마른 옷가지들을 걸어 다리느라니 어새 벌써 해뿌리가 뿔힌것이였다.

《참 그인 그저 프락포르밖에 모르지.》

순녀는 혼자 속살거리며 다림질을 계속했다. 옷장보를 다리고나니 마지막으로 방석의우개가 남았다. 흰당목우에 붉고 푸른 색실로 정성껏 수를 놓은 꽃방석의우개였다.

꽃방석의우개를 당겨 그우에 다리미를 대는 순녀의 눈에는 고요하고 따뜻한 빛이 흘렀다.

사연깊은 꽃방석인것이였다. 순녀가 시집을 때까지 온 꽃방석, 싱싱한 젊음과 순진하고 열렬한 사랑, 황홀한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슴부풀던 그 시절을 연연히 추억케 하는 꽃방석! 별로 써보지 않고 이불장밑에 정히 보관해두고있던 그 꽃방석이 H-03-33268호 프락포르의 방석으로 놓일줄이야...

그것은 지난 4월초부터였다.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강령적인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남편 윤복은 《여보-》 하고 안해를 불렀다.

《거 우리 집에 그 꽃방석 있지 않소, 그걸 프락포르에 내다놓읍시다.》

《예? 아이 참 당신두! 그 새하얀 방석을 프락포르에 내다깎아선 몇칠이나 가겠대구요. 아매 매일 빨아도 못당할거예요.》

《바로 그거요, 내 그래서 그 꽃방석을 내다놓자는 생각을 했소.》

《?!...》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설비관리를 더 알뜰하게 하고 보수정비를 제때에 한다면 차는 고장이 나지 않을게 아니요. 그렇게만 되면 때없이 몸에 붙이던 기름칠도 하지 않게 될것이고... 결국 꽃방석이 늘 깨끗해있으면 우리의 프락포르는 언제나 정상이라는것을 말해줄게 란말이요.》

《!...》

안해는 남편의 그 마음이 헤아려져 생긋 웃어 보였다.

이렇게 되어 프락포르에 놓여지게 된 꽃방석이였다. 하지만 꽃방석은 하루가 멀다하게 기름때로 어지러워지군했다. 안해는 거의 매일과 같이 꽃방석을 빨아서 다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허허, 내가 당신한테 일거리를 하나 더 만들어준게 아니요.》

《아이참, 새 일거리를 만들어주었으면 없애줄때도 있지요워.》

윤복의 말에 순녀는 이렇게 룡으로 웃어넘겼다. 물론 그때로부터 윤복은 프락포르관리에 온갖 심혈을 다 쏟아부었다. 그는 먼저 프락포르의 경력서를 만드는 일에 달라붙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락포르운전수들은 프락포르를 제때에 정비하고 수리하며 관리를 잘하여 그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 따라 윤복은 프락포르의 대부분을 일일이 점검하며 어느때에 어느부분을 수리하고 어느 부속을 교체했으며 앞으로 언제 가서 어떻게 수리해야 한다는것, 보수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놓았다.

《벌써 경력서를 이렇게 했어야 했을걸!... 여보, 우리 꼭 이 경력서대로 프락포르를 정비보수하도록 하자구.》

프락포르경력서 재작성을 끝내며 안해에게 흡족해서 건넨 윤복의 말이였다.

윤복은 안해에게 작업시작전과 작업이 끝난 교대직전의 자체점검 및 청소를 생활화, 습성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참 바쁘던 모내기때의 어느 저녁이였다.

순너는 교대시간이 되어오자 썰레질을 더 세판게 해나갔다. 논 한배미라도 더 많이 썰레질을 쳐놓아 남편을 놀라게 하고싶었다. 다른 프락포르조에 대비한 승벽심에서 오는 일욕심이였다.

《아니 여보, 왜 아직 그러고있소? 청소를 하지 않고...》

어느새 나온 남편이 소리를 쳐서야 순너는 방그레 웃으며 논쪽으로 프락포르를 몰아나갔다.

순너는 남편앞바투에 차를 붙여세우며 흥에 뜬 어조로 말했다.

《다문 몇평이라도 더 썰레를 치느라고요. 아마 현재까지는 우리 실적이 제일 높을거예요.》

《그래도 제정된 시간이 되면 청소를 하고.》

《아이참, 차를 전람회장에라도 세워둘셈이예요? 당신이 타고 밤새 일을 할텐데.》

《?!...》

순너의 웅성비슷한 그 소리에 윤복의 낯색은 흐려지였다. 마음이 언짢아지면 선뜻 입을 열지 않는 윤복이였다.

잠시후에야 윤복은 낮으나 애타는 어조로 말했다.

《그럼 모내기전투가 끝나 프락포르가 논판에서 나올 때까지 청소를 안해도 된다는게요?... 그래서 안되지. 손톱 굵긴것은 알아도 염통 굵기는 것은 모른다더니 당면한 눈앞의 일만 보면서 하루하루 프락포르관리를 소홀히 하면 차는 차츰병이 든단말이요. 자 내가 점검을 할테니 당신은 물이나 길어오오.》

한평이라도 더 썰레질을 하려는 자기의 심정은 알바없이 조용히 타이르는 말이였으나 어쩐지 그것이 가슴에 내려가지 않았다. 알찌근하고 서운한 생각을 안은채 그는 물을 길어다 차를 닦았다...

어느새 방석자락이 또 거뭇거뭇해진것 같았다. 순너가 그것을 빨려고 하자 윤복은 머리를 저었다.

《그냥 두오, 궁둥이가 배겨서 내온것이 아니라 우리의 설비관리 <검열관>으로 앉힌 꽃방석인데

그냥 두고 관정을 받아보자구.》

윤복이 웃음을 띠고 하는말이였다. 윤복은 방석도 운전수가 쉴 때에 동시에 빨도록 하자고 했다.

그후 한번은 순너가 프락포르의 기관을 손질한 다음 운전대에 오르며 꽃방석이 어지러워질가봐 옆으로 밀어놓았다.

《여보, <검열관>을 그렇게 눈속임해서야 되겠소.》

이런 과정을 거쳐 어느새 프락포르관리에 바쳐지는 자신들의 노력과 정성을 꽃방석에 비취보게 된 그들이였다.

아무리 일이 바쁠 때에도, 낮에 밤을 이어 프락포르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해놓고 윤나게 깨끗이 닦은 다음에야 차에서 떨어지는 윤복의 극진한 심정에 감복하여 순너도 이에 남달리 힘을 넣고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

순너가 생각해낸것이 흰명주천자루였다.

순너가 친정집에 가서 쓰다 남은 흰명주천을 가져다 자루를 만들 때 윤복은 물었다.

《아니 그건 무얼 넣을 자루인데 그렇게 좋은 명주천으로 김소?》

《어디 맞춰보세요.》

순너는 발랄한 처녀시절과 같은 기분으로 남편에게 정겹게 말했다.

《글쎄.》

《이 자루로 프락포르기름을 러과시켜 쓰자고 그래요.》

《응?!》

윤복의 눈동자는 불시에 커지며 빛났다. 여기까지는 별 흥심없이 말을 주고받았는데 그것이 프락포르관리에 쓸 명주자루라는바람에 귀가 번쩍 트인것이였다.

《발이 촌촌한데다가 젖어도 실이 퍼지지 않으니 기름을 러과시키는데는 명주천이상 있을것 같지 않아요. 정제되어 오는 기름이지만 혹시 티라도 있어 연유도관이 메게 돼도 그렇고 또 분사구에도 우리가 가게 되고...》

《거참 신통한 생각이야! 역시 당신 머리가 픽픽 돌거던, 하하하.》

윤복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랐다.

프락포르관리에서 모범이고 그러니 만가동하여 작업실적도 기계화작업반적으로 제일 높았다. 하여 속보와 방송에 소개되기도 그 몇번...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자기가 얼마나 단순한 생각을 해왔던가싶어 부끄러워지는것이였다...

이윽하여 방석꾸미기를 끝낸 순너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다시금 우슬우슬해지는 큰길쪽을 바라

보았다. 남편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하긴 성진이 아버지가 어디 큰길로 다니나. 어디 갔다올 때면 지름길로 등성이를 넘어와 작업반 차고에부터 들리지.)

순녀가 부엌에 내려가 쌀을 일어 안친 다음에야 밖에서 저벅저벅 발자국소리가 울리었다. 남편이 돌아오는 모양이었다.

《아버지-》

방안에서 놀고있던 성진이가 반기며 소리를 쳤다.

《음, 우리 성진이가 오늘은 은순이를 보면서 집에서 놀았나! 용쿠나.》

윤복은 방안에 들어서 애들의 불을 사랑겹게 건드려주었다.

순녀는 남편의 웃웃을 받아 벽걸이에 걸며 물었다.

《차고에 들러오세요?》

《음, 차 청소를 말끔히 잘해놨더구만.》

《뒤바퀴축보도들도 다 뽑아서 기름을 발라 다시 채웠어요.》

《수고했구만... 분사구도 바꿔넣었겠지?》

《예에?!》

윤복의 뜻밖의 물음에 순녀는 얼터름해져서 마주보았다.

《아니, 경력서에 분사구를 바꿔넣어야 한다고 밝혀져있지 않소.》

순간 두 눈길이 한점에서 맞부딪쳤다.

《.....》

순녀의 가슴은 뛰었다. 야릇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샅시에 온몸을 휩쌌다. 순녀는 휴식일이라는 생각속에 집일로 실재없이 돌아치다보니 경력서를 감감 잊고있었던것이였다. 순녀는 솔직히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니 분사구를 바꿔넣지 못했던말이군.》

《미처 그 생각은...》

순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남편의 책망어린 눈길이 자기에게 쏠리고있음을 느끼었다.

윤복은 긴숨을 내쉬더니 옷걸이에서 작업복을 벗겨입었다. 차고에 다시 나가려는것이였다.

(아이, 어찌나...)

순녀는 죄스러웠다. 속이 알찌근해났다. 자기 때문에 먼길을 온 남편이 다리쉽도 하지 못하고 다시 나가게 되는것이였다.

한편 마음 한구석에 (뭐 당장 분사구때문에 트랙포트가 못뛰는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과 함께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종일 돌아친 자기의

수고를 너무도 몰라준다는 서운한 느낌이 머리를 들었다.

《피곤하실텐데 쉬세요. 내가 래일 새벽 일찌기 나가 하겠어요.》

《아니 오늘 할건 오늘 꼭 해야 돼요.》

윤복은 고집스럽게 머리를 저으며 집을 나섰다.

각이한 모양과 색깔을 지닌 대자연에 먹칠을 하며 어둠이 흐르고있었다.

터벅터벅 어둠속으로 멀어져가는 남편의 발자국소리는 순녀의 가슴속에 마쳐 얼얼하게 했다. 그 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자 순녀의 온몸은 나른해졌다.

(그만 깜빡 잊은것을... 너무나...)

순녀는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의 처사가 너무 과하다는 고까움을 금할수 없었다.

《엄마 나 밥.》 하는 성진의 소리에야 순녀는 생각에서 깨어나 부엌으로 내려갔다. 푸푸-소리를 내며 가마가 끓고있었다.

순녀는 부지런히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서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차고로 나갈 작정이였다.

외등밑에서 트랙포트기관부를 분해하고있을 남편의 땀에 뜬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려왔다.

(시장할텐데...)

밥이 되기 바쁘게 아이들의 밥상을 차려준 순녀는 집을 나섰다.

차고를 향해 부지런히 걸었다. 지나치는 집들의 열어놓은 문으로는 구수한 냄새와 그릇에 손가락 부딪치는 소리, 어른아이들이 주고받는 정겨운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푸짐한 저녁상을 마주하고 행복한 가정적분위기에 한껏 취해있는 그들이 지금 순녀에게는 부러웠다.

순녀가 차고에 이르니 윤복은 떼여낸 분사를 외등가까이에 대고 세심히 살펴보고있는중이였다.

순녀를 알아본 윤복은 미소를 지으며 보던 분사구를 내밀었다.

《보오, 축끝모서리가 많이 닳지 않았소. 그러니 작용이 원만치 못할게란말이요.》

《.....》

《이걸 떼보니 우리의 경력서가 그만하면 정확히 작성된것 같소.》

순녀는 말없이 분사구축을 들여다보았다.

윤복은 예비부속품주머니에서 꺼내온 새 분사구에 기름칠을 하며 계속했다.

《그 분사구를 아직 얼마 더 쓸수는 있겠지만 작용이 원만치 못하다보니 앞공정들과 기통에 무리를 주게 되구 결국은 프락포르가 제 능력을 다 발휘할수 없게 될게란말이요. 그러니 정히 다루어 수명을 연장하면서도 교체할 부분은 또 제때에 바꿔넣어야지.》

운복의 그 소리는 순녀의 심중을 자극했다. 남편이 자기 속을 뻘히 들여다보고 말하는것 같아 순녀의 낮은 화끈 달아올랐다.

《오늘 휴식일날 당신이 밀린 집일을 혼자 하느라 수고가 많았다는걸 나는 알아. 내가 집일에 너무 무관심한것도 잘못이고, 그러나 집일은 좀 미뤘다 해서 큰일날게 없지만 차관리는 하루하루 밀릴내기를 하면 나중에 필연코 큰 후과를 가져오게 되지. 프락פור는 우리의 무기인데 그 무기가 원만치 못해가지고서야 어떻게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겠소.》

운복은 분사구를 제자리에 맞추느라 잠시 말을 끊었다가 계속했다.

《프락포르를 아무런 고장 없이 만가동시키고 오래오래 새것처럼 쓰는것, 이것이 어버이수령님께 다하는 우리 운전수들의 충성심이라고 나는 생각하오. 그러자고 작성리용하는 경력서인데 휴식일이라고 어겨서야 안돼지.》

《!...》

운복의 말마디들은 순녀의 마음속을 세게 울리었다. 그것은 남편이 심중속에서 울려나오는 진정 넘친 호소였다.

순녀는 새삼스럽게 남편과 자신을 대비해보았다.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 따라 프락포르를 혁명의 무기로 생각하며 그 관리를 위해 가사

마음과 정력을 강그리 쏟아붓고있는 그, 그러나 자기는 휴식일이라 해서 가정일에만 매달려 프락포르 생각은 감감 잊고있지 않았는가. 그러고도 먼길에서 돌아와 다리쉽도 못하고 차고로 나가는 남편을 고깝게 여기고... 방금전 길가집들을 지나오며 아무런 근심없이 저녁을 보내는 그들을 부러워하던 자신이 돌이켜져 순녀는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

순녀는 자기가 프락포르를 몰고있지만 아직 당이 기대하는 그런 운전수가 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느끼었다.

순녀는 생활의 하루하루 자옥자옥을 높은 책임성과 성실성으로 새기리라 마음다지며 남편의 일손을 거들었다.

얼마 오래지 않아 일이 끝났다.

운복은 마른걸레로 손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순녀에게 말을 건넸다.

《꽃방석을 오늘도 빨았소?》

《예.》

《앞으로는 좀 더 오래 뒀다가 빨도록 하지.》

《뭐 그렇게.》 하고 대답하려던 순녀는 남편의 그 말뒤에 프락포르관리를 더 잘하여 단한번의 고장도 없도록 하자는 의미가 느껴져 입을 다물어버렸다.

《자 성진이가 기다릴텐데 손은 집에 가서 씻지.》

《예!》

순녀는 남편과 나란히 집을 향해 걸었다.

향긋하고 신선한 여름밤 대기가 폐장깊이로 스며들었다.

밤하늘에서는 별들이 웃고있었다.

## 사람마다 무병장수 노래하네

장윤길

봄빛이 푸르러 강산은 설레이고  
수령님 품속에 사람마다 무병장수 노래하네  
아 따사로운 어버이 그 사랑  
인민의 기쁨으로 꽃피는 내 나라  
  
생활이 즐겁고 근심걱정 없어지니  
누구나 희망에 넘치여 60 청춘 노래하네

아 끝없는 어버이 그 사랑  
주체의 락원으로 꽃피는 내 나라  
  
인민의 건강을 법으로 보살피는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그 어디에 있으랴  
아 은혜론 어버이 그 사랑  
천만년 노래하세 충성으로 보답하세

# 사회적문제의 예리성은 단편소설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

김홍섭

사회적문제의 예리성은 사실주의문학의 본성의 발현이며 우리 소설문학의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요구이다.

사실주의문학은 사회생활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정당하게 반영하는것을 기본특징으로 하고있다. 객관적사실의 요구에 대한 이런 정확한 반영으로 하여 바로 그 문학을 사실주의문학이라고 하는것이다.

예리한 사회적문제는 생활에서 나서는 본질적 문제이며 그 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서 절실하게 나서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사실주의문학은 사회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외면할수 없으며 마땅히 예리한 사회적문제를 정면에서 다루어야 한다.

모름지기 사실주의소설은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민의 념원을 절절하게 반영함으로써 사회여론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성공한 소설들은 사회적문제를 이리저리하게 반영함으로써 당대사회에 복무하여왔다.

우리의 소설문학은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절실하게 나서는 사회적문제를 날카롭게 제기하고 정당하게 밝힘으로써 이 분야에서도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의 단편소설문학도 사회적문제의 심오한 반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함으로써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시대와 객관적사회현실의 요구를 기동적으로 민감하게 반영하여 그것을 작품의 문제성으로 심화시키고 그 해결으로 인민대중을 지향시키고있는 여기에 우리 단편소설의 영예로운 사명과 전투적위력이 있다.

단편소설에서 사회적문제의 예리성은 이와 같이 사실주의문학의 본성과 우리 소설문학의 사명의 요구이다.

그것은 또한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철학적깊이가 있는 단편소설의 창작은 시대적 요구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철학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전변을 이룩하고있는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은 매우 높으며 문학과 예술에 대한 그들의 요구성은 날을 따라 강화되고있다. 철학적깊이문제는 특히 단편소설문학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문제이다.

주체적문제이론은 문학작품에서 철학적깊이란 종자의 철학적무게,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사회적문제의 예리성,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있는 분

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통하여 보장되는 창작과정의 총체를 말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사회적문제의 예리성이 단편소설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게 되는것은 철학적깊이의 본성과 관련되어있다.

문학작품에서 철학적깊이는 생활의 본질을 예술적형상으로 일반화하는데서 생기는것이다. 그런데 생활의 본질의 깊이있는 예술적일반화는 작품에서 얼마나 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하고 그를 얼마나 깊이있게 밝혔는가 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작품에서 제기한 문제가 예리하면 그만큼 내용의 심오성이 보장되고 또한 생활의 본질을 그만큼 깊이 보여주고 밝히게 될것이며 그 정도에 따라 독자들에게 주는 감화력도 커질것이다.

독자들은 소설에서 제기한 사회적문제를 자신의 사업과 생활에 비추어 깊이 감수하며 그 문제에 대하여 심각히 사색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적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하는 그 자체가 가장 절실한 생활의 본질적문제를 독자들에게 안겨주고있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생활의 본질에 깊이 파고들어 그것을 옹계 그리지 않고서는 사회적문제를 정당하게 보여줄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문제를 예리하게 보여주었다는것은 생활의 본질에 깊이 들어가 그를 일반화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철학적깊이는 생활의 본질의 예술적일반화에서 생기는것이므로 시대적으로 절실한 사회적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함으로써 생활의 본질을 드러내고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는 거기에서 철학성이 보장되는것이다.

단편소설에서 사회적문제의 예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가들이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현실적으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성숙된 문제들을 똑바로 쥐여야 한다.

그래야 인민들의 생활에서 절실하게 나서는 사회적문제를 포착할수 있고 사회여론을 옹계 작품에 반영할수 있으며 인민의 념원과 시대적지향을 진실하게 밝혀낼수 있을것이다.

단편소설 《다시 본 모습》(《조선문학》 1980년. 6호 설진기)은 바로 사회적문제의 예리성으로 하여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고있는 작품이다.

3대혁명이 심화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다그쳐질수록 당정책을 진심으로 받들고 말로나 가식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속있게 일하는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문제로 될수 있다.

소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 《결

치레가 아니라 실속있게 일하여야 한다》는 사회적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하고있다.

단편소설 《생활과 신념》(《조선문학》 1981. 4호 김원복)은 당일군들은 사람들에게 신념을 안겨주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회적문제를 절절하게 제기하고있다.

단편소설 《맑은 시내》(《조선문학》 1981. 5호 전홍식)는 교원의 마음은 언제나 맑은 시내물처럼 깨끗해야 한다는 문제를 내세우고있다.

일생을 바쳐 조국의 앞날을 가꾸는 교원의 량심에 관한 사회적문제는 그것이 다만 교원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니다.

혁명임무수행에서 량심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모든 일군들의 사업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심각한 사회적문제인것이다.

오늘 우리 단편소설문학의 주요특징의 하나는 작품에서 제기하는 사회적문제성이 명백하고 예리하다는데 있다. 이것은 우리 단편소설문학의 전투성과 발전정도를 보여주는것이기도 하다.

우리 단편소설작가들이 사회적문제를 더욱 예리하게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정책에 민감하고 당의 정책적요구를 옹계 사회적문제성으로 구현하여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당 정책에는 생활이 제기하고 인민들이 절실히 념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그대로 반영되어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성숙된 문제들이 항상 구체적으로 제기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는 문제, 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절실하게 나서는 문제를 똑바로 쥐어야 한다. 당이 절박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분야에서 사회적문제를 포착하여야 그것이 단순한 어느 개인의 운명문제나 지엽적인 문제로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로 될수 있으며 수백만 근로자들속에서 보편성이 있는 사회적문제로 될수 있는것이다.

그렇다고 사회적문제성은 사회주의현실주제에서만 찾을수 있는것이 아니다. 조국통일주제에서도 오늘 수많은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있으며 혁명전통 주제는 더 말할것도 없고 조국해방전쟁주제나 민주건설시기 혁명투쟁을 반영한 작품들에서도 현대성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절실하게 나서는 사회적문제를 얼마든지 제기할수 있을것이다.

단편소설 《덕흥나그네》(《조선문학》 1981. 5호 정창운)의 주인공이 《당신은 국가물자를 가지고 더 <선심>을 쓰지 마오. 한번 꼭 말해주고싶었소. 죽는 사람이 하는 소리니 귀담아들소.》라고 《나》에게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한말에 담긴 사회적 문제성은 정전직후의 이야기이나 결코 그 시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오늘에 와서도

심각한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문제성인것이다.

생활속에서 포착된 심오하고 의의있는 사회적문제성은 형상으로 예리화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모든 예술작품은 다 사람들의 생활을 그려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65페이지)

강연제강이나 시사평론에서와는 달리 단편소설에서의 사회적문제성은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통하여 심화되어야 하며 사회적문제를 안고있는 생활을 그려줌으로써 제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주인공의 대사나 작가의 주정토로 사회적문제성을 《첨가》하는 식으로 해서는 그것이 작품의 구체적인 산 형상으로 예리하게 제기할수 없으며 따라서 그런 문제는 응당한 감화력을 가질수 없다.

단편소설의 사회적문제성은 형상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그러자면 생활을 통하여 날카롭게 제기되어야 한다. 그래야 소설에서 내세우는 사회적문제성, 문학작품의 문제성으로 될수 있으며 그것이 형상의 힘으로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던지게 되는것이다.

《다시 본 모습》은 현실적의의가 있는 사회적문제를 김찬식과 리영달, 실장 등의 인물성격과 그들의 생활을 통하여 날카롭게 제기하고있다.

영달은 옷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며 겉으로 보기에는 성의있게 일하고 빈틈이 없으며 흠잡을데도 없다. 그러나 그에게는 창조성과 적극성이 없고 혁신과 전진이 없으며 겉으로는 미끈하나 실속이 없다. 영달은 밤늦게까지 일하는것 같으나 실은 처녀들과 룡담이나 하고있으며 실장보고 더 늦게까지 일하겠다고 말하고는 그와 헤어지자 15분도 못되어 퇴근하고만다.

영달이가 한 열처리로 설계에는 지나친 안전치가 설정되어있으며 그 설계는 이미 있던 설계의 규격을 좀 크게 한데 불과하다. 엄밀히 따지면 모작인데도 그는 기한을 앞당겼다고 대견해한다. 영달의 능란한 처세술로 하여 사업이나 생활을 파고 들지 않는 사람은 흔히 실장처럼 그에게 넘어가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김찬식은 영달이처럼 미끈하게 주체희서를 세우지 않으나 대담하게 명백하게 세우며 창조적으로 실속있게 주인공에게 일한다. 찬식은 자동측정설계를 실정에 맞게 공기식이 아니라 전기식으로 고치며 주체형의 기사답게 언제나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상론하며 집에서도 모형을 만들어 놓고 탐구를 계속한다.

그러기에 찬식은 설계실의 자기자리를 가끔 비울수밖에 없는것이다. 찬식의 정신세계와 생활을 파고들지 않는 실장은 처음 그를 옹계 리해할수 없었다.

소설은 김찬식의 참된 모습을 다시 보게 된 실



장의 내면세계를 이렇게 쓰고있다.

《(…일은 꼬물만큼 하고 큰 떡을 입에 넣으려는 약삭바른 사람, 구미가 없는채하면서 군침을 흘리는 교활한 사람보다 량심적으로 일하고 평가를 바라지 않는 정직한 사람, 가식이 없이 제몫을 차지하려는 솔직한 사람이 몇갑절 몇십갑절 더 똑똑하고 우월하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당을 받들어 진심으로 충성하는 사람, 말과 걸치레가 아니라 실속있는 행동으로 충성하는 사람이라 할것이다.》

우리는 이 단편을 읽으면서 짝막한 생활의 한 토막이야기이나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주위사람들의 생활에 대하여 다시 보게 되며 찬식이나 영달이와 같은 사람들을 다시 찾아보게 된다.

혁명과업수행에서나 생활에서 결발림이나 하고 무탈하게 지나면서 그럭저럭 좋은 평가나 받으며 지나가는 사람이 주위에는 없는가 돌아보게 된다. 그런가 하면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워 찬식이처럼 실속있게 주인답게 일하는 동무들을 옮겨 보았는가 하고 자기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도 된다.

그리고 자신도 로쇠와 침체를 불사르고 찬식이처럼 정열적으로 실속있게 일하리라 마음을 다지게도 된다. 영달이나 찬식의 생활이 던져주는 사회적문제성으로 하여 자신이나 주위세계를 다시 보게 하며 사색케 하고 연구케 하는 바로 여기에 이 단편소설의 철학적깊이가 있는것이다.

사회적문제성은 이와 같이 생활형상으로 보여 주고 예리화되어야 커다란 감화력을 가질수 있는 것이다.

단편소설의 사회적문제의 예리성은 또한 그의 형태적특성에 맞게 보장되어야 한다.

단편소설은 작은 용적으로 하여 간결성을 특징으로 하고있으며 주제도 단일하다. 그러므로 단편소설에서 사회적문제성은 단편소설이 가지고있는 이러한 형태적특성에 맞게 제기되어야 할것이다.

단편소설에서는 중, 장편소설처럼 복잡하게 여러 문제를 제기할수 없으며 하나의 예리한 사회적문제를 깊이있게 내세워야 할것이다. 마치 날카로운 창으로 한모를 깊이 박듯이 그렇게 사회적문제를 단일하게 그리고 심오하게 제기하고 선명하게 형상하여야 할것이다.

형태적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요란하게 큰 문제나 많은 문제를 제기하면 단편의 그릇에서 소화할수 없을것이며 창작의도는 알수 있으나 형상화되지 못하여 오히려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할것이다.

단편소설 《그들의 교훈》(《조선문학》 1981. 1호 리화)은 탁아소에 탄을 공급해주지 않아 보육원들이 자체로 나르게 되는것과 소금야적기 벨트가 끊어졌을 때 창고장이 없는데 주인공인 생산

지도원 리영택이 경비원에게 말하여 부속을 가져다 기계를 돌리게 한 두 일화를 이야기줄거리로 하여 결함과의 원칙적투쟁문제와 일군들의 사업작풍상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하고있다.

소설은 창고장이 없다고 기계를 세우고 노동자들을 등짐으로 소금을 져나르게 하는 일을 보고도 그것을 무관심하게 대하며 융화하고 넘어가는 그런 관점과 타협하는것이 옳은가 아니면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강한 극성속에서 사회적문제성으로 전형화하고있다.

단편다운 간결한 인간관계속에서 하나의 문제를 예리화하고 격에 어울리게 다루면서도 심각한 양상으로 형상을 더욱 돋구고있다.

어린이나 노동자에 대한, 말하자면 인간에 대하여 주체적관점이 서있지 않는 사상상 병집을 보고도 《원만하게 세련되게》 행동하자고만 리영택에게 타이르던 김원섭과장은 로쇠한 자기의 생활관, 인생관을 재검토하고 큰 교훈을 찾게 된다.

단편소설 《강한 바람》(《조선문학》 1981. 2호 김삼복)은 생활이 그대로 행복인 3대혁명소조원 유영이의 단란한 가정생활과 강한 바람속에서 팽상모판을 지키기 위한 투쟁장면을 선명히 대조시켜 하나의 이야기줄거리로 엮어가면서 사회적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하고있다.

행복만을 아는 새세대들에게 평온한 생활이 아니라 격류하는 생활속에 참된 행복이 있으며 부드러운 바람이 아니라 바람세찬 투쟁속에 삶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것을 가리켜주며 자기에게 차려진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투쟁하였는가를 똑똑히 깨우쳐주는것은 의의깊은 사회적문제성으로 될수 있다.

소설은 이런 사회적문제를 밝고 억센 양상속에서 단편의 용량에 맞게 아담하게 제기하고 흥미있는 하나의 이야기줄거리를 통해 밝히고있으며 강한 바람을 이겨내는 싸움속에서 행복을 찾는 유영이의 생활묘사를 통해 그것을 격에 어울리게 선명하게 형상해내고있다.

단편소설은 가장 전투적이고 기동적인 소설형태이다. 그러므로 단편소설에서는 그의 우월성에 맞게 현실생활에서 나서는 사회적문제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제때에 근로자들에게 생활의 진리와 교훈을 깨쳐주어야 할것이다.

현실에서 널리 보편화된 사회적문제뿐만아니라 방금 제기되고있으나 앞으로 큰 사회적문제성으로 될수 있는것도 작가적안목으로 예리하게 포착하고 형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단편소설 작가들은 자기 작품을 통하여 사회적문제를 더욱 예리하게 제기함으로써 단편소설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고 인민대중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할것이다.

# 그 한송이 꽃이 되고저

윤영탁

꽃이라면

설한풍 몰아치는속에  
봄빛을 고스란히 담고 핀  
백두산의 만병초같이

샘물이라면

외진골에 소리없이 솟아 흐르면서도  
푸른 숲을 가꾸어놓은  
심산의 샘물같이

남모르는곳에서

남몰래 심장을 끓이면서도  
그대들은 수놓았구나  
그리고 값높은 삶을

누구나 스스럼없이

즐거이 따르노라  
우리 시대가 가꾸어놓은 아름다운 꽃들  
말없이 빛나는 모습들이여

평범한 나날

평범한 일터에 있어도  
삶을 어떻게 빛내야 하는가를  
그대들 심장이 가리켜주었구나

혁명선렬들이

피로써 열어놓은 그 길우에  
락원의 거리가 솟아  
보폭을 울리며 우리 걸을 때

아, 하늘은 저리도 푸른데

안고 사는 행복은 이리도 큰데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심장을 불태우는 만사람들앞에

가리켜주었구나

그대들 발걸음이  
우리 시대앞에서 자기 존재를  
어떻게 빛내며 걸어야 하는가를

포연이 뒤덮이는

사선의 언덕에만 위훈이 있지 않고

명예를 바라는 위훈속에  
영생하는 삶이 있지 않다는것을

산촌의 포전에서

한알의 열매를 가꾸어도  
수수한 기대앞에서  
하나의 나사못을 죄여도

수령님 바라시는 그 한길우에

뜨거운 진정을 쏟아부을 때  
우리 존재가 보석처럼 빛난다는것을  
그대들 삶은 가리켜주었구나

아 화려하기를 바래여

피운 꽃이 아니어도  
빛나기를 바래여  
수놓은 위훈이 아니어도

조국이 가는 길에

그리고 큰걸음 보태었구나  
시대가 가꾸는 화원에  
그리고 값높은 열매를 바쳤구나

따르노라 숨은 영웅들이여

사람들 흔히 다루던 그 쇠물을 부으면서도  
들길에서 스쳐지나던 한포기 풀을 가꾸면서도  
그리고 높은 충성의 봉우리에  
삶을 엮은 사람들이여

정녕 빛나게 산다는것이 무엇인가를

그대들 삶이 우리에게 가리켜주었나니  
나도 그대들 걷는 길에 발걸음 맞춘다  
나도 그대들 심장에 맥박을 합친다

아 수령님 가꾸어주신

우리 시대 충성의 화원에  
영원히 피여 만발하는  
그 한송이 꽃이 되고저

아, 그 한송이 꽃으로 피고저...

# 강철이 흐른다

주광남

아득히 뻗어간 콘베아우에  
뻗건 강편들이 춤을 추는가  
운전공처녀의 기쁨에 실려  
떠미는듯 이끄는듯  
굽이쳐가는 철의 흐름

만족하시여  
그 흐름 따라 걸으시던 수령님  
불강편 뻗어나오는 로라우  
철충계에 오르시여라

새로 꾸려진 이 일터가 보고싶으시여  
늘어나는 강철톤수가 중하시여  
그토록 하많은 나라일을 미루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별건 강편을 바라보시는 수령님

순간  
다급한 운전공의 마을  
미끄러져가던 강편은 멈춰서고  
처녀는 유리벽운전실에 황망히 일어서고  
아 이런 순간엔 어떻게 할 것인가  
무더운 여름날 열풍이 흐르는곳에  
오신것만도 가슴 뜨거운데  
수령님 가까이 뜨거운것을 몰아가랴  
안타까움에 끓는 마음  
머리수건 벗어내려 그러쥐고

처녀는 유리벽에 다가서는데  
그 마음 헤아리신듯  
인자하게 웃으시는 수령님  
동무들이 뿜는 강편이 보고싶어 왔다고  
더우면 뭐라느냐고  
손을 드시여 가리키신다  
-운전공동무 어서 내미시오

산뜻한 운전실  
해빛밝은 자동화일터에 앉혀주시고  
수령님께서는 뜨거운 열풍앞에 서시니  
감격에 북받치는 걱정인양  
세차게 뻗어나가는 불강편의 흐름이여

아 쇠물빛을 받으시며  
두손을 허리에 얹으신 수령님  
기쁘시여 환하게 웃으시고  
운전공은 어깨를 들먹이며 조종단추 누르고  
불줄기는 땅을 구르며 파도쳐가고...

감격의 열풍속에 강철이 흐른다  
위대한 수령님의 기쁨을 싣고  
아버이사람에 목메이는  
운전공의 마음, 인민의 마음 싣고  
수령님 가리키신 새 전망의 넓은 길에  
강철의 불줄기 굽이쳐간다!

# 아동시문학에서 운률을 더 잘 살리자

문재홍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에서는 시에 운률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고 가르쳐주었다.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은 서정성이다.

서정성은 운률에 의해서도 담보된다.

시는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골라 썼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률에 맞추어 노래하지 않는다면 시로서의 자기의 가치를 잃고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추상적이며 무미건조한 구호를 라렬할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산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구체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화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4페이지)

아동시문학에서도 우리 시대 아동들의 정신세계를 심오하게 형상하기 위해서는 시의 정서를 적극 살리는것과 동시에 그 운률적표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시에서 운률은 정서와 땔레야 땔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시에 운률이 있어야 정서가 있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며 정서가 없는 시는 레외없이 참다운 의미에서의 운률이라는것이 없다. 따라서 운률은 어른들을 위한 시에서나 아동들을 위한 시에서나 시의 존재자체를 규정하는 생명과 같은 의의를 가지는 형식의 한계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면 운률이란 무엇인가. 운률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글에 나타나는 음악적인 틀조라고 말할수 있다.

운률은 시의 풍격을 높이고 호흡을 순탄하게 하며 감정의 파동을 일으키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률은 시어의 의미, 성음의 고저, 강약, 음절수의 수량관계 등의 다양한 변화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운률을 나타내는 시어의 의미나 성음의 고저, 강약, 음절수의 수량관계는 단순히 그것으로 《재간》을 부려 이루어지는것은 물론 아니다.

운률을 나타내는 요소들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또 반드시 생활에서 받은 시인의 뜨거운 정서적 체험이 깔려있다. 때문에 노래하려는 시적대상에 대한시인의 뜨거운 서정적체험, 정서가 없이는 아무리 재간을 부려도 참다운 운률을 살릴수 없

을것은 뻔하다. 시에서 운률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시행을 잘 조직해야 한다. 왜냐 하면 시행은 운률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시인이 체험한 서정은 곧 하나하나의 시행을 통하여 표현된다.

시적감정의 강렬성, 순탄한 호흡과 표현적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행의 길이는 다양하게 될수 있다. 그러나 시행은 소설문장에서처럼 길게 내리엮을수는 없을것이다.

시는 바로 생활에서 받은 시인의 사상감정을 노래하는것만큼 틀조가 생기기마련이다.

시행은 감정정서의 흐름을 타고 조직되어야 한다. 즉 강약과 고저의 관계가 명백히 구분되고 자연스러워야 하며 숨결에 거슬림이 없고 류창하게 랑송할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대체로 랑송하기에 류창한 시는 운률이 째이고 서정이 풍만하다.

아동시문학에서의 시행조직은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은 그 심리적특성으로부터 변화무쌍한 생활을 좋아하고 행동성이 강하다. 그들의 사고와 활동은 단순하고 빠르며 호흡속도도 어른들의 그것보다 훨씬 빠르다.

이로부터 아동시문학창작에서는 어른들의 시에서보다 시행 및 시련의 길이를 짧게 끊어주고 틀동성을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운률을 살리기 위한 다른 하나의 방도는 음절수의 규칙적 혹은 불규칙적인 배열과 조직이다.

음절수들의 배열과 조직은 시의 사상정서적내용에 맞게 그리고 호흡률에도 맞게 조직되어야 한다.

아동시에서 흔히 조직되는 음절수는 3.3, 3.4, 6.5, 7.5, 8.5조이다. 특히 동요는 노래로 불이울것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똑같은 음절수들의 규칙적인 배열로 이루어진다.

번개치는 불꽃으로  
그림 그리는  
우리우리 형님은  
용접공화가

방울방울 쇠물 녹여  
한참 그리면  
하늘높이 쇠탑들이

우뚝 솟지요

.....

(동요 《용접공형님의 그림》 《아동문학》 1980년 4호)

이 동요에는 8음절(번개치는 불꽃으로)과 5음절 (그림 그리는)이 하나의 운률단위로 되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있다.

우리 집에 들었던 인민군대아저씨  
나에게 주소를 적어주고 갔어요  
모내기 끝내고 떠나가면서  
최우등생 되는 날 편지하라 했어요

초소에 날아드는 기쁜 소식은  
훈련할 때 장수힘 셈숫게 한다고  
환한 웃음 짓고 떠난 아저씨에게  
나는 오늘 약속한 편지를 써요  
.....

(동시 《약속편지》 《아동문학》 1980년 4호)  
보는바와 같이 이 동시는 규칙적인 음조로 되어 있지 않지만 운률이 살아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호흡에 맞는 (동일한 간격을 두고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음수물로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아동시창작에서 운률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운률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표현수법들을 효과 있게 써야 한다.

운률을 살리는 수법에는 반복법, 대구법, 자리바꿈법, 생략 및 함축법, 대조법, 감탄법, 내세움법 등 여러가지가 있다.

여기서 기본은 반복법이다.

왜냐 하면 운률이란 동일한 음이나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음절군의 일정한 반복에 의하여 조성되기 때문이다.

반복법은 문장이나 단어를 되풀이하는 수법으로써 시의 음악성을 살리며 노래하려는 사상을 강조해준다.

반복법에는 머리반복, 이음반복, 꼬리반복 등이 있다. 반복은 시행, 시련, 음절군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동요에서는 꼬리반복을 많이 쓴다.

달아말아 밝은 달아  
만경봉에 솟은 달아  
우리우리 마음속에  
동실 솟은 보름달아

원수님 어린시절  
무지개 잡으시던

만경봉의 소나무를  
비껴안고 웃는 달아

(동요 《만경봉의 달노래》 《아동문학》 1980년 4호)

여기서는 《달아》를 시행의 끝마다 반복함으로써 노래하려는 사상을 강조해줄뿐아니라 음악적인 룰조도 살리고있다.

.....

진달래 진달래가 참말 고와요  
조선을 사랑하라 속삭여주는  
만경대 봄언덕의 붉은 진달래

만병초 만병초가 참말 고와요  
항일의 자욱자욱 잊지 말라고  
백두산 흰눈속에 싱싱 피는 꽃  
.....

(동요 《언제나 마음속에 피여있는 꽃》 《아동문학》 1980년 4호)

여기서는 련마다 첫 시행의 소리마디수를 반복하여 시의 운률을 살리고있다.

다음으로 대구법은 서로 련관을 가진 두가지 현상을 짝을 맞추어 나란히 놓는 방법으로써 운률조성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수법이다.

가까운 바다엔  
작은 배로 가구요  
머나먼 바다엔  
큰 배 타고 가지요  
.....  
나가면서 잡구요  
들어오며 잡으니  
작은 배도 큰 배도  
만선기가 펄펄

(동요 《바다가을》 《아동문학》 1980년 4호)

보는바와 같이 여기서는 《가까운 바다엔 작은 배로 가구요》와 《머나먼 바다엔 큰 배 타고 가지요》가 호상 대구를 이루었고 다음 련에서는 《나가면서 잡구요》와 《들어오며 잡으니》가 대구를 이루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이것은 이 동요의 운률을 조화롭게 살려나가면서 음악성을 부여하는데 훌륭히 복무하고있다.

자리바꿈법은 말그대로 문장구조의 위치를 바꾸어 즉 뒤에 가야 할것을 앞에 내놓거나 앞에 놓아야 할것을 뒤에 가져가는 식으로 그 자리를 바꾸는수법으로써 역시 노래하려는 사상을 창조해주는것은 물론 시의 호소성과 전투성을 높여준다

다.

생략과 함축은 시행의 산문화를 방지하고 간결성을 보장하며 시의 운율적탄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여운을 남기면서 독자들을 오래동안 생각에 잠기게 한다.

특히 생략과 함축은 시어가 단절되고 끊어지면 서도 되돌아와 잇닿아지며 어구와 어구 사이, 행과 행 사이에서는 넘은 공간이 생기여 그 공간가운데 일정한 지적감정이 충만되게 함으로써 결국 시의 전체 감정을 보다 풍부하게 전달해준다.

아동시의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한 소리나 모양을 본딤 말들을 많이 찾아쓰는것이 필요하다. 소리나 모양을 본딤 말들은 직관적이고 생동하며 매우 음악적이기때문에 아동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는 수법이다.

때문에 이런 말들은 동요, 동시의 운율을 살리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하늘높이 등등  
유람선이 날아와요  
야영소가 들썩  
꽃배 마중 들썩

.....

(동요 《날아오는 꽃배》 《아동문학》 1980년 4호)

《등등》, 《들썩》, 《들썩》은 소리를 본딤 말로써 표현의 생동성과 직관성을 높여줄뿐아니라 음악적 룰조를 높여주고있다.

이상에서 아동시문학창작에서 운율을 살리기 위한 몇가지 실천적문제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우리는 아동시문학창작에서 운율을 살리기 위한 효과적인 수법들과 수단들을 적극 탐구리용함으로써 서정성이 높은 동요, 동시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아동시문학의 화원을 활짝 꽃피워나아가야 할것이다.

## 내 고향의 새노래 안고 가오

윤기찬

고개 넘어 또 고개  
심산의 내 고향  
오는이 가는이  
꽃놀이 즐기며  
노래도 흥이더니  
꽃내가에 발전소 솟아난 모습  
아니보고 어이 가라  
  
조약돌 하얗게 내굴리며  
츠렁바위도 깎아안고  
한세월 덧없이 흐르던 물소리  
언제우에 넘쳐흘러  
천길 뛰어넘는 폭포소리로 울리오

옥구슬 내려쫓는 물보라속에  
천만가락 튕기는 물노래속에  
호수가에 칠색무지개 곱게 비끼니  
해종일 피어나는 그 황홀경  
금강의 팔담에 비기고싶다오

그리도 아름다운 무지개

낮이면 령 넘어 흘러간 금선을 타고  
기대마다 불꽃보라로 날리고  
밤이면 산촌마을의 창가에  
은하수 되어 내린다오  
  
예전엔  
아낙네들의 빨래질소리에  
치녀들의 약초 씻는 노래 어울려 좋더니  
오늘엔  
에서 흐르는 전류따라  
기계소리 웃음소리 더욱 높아  
이 산촌의 행복의 노래  
이 물결우에 실렸다오

어허  
산 좋고 물도 좋은곳에  
수령님 뜻으로 강산을 다듬어  
창조의 절경 솟았으니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물소리 즐기며  
내 고향의 새노래 안고 가오

## 원고료 200 원

강경애

단편소설 《원고료 200원》은 1980년대에 발표된 작품이다.

소설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가난한 조선사람들이 겪은 눈물겨운 생활의 일단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하여 당대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 그리고 부패성을 예리하게 폭로하였으며 착취받고 억압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이 소설에서 사회제제한성과 함께 자신의 사상적, 세계관적 제한성으로 하여 주인공들을 투쟁하는 인간으로 참다운 삶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인간들로 형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소설은 독자들에게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하는 데서 일정하게 도움을 주리라고 믿는다.

## (편집부)

사랑하는 동생 7야.

지난번 너의 편지는 반갑게 받아읽었다. 그리고 약해졌던 너의 몸도 다소 튼튼해짐을 알았다. 기쁘다. 무어니무어니 해도 건강밖에 더 있느냐.

7야, 졸업기를 앞둔 너는 기쁨보다도 괴롭이 앞서고, 희망보다도 낙망을 하게 된다고? 오냐, 네 환경이 그러하니만큼 응당 그러하리라. 그러나 너는 그 괴롭과 낙망 가운데서 단연히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쁘고 희망에 불타는 새로운 길을 발견해야 한다.

7야, 네가 물은바 이 언니의 연애편과 내지 결혼편은 간단하게 문장으로 표현할만한 지식이 아직도 나는 부족하구나. 그러니 나는 요새 내가 지내는 생활전부와 그 생활로부터 일어나는 나의 감정전부를 아무 꾸밈줄 모르는 서투른 문장으로 적어놓더이니 현명한 너는 거기서 버릴것은 버리고 취하여주렴.

7야, 내가 요새 ㄷ신문에 장편소설을 연재하여 원고료로 이백여원을 받은것은 너도 잘 알지. 그것이 내 일생을 통하여 처음으로 많이 가져보는 돈이구나. 그러니 내 머리는 갑자기 활기를 얻어 온갖 공상을 다하게 되두구나.

7야, 너도 짐작하는지 모르겠다마는! 어려서부터 순조롭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고 또 커서까지

도 순경에 처하지 못한 나는 그나마 쥐꼬리만큼 배운 이 지식까지도 우리 형부의 덕이었니라. 그러니 어려서부터 명절 새옷을 한벌 색들여 못입어봤으며 먹는것이란 언제나 조밥이었구나.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도 맘대로 학용품을 어디 써보았겠니. 학기초마다 책을 못사서 울고 울다가는 겨우 남의 낡은 책을 얻어가졌으며 종지와 붓이 없어 나의 조고만 가슴은 그 몇번이나 달막거리였는지 모른다.

7야, 나는 아직도 잘 기억한다. 내가 학교 일년급때 일이다. 래일처럼 학기시험을 치겠는데는 종이 붓이 없구나.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나는 옆동무의것을 훔치었다가 선생님한테 얼마나 꾸지람을 받았겠니, 그러구 애들한테서는 애! 도적년 도적년 하는 놀림을 얼마나 받았겠니. 더구나 선생님은 그 큰눈을 부라리면서 놀시간에도 나가 놀지 못하게 하고 벌을 세우지 않았겠니. 나는 두손을 벌리고 유리창결에 우두커니 서있었구나. 동무들은 운동장에서 눈사람을 만들어놓고 손벽을 치며 좋아하지 않았겠니. 나는 벌을 서면서도 눈사람의 그 입과 그 눈이 우스워서 킁하고 웃다가 또 울다가 하였다.

7야, 어려서는 천진하니까 남의것을 훔칠 생각을 했지만 소위 중학교까지 오게 된 나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러한 맘은 먹지 못하였다. 형부한테서 학비로 오는 돈은 겨우 식비와 월사금밖에는 못물겠더구나. 어떤 때는 월사금도 못물어서 머리를 들고 선생님을 바루 보지 못한적이 많았으며 모르는 학과가 있어도 맘놓고 물어보지를 못했구나. 그러니 나는 자연히 기운이 죽고 바보같이 되더라. 따라서 친한 동무 한사람 가져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외로운 까닭에 하느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으니 나는 밤마다 기숙사강당에 들어가서 목을 놓고 울면서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 괴롭은 없어지지 않고 날마다 달마다 자라만 가두구나. 동무들은 양산을 가진다, 세루치마저고리를 입는다, 털목도리와 자켓트를 찐다, 시계를 가진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것이 우습게 생각되지만 그때는 왜 그리도 부러운지 눈물이 날만큼 부럽두구나. 그 폭신평신했던 털실로 목도리를 찐

는 동무를 보면 나도모르게 그 실을 만져보자는 앞서는것이 눈물이더구나. 녀학교시대가 아니구서는 맛보지 못하는 이 털실의 맛! 어떤 때 남편은 당신은 왜 자케트 하나 짤줄 모루? 하고 쳐다볼 때마다 나는 문득 녀학교시절을 회상하며 동무가 가진 털실을 만지며 짜르르하게 느끼던 그 감정을 다시한번 느끼곤하였다.

「야, 어느 여름인데 래일같이 방학을 하고 고향으로 떠날터인데 동무들은 떠날 준비에 바쁘더구나. 그때는 인조견이 나지 않았을 때이다. 모두가 모시치마적삼을 잠자리날개처럼 가볍게 해입고 흰 양산, 검은 양산을 제각기 사두구나. 그때에 나는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더라. 무엇보다도 양산이 가지고싶어 영 죽겠두구나. 지금은 러염 집부인들도 양산을 가지지만 그때야말로 녀학생이 아니구서는 양산을 못가지는줄로 알았다. 그러니 양산이야말로 무언중에 녀학생을 말해주는 무슨 표인것 같이 생각되었니라. 철없는 내 맘에 양산을 못가지면 고향에도 가고싶지를 앓두구나. 그래서 자꾸 울지만 앓았겠니. 한방에 있는 동무 하나가 이 눈치를 채엿음인지 혹은 나를 놀리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나 대 부러진 낡은 양산 하나를 어데서 갖다주두구나. 나는 그만 기뻐다. 그러나 어쩐지 화끈 달며 냉큼 그 양산을 가질수가 없두구나. 그래서 새침하고 앓았노라니 동무는 킁 웃으며 나가두구나 그 동무가 나가자마자 나는 얼른 양산을 쥐고 버티여보니 하나도 성한곳이 없더라. 그때 나는 무어라 말할수 없는 울분과 슬픔이 목이 막히도록 치받치두구나. 그러나 나는 그 양산을 버리지는 못하였다.

「야, 나는 너무나 판 길로 달아나는듯싶다. 이만하면 나의 과거생활을 너는 짐작할터이지...나의 현재를 말하려니 말하기 싫은 과거까지 들추어놓았다. 그런데 「야, 아까 말한 그 원고료가 오기전에 나는 밤 오래도록 잠을 못이루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가? 하고 생각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선 겨울이니 털외투나 하고 목도리, 구두, 내 앞이가 너무 새가 넓으니 가늘게 금이나 하고 가늘게 금반지나 하고 시계나... 아니 남편이 뭐랄지 모르지. 그래두 뭘 내벌어서 내 해가지는데야. 제가 입이 열이면 무슨 말을 한담, 이번 기회에 못하면 나는 금시계 하나도 못가지게- 눈 딱 감고 한다. 그리고 남편의 양복이나 한벌 해줘야지. 양복이 그 꼴이니. 나는 이렇게 깡그리 생각해두었구나. 그런데 어느날 원고료가 내 손에 쥐여졌구나. 「야, 남편과 나

와는 어쩔줄을 모르게 기뻐했다.

그날밤 나는 유난히 빛나는 등불을 바라보면서 《이 돈으로 뭘 하는것이 좋우?》

남편의 말을 들어보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물었구나. 남편은 묵묵히 앓았다가 혼자 하는 말처럼

《거 참 우리같은 형편에는 돈이 없는것이 오히려 맘 편하거던... 글썄 이왕 생긴것이니 써야지. 우선 제일 급한것이 옹호동무를 입원시키는게지...》

나는 이같이 뜻밖의 말에 앞이 아뜩해지며 아무말도 할수가 없두구나. 그런데 나를 쳐다보는 남편의 얼굴이 금시로 이지러지며 또 눈도 예전 같지 앓두구나.

《그리고 다음으로는 홍식의 부인이지. 이 겨울 동안은 우리가 돌봐야지 어찌겠수?》

나는 이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싶지 앓더라. 그래서 머리를 돌려 저편 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구나. 물론 남편의 동지인 옹호라든지 혹은 같은 친구인 홍식의 부인이라든지 나 역시 불쌍하게 생각하지 앓는바는 아니고 그래서 이 돈이 오기전까지는 우리의 힘 미치는데까지는 도와주고싶은 맘까지 가졌지만 그러나 막상 내 손에 이 백여원이라는 돈을 쥐고나니 그때의 그 생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두구나. 어쩔수 없는 나의 감정이더라. 남편은 대답이 없는 나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약간 거세인 음성으로

《그래 당신은 그 돈을 어떻게 썼으면 좋을; 사실소?》

그 물음에 나는 혀를 깨물고 참았던 눈물이 썸썸 솟아지두구나. 그 순간에 남편이야말로 돌이나 깎아논듯 그렇게도 답답하고 안타깝게 내 눈에 비치여지두구나. 무엇보다도 제가 결혼당시에 있어서도 남들이 다 하는 결혼반지 하나 못해주었고 구두 한켠레 못사주지 앓았겠니. 물론 그것이야 제가 돈이 없어서 그리 한것이니 내가 그만한것은 리해 못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이 생긴 오늘에 그것도 남편이 번것도 아니요 내 손으로 번 돈을 가지고 평생의 원이던 반지나 혹은 구두나를 선선히 해신으라는것이 몇몇한 일이 아니겠니. 그런데 이 어이없는 사람은 그런것은 녀두에도 먹지 앓는 모양이더라. 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지금 신는 구두도 몇해전에 내가 종이염으로 서울 갔을 때 남편의 친구인 김경호가 그의 안해가 신다가 벗어는 구두를 자꾸만 신으라구 하두구나. 내 신발이 오죽



힘했으면 그리했겠니. 그때 나의 불쾌감이란 말할수 없었다. 사람의 맘은 일반이지 낸들 왜 남이 신다 벗어논것을 신고싶겠니. 그러나 내 신발을 굽어볼때는 차마 딱 잘라 거절할수는 없두구나. 그 구두를 둘러보니 구멍난곳은 없더라. 그래서 약간 신고싶은 맘이 있지만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할지 몰라 그 다음으로 남편에게 편지를 했구나. 며칠후에 남편에게서는 승낙의 편지가 왔겠지. 그래서 나는 그 구두를 신게 되지 않았겠니. 그러나 항상 그 구두를 볼 때마다 나는 불쾌한 맘이 사라지지 않더구나. 그런데 오늘밤 새삼스러이 그 구두를 빌어신던 그때의 감정이 목구멍까지 치받치며 참 을수 없이 울음이 터지는구나. 나는 마침내 어린 애같이 입을 벌리고 울지 않았겠니. 남편은 벌써 일어나며 웅소리가 나도록 나의 뺨을 후려치누나. 가뜩이나 울분에 못이겨 울던 나는 악이 있는 대로 쓸어나더구나.

《왜 때려, 날왜 때려!》

나는 달려들지 않았겠니. 남편은 호랑이눈같은 눈을 번쩍이며 채차 달려들더니 나의 머리끄덩이를 치는바람에 등불까지 앵그렁 쟁 하고 깨지더구나. 따라서 온 방안에 석유내가 확 뿜기누나.

《죽여라, 죽여라.》

나는 목이 메여 소리쳤다. 이제야말로 이 사나이와 마지막이다-싶더라. 남편은 씨근덕이며

《응, 너파위는 백번 죽어 싸다. 내 네 맘을 모르는줄 아니. 흥, 돈푼이나 생기기까 남편을 남편같이 안알구. 에이, 치사한년,가라! 그 돈다 가지고 래일 네 집으로 가. 너같은 치사한년과는 내 못살아, 원 여우같은년... 너도 요새 소위 모던걸(현대녀성)이라는 양년이 되고싶은게구나. 아, 일류문인으로서 그리 해야 하는게지. 허허, 난 그런 일류문인의 사내될 자격은 못가졌다. 머리를 지지고 볶고 상관에 밀가루칠을 하구 금시계에 금강석반지에 털외투를 입고 입으로만 아! 무산자여, 하고 부르짖는 그런 문인이 되고싶단말이지. 당장 나가라!》

내 손을 잡아끌어내누나. 나는 문밖으로 쫓겨야겠구나.

「야, 북극의 바람이 얼마나 찬것은 말할수 없다. 내가 여기 온지 4년을 맞이했건만 그날밤같은 그러한 매서운 바람은 맛보지 못하였다. 온 세상이 얼음덩이로 된듯하더구나. 쳐다보기만 해도 눈등이 차오는 달은 중천에 뚜렷한데 매서운 바람길에 가루눈이 썩썩 날리누나. 마치 예리한

칼끝으로 내 피부를 찌르는듯 내 몸에 부딪치는 눈발이 그렇게 따갑구나. 나는 팔짱을 지르고 우두커니 눈우에 서있었다. 그때의 나의 머리란 너무나 많은 생각으로 터질듯하더구나. 어떻게 하나? 나는 이 여러가지 생각중에서 어떤 결정적태도를 취하려고 이렇게 중얼거리며 머리속에 돌아가는 생각을 한가지씩 붙잡아내었다. 제일먼저 내달아오는것이 저 사나이와는 이젠 못사는게다, 금을 쥐도 못사는게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나, 고향으로 가나? 고향... 저년 또 다 살았나, 글썽 그렇지, 며칠 살겠기 저런 해농년 하고 비웃는 고향사람들의 얼굴과 어머니의 안타끼와하는 모양! 나는 흠칫 하였다. 그러면 서울로 가서 어느 신문사나 잡지사애 취직을 해? 종래의 너기자들의 운명을 보아 나 역시 별다른 인간이 못된다는것을 깨닫자 그 말로는 타락할것밖에 없는듯...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나 도꼬로 가서 공부나 좀 해봐. 학비는 무엇이 대구. 내 처지로서는 공부가 아니라 타락공부가 될것 같다. 나는 이러한 결론을 얻을 때? 어쩐지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듯 나는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누가 반가이 맞받아줄 사람이라구는 없는듯하구나. 그나마 호랑이같이 씨근거리며 저 방안에 앉아있을 저 사나이가 아니면 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듯하구나.

「야, 이것이 애정일가? 무엇일가. 나는 그때 또다시 더운 눈물을 푹푹 쏟았다. 동시에 그 호랑이같은 사나이가 넘적넘적 지껄이던 말을 문득 생각하였다. 그리고 홍식의 부인이며 그 어린것이 혈벗은 모양, 또는 뼈만 남은 응호의 얼굴이 무시무시하리만큼 떠오르누나.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떠는 그들모자! 감옥에서 심장병을 얻어가지고 나와서 신음하는 응호! 내 손에 쥐여진 이 백여원... 이것이면 그들을 구할수가 있는것이다. 나는 아직까지 몸이 성하다. 그리고 혈벗지는 않았다. 이우에 무엇을 더 바라는것이 허영 그것이 아니냐! 나는 갑자기 이때까지 어떤 유치한 꿈을 꾸고있었다는것을 확실히 알았다.

「야, 나와 같은 처지에서 금시계, 금반지, 털외투가 무슨 소용이 있는게냐. 그것을 사는 돈으로 동지의 한 생명을 구원할수 있다면 구원하는것이 얼마나 떳떳한 일이나. 더구나 남편의 동지임에랴. 아니 내 동지가 아니냐. 나는 단박에 문앞으로 뛰어갔다.

《여보, 나 잘못했소.》

뒤미처 문이 확 열리두나. 그래서 나는 뛰어들어 남편을 붙들었다. 《여보, 나 잘못했소. 다시는 응.》

목이 메어 울음이 쏟아나왔다. 이 울음은 아까 그 울음과는 아주 차이가 있는 울음이었단것만은 알아다오. 7야,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내 머리를 매만진다.

《당신의 맘을 내 전연히 모르는바는 아니요. 단벌치마에 단벌저고리를 입고있으니... 그러나 벗지는 않았지. 입었지. 무슨 걱정이 있소. 그러나 응호동무라든가 홍식의 부인을 보구려. 그래 우리 손에 돈이 있으면서 동지는 앓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내버려둬야 웬단말이요... 그러기에 환경이 같아야 하는게야, 환경이 나부터라도 그 돈이 생기기전과는 확실히 다르니까.》

남편은 입맛을 다시며 잠잠하다. 그도 나없는 동안에 이리저리 생각해본후의 말이며 그가 그렇게 분풀이를 한것도 내게 함보다도 자기자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쾌한 생각을 제어하고자 함이 있던것을 나는 알수가 있었다. 나는 도리어 대답해지며 가슴에서 뜨거운 불길의 확 일어나더구나.

《여보, 값 험한것으로 우리 옷이나 한벌씩 하고 쌀이나 한말, 나무나 한바리 사구는 그들에게 노나줍시다! 우리는 앞으로 또 벌지 않겠소.》

남편은 와락 나를 끌어안으며

《잘 생각했소!》

7야 네가 지루할줄도 모르고 내 말만 길게 늘어놓았구나. 너는 지금 졸업기를 앞두고 별의별 공상을 다 할줄 안다. 물론 그 공상도 한때는 없지 못할것이니 나는 결코 너의 그 공상을 나무리려고 드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공상에서 한보 뛰어나와서 현실에 착안하여라.

지금 삼남의 리재민은 어떠하냐? 그리운 고향을 등지고 쓸쓸한 이 만주를 향하여 몇만의 군중이 달려오고있지 않느냐. 만주에 와야 누가 그들

**고전시**

에게 옷을 주고 밥을 주더냐. 그러나 행여 고향보다는 나을가 하고 와서는 처자는 료리집에 혹은 부호의 첩으로 빼앗기우고 울고불고 하며 이 넓은 벌을 헤매이지 않느냐, 하필 삼남의 리재민뿐이냐. 요전에 울릉도에서도 수많은 군중이 남부녀대하여 원산에 상륙하지 않았더냐. 하여간 전조선의 빈한한 군중은 하니 전세계의 무산대중은 방금 기아선상에서 헤매고있는것을 너는 아느냐 모르느냐.

7야, 이 간도는 지금 한창 총소리와 칼소리에 전대중이 공포에 떨고있는중이다. 그러니 농민들은 들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였으며 또 산에서 나무를 베이지 못하고 혹시 목숨이나 구해볼가 하여 비교적 안전지대인 통정시와 국자가 같은 도시로 몰려드나 장차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 이곳에서는 개목숨보다도 사람의 목숨이 험하구나.

7야, 너는 지금 상급학교에 가게 되지 못한다고, 혹은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느냐? 너의 그러한 비판이야말로 얼마나 값없는 비판인가를 눈감고 가만히 생각해보아라. 네가 만일 어떠한 기회로 잠시동안 너의 리상하는바가 실현될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잠깐동안이고 너는 또다시 대중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서게 될터이니 너는 그때에는 그만 자살하려느냐.

7야, 너는 책상우에서 배운 그 지식은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이제야말로 실천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식을 얻어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너는 오직 너의 사회적가치를 향상시킴에 힘써야 한다. 이 사회적가치를 떠난 그야말로 교환가치를 향상시킴에만 몰두한다면 너는 락오자요, 패배자이다. 이것은 결코 너를 상품시, 혹은 물건시 하는데서 하는 말이 아니요. 사람이란 인격상 취하는 방면도 이러한 두 방면이 있다는것을 네게 알려주고서 함이다.

## 남포에서 나그네를 보내며

정지상

비 그친 긴 동쪽에  
풀빛 짙은데  
남포에서 그네를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노라

대동강 내리는 물  
언제이면 마를려는고  
리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래거니

# 민족의 이름으로

변홍영

분노한 우리 민족  
성스러운 강토의 이름으로  
네놈을 저주한다  
민족의 원쑤  
전두환

네놈이 과연  
조선의 공기와 물을 마시며  
자랐단말이나  
네놈에게도 이 땅에  
태를 묻은 고향이 있고  
길러준 산천이 있더냐

네놈에게도  
코흘리개시절에  
혹시 뛰어놀던 잔디밭이 있다면  
저주하리라  
네놈의 발길이 닿은것으로 하여  
길가의 잔디도 치욕에 몸을 떨리

네놈에게도  
송아지적시절에  
혹시 함께 자란 친구들이 있다면  
저주하리라  
어릴적 악몽같은 추억으로 하여  
한밤중에도 소스라쳐 깨어나리

네 감히  
신성한 《조국》이란 이름을  
외울수 있느냐  
온 남녘을 동족의 피로 물들이고  
백악관에 기여들어 《보호》를 구걸한  
네놈에게서  
《애국》이란 웬 덕두리나

반만년 유구한 력사로  
민족의 자랑 떨친  
성스러운 이 강토앞에  
네놈의 이름은  
매국노

화약내를 마시며  
황량한 미국의 들판에서  
야수의 이빨을 다스린  
네놈의 이름은  
인간백정

묻노니  
야자수 푸르른 촌락에서  
마을을 불사르며  
피를 맛들인 야수의 본색대로  
네놈은 저 광주땅을  
얼마나 처참한 피바다에 잠겼느냐

통분하다  
네놈이 무한계도로 깔아죽인  
열두살 어린 소년의 마지막 웨침이  
상기도 겨레들의 가슴을 두드리고  
통일된 조선의 미래를 부르며  
민주를 부르짖던 청춘들의 피가  
아직도 광주의 포석도우에 마르지 않았는데

날강도의 칼부림으로  
《대통령》자리를 타고앉아  
온 남녘을 파쑏악법으로 뒤덮고  
오늘도 통일의 열망을 짓밟으며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날뛰고있구나

용서치 않으리라!  
민족의 이름으로  
강토의 이름으로  
네놈을 가차없이  
인민의 심판대우에 끌어내리라

용서치 않으리라!  
력사의 심판을 받고  
송장이 된  
리승만, 박정희놈의 무덤을  
네 스스로 찾아간  
그 길로 네놈을 보내주리라

오, 조선은 영원히  
조선사람의것  
이 신성한 강토에는  
네놈이 똬저도  
물힐 한조각의 땅도 없다

그 더러운 몸뚱아리는  
네놈을 낳고 길들인  
미제송냥이와 함께  
황량한 야수의 들판에서 썩으리라.

# 저 주

조성관

입에 담기조차  
글에 옮기기조차  
역스러워진다  
인피를 쓴 미국놈의 개  
-전 두 환

나는 부끄러워지는구나  
네가 나와 같이  
한 조선사람의 이름을 달고있다는것이  
내가 우리와 같이  
한 강토우에 살고있다는것이

손에 피를 주무르기 위해  
동족의 선지피를 받아내기 위해  
이들을 굶긴 창자에 흥분제를 처먹이고  
줄개들을 살육장에 내몰은 인간백정  
-전 두 환

미쳐날뛰라  
인민의 피로 바꾼  
《대통령》감투 정수리에 올려놓고  
발밑에 타오르는 분화구우에서  
망나니의 마지막 춤으로  
한껏 미쳐날뛰라

사원것이 아니다  
불길은...  
네놈의 흉탄을 받아  
벌린채 굳어진 입가에 땀돌던 노래소리  
못다부른 항쟁의 노래높이  
광주의 아들들은 다시 돌아오리

보이지 않는 손에  
항쟁의 기치높이  
온 남녘을 판가리싸움으로 부르며  
저들이 시작한 일을  
저들이 끝장내기 위해  
그들은 다시 돌아오리

하늘아래 네놈이 숨을곳은 없다  
한가닥 햇빛도 스며들지 않는  
지구의 한끝  
그 어느 장글속에 도망친대도  
기어코 뒤져내리라  
바늘을 찾듯이 살살이 훑으며-

네놈의 걸음걸음앞에선  
길가의 조약돌도  
살찐 그 뒤통수에 총알로 날아박히라  
맑디 맑은 한모금 수정샘물도  
꼭진 그 창자에 들어선  
독즙으로 변하라

하늘에 치달은 인민의 저주로  
네놈의 목숨은 순간마다 문드러지리니  
네가 이미 송장으로 변했다 해도  
용서치 않으리 용서치 않으리  
우리 만약 한순간이라도  
네놈에 대한 저주를 멈춘다면  
우리자신을 저주하리라

꽃도 피지 말라  
새들도 우짖지 말라  
그 하늘아래에서  
《유신》의 그림자조차 깡그리 없애기전에는  
강물처럼 흐르는 인민의 피값을 받아  
네놈에게 천벌죽엄 만벌죽엄을 주기전에는  
삭일수 없는 아, 삭일수 없는  
이 분노, 이 저주...

세월이 흘러  
남녘땅에도 행복한 날이 오면  
그 많은 불행과 고통을 잊을수도 있으리  
삭일수도 있으리  
그러나 너의 이름만은 지워지지 않으리  
인민의 저주와 함께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리.

## 기 수

## 1

5월의 따사로운 해발이 누리를 밝게 비치고 있다. 내과 의사 송성호는 정동쪽을 향한 자기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뜰 앞의 정원에 눈길을 보내었다.

안마당과의 사이에 쌓은 나지막한 벽돌담장 이쪽의 인조산에는 어느새 벌써 참대가 무성하게 자랐고 들성들성 심어놓은 소나무도 햇순이 퍼그나 자랐으며 그 아래 놓은 꺼밋꺼밋한 풀에는 이끼가 돌아 제법 윤취를 느끼게 한다. 그 앞턱으로 일구어놓은 좁다란 화단에도 백일홍이며 봉선화와 맨 드라마미같은 꽃모들이 소담하게 자라오르고 있다.

소아과를 맡아보는 안해 진옥이가 간호원 무임이를 데리고 꽃밭의 김을 맨다. 담장너머 자기네 살림집은 빈집인양 조용하고 대문채에 달린 약국에서만 달그락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 약제사가 약장을 정리하는 눈치다. 환자들이 오기전인 이무렵이면 지방도시의 중심에 있는 이 개인병원도 언제나 조용하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가며 꽃모를 쉬기도 하고 호미질을 해나가는 안해도 간호원도 모두 밝은 얼굴들이다. 풀내가 풍길듯만실은 산뜻한 위생복에 흰모자까지 쓴 안해의 몸놀림은 날렵하고 상냥스럽다. 40대에 들어서서야 미간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한 혈색 좋은 그의 얼굴에서는 오늘의 처지에 대한 자족감이 력력히 느껴진다.

《참, 옛날 화가들은 4군자를 즐겨 그렸노라 하잖았어요? 우리도 어디서 대화만 한그루 구해왔으면...》

호미질에 여념이 없던 안해는 문득 허리를 펴고 일어서면서 그를 쳐다보고 일깨우듯 말한다. 언젠가 꽃가꾸는 이야기를 하기에 그런 말을 했더니 그 생각이 난 모양이다. 란초와 국화와 참대는 이미 가꿔오고있으니 대화만 구해오면 4군자를 갖추지 않느냐는 소리다. 심분 그런 꿈을 꾸볼만도 한 노릇이다. 생활에는 얼마간 여유가 생겼으니 이제는 좀 《정서적으로》 《윤취있게》 살아보자는 그런 속심이라.

성호는 그 마음을 짐작하면서도 대꾸는 하지 않고 하관은 아직 빠른편인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서울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학생들이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 도란에 빠진 민생문제를 물어보려고 《계엄령을 철회하라!》, 《미군은 나가라!》, 《전두환은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들고 결사적인 싸움을 하고있다. 20대의 젊은

## 박효준

나이에, 서울에서 대학에 다닐 때는 자기네도 정의감이 강한 열혈청년들이었다. 학원사찰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반대하여 그리고 미군의 철거와 나아가서는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자고 리승만역도를 상대로 과감하게 맞서 싸웠다. 그자신은 말할것 없고 안해인 진옥이도 그때는 얼마나 열렬했던가?

민생고의 심도와 사회의 부조리 그리고 집권자들의 전횡을 두고보면 오늘은 그때보다 몇곱 더하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불의를 보고 그렇게도 펄펄 뛰던 안해가 오늘은 이 조그마한 개인병원의 담장안에 파묻혀 꽃나무나 가꾸는데 정신을 빼앗기다니? 성호는 놀랍도록 달라진 안해를 두고, 그리고 자기자신의 생활을 두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 부부는 원래 이 지방도시에서 멀지 않은 농촌에서 자랐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성호는 서울로 올라가서 대학에 들어갔고 이태후에는 진옥이도 그 대학에 들어왔었다.

향학열에 불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무슨 뚜렷한 포부나 신념이 있는것은 물론 아니였었다. 그러므로 학창시절에도 공부밖에 모르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면서도 정의감은 강했다.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투쟁에 떨쳐나섰을 때는 다같이 의분을 느끼면서 대렬에 뛰어들어 리승만역도를 꺼꾸러뜨리기까지 했다. 대학을 졸업할 말년에는 진옥이와 결혼했고 졸업후에는 이 지방도시로 와서 일했다.

그뒤로 아이들이 태어났고 생활에도 일정한 여유가 생겼으며 이제는 그럭저럭 개인병원까지 차려놓았다. 아들과 딸은 벌써 대학에 다니고있다. 오늘의 생활에 대한 안해의 자기만족, 평범한 보통인간으로서야 심분 그럴수도 있지 않은가? 하고 보면 4.19때 그들과 같이 싸운 청년들은 아마도 수십만에 달할것이다.

그런데 이 격동적인 시각에 자신은 어떻게 처신하고있는가? 옳고 그른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관무식쟁이라든가, 하루하루의 호구에 목이 매여 앞뒤를 생각해볼 경황조차 없는 그런 최하층은 물론 아니다. 고등교육까지 받은 사람으로서 사물 현상이나 사회현상에 대해 제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있는 지성인이다. 그런데도 자기는 배달부가 가져다주는 신문장이나 뒤져보면서 어떤 보도나 기사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수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이없게 여기거나 서글프게 생각할 따름이다. 그 어떤 강한 충격을 받는

다든가 의문을 느끼는 경우조차도 적다. 왜 이렇게 무관심하고 미적지근하며 뻥뻥해졌는가?

성호는 속으로 자책을 금치 못했다.

매화를 구해보고 싶어하던 안해는 그가 받자를 안해주자 야속한듯 잠시는 시무룩해있더니 다시 활기를 띠고 란초화분을 화단앞에 내다놓는다.

《여보 당신은 요즘 신문 한번 읽는것을 못보겠구려.》

성호는 좀 계면쩍은 생각이 드는대로 한마디 뚱기쳤다. 안해는 못들은것처럼 응대가 없다. 무임이와 주고받던 말이 끊어진것을 보면 분명 알아는 들었는데 못들은척하는것이다.

《남들처럼 행동은 못하더라도 지성인으로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있는지 관심이야 돌려알게 아니요?》

《아니 원, 오늘은 이상하군요. 아침부터 꿈같은 이야기만 하고계시니...》

안해는 어처구니없다는듯 쳐다보며 웃는다. 성호는 자신이 도리어 무안을 당한것 같아 얼굴이 화끈했다.

《내가 꿈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당신이 그렇게 밖에는 리해를 못하는지 좌우간 이젠 기가막힌 일이요...》

성호는 진정 어이가 없어 혼자말이라도 하듯 중얼거리면서 신문장을 들고 일어섰다. 안해는 다시 또 꽃모를 가꾸고있다.

《지금 서울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결사전을 벌리고있소. 신문의 주먹같은 특호활자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두드리는데 내가 꿈같은 소리를 한다?》

성호는 경멸하는 눈길을 안해에게 보내고 진찰실로 들어오고말았다.

《그게 다 한때의 열기지요...》

등뒤에서 비꼬는듯한 안해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나 성호는 더 상대조차 하고싶지 않아 진찰실 창문까지 닫고말았다.

## 2

제엄령의 철폐와 전두환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울학생들의 투쟁은 날을 따라 더욱 치열하게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었고 료원의 불길마냥 타번져 여기 지방도시에까지 미쳐왔다.

아직 어리다고도 볼수 있는 딸 헤림의 말에 의하면 그가 다니는 《Γ》대학에서도 일부 학과들은 수강을 거부할 기세까지 보이고있다고 한다. 아들 창근이는 전혀 모르쇠로 시치미를 따고있으나 속으로는 어딘가 안착되지 못하고있다. 이제는 점잖아질 나이도 되었지만 워낙 의젓하고 공부에 독실한 창근이다. 그러던 그가 요새는 무엇때문인지 분주히 바깥에 나다니며 동무들을 여러 명씩 달고 집에 와 수군수군하다가는 함께 밀려가버린다. 눈치를 보면 창근이는 철없는 제 누이처럼 아직 내안에서 불을 보듯 이야기나 읊기는

게 아니라 타번지는 그 불길속에 깊이 뛰어들고 있는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인 안해를 몹시 당황하게 만들고있다. 안해는 아들에게 그 일의 앞장에 나설가봐 안달이나 닥달을 한다. 성호도 그 심정이 리해되어 못본체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성호 역시 그런 의젓한 아들을 둔게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뒤일이 켜져서였다. 4.19때 일을 미루어 보면 투쟁은 승리했지만 그뒤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내었던가?

어느날 저녁이었다. 성호는 좀 일찌기 일을 끝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해는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은 아들을 기다려 대청에서 서성거리고 있어 성호는 딸 헤림이와 단둘이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아들 창근이와는 달리 자기를 만나기만 하면 무엇이건 이야기를 하고싶어하던 헤림이 마저 술갈질을 해가면서도 책에 정신을 팔렸고보니 성호는 저으기 무료했다. 더구나 하루종일 진찰실에만 붙박혀있어 세상돌아가는 형편은 신문을 통해서나 얼마간 짐작하는 성호에게는 딸 헤림이까지 입을 봉하고보니 세상일이 궁금하기 그지없었다.

《야야, 오빠네랑 다른 대학들은 들고 일어나서 싸운다는 기사가 나왔던데 너희 대학만은 그렇게 없두구나.》

딸의 기색을 보아가며 술갈질을 하던 성호는 심상한체하면서도 슬쩍 놓쳐보았다. 헤림은 못들은것처럼 그냥 글줄에만 정신이 팔렸더니 이윽해서야 책을 내려놓으면서 그를 쳐다본다.

《너희 대학에서도 슬렁슬렁한다더니만 이제 아직 소식이 없니?》

성호는 재차 뚱기쳐봤다.

《거야 두고봐야지요 뭐, 싸움이 하루이틀에 끝나겠다고 조급하게 서두를가요?》

헤림은 비로소 한마디 응하는데 다른 대학들이 도리어 서투르다는 투다. 성호는 시뚛해서 그러는 딸의 모양이 어쭙잖아 꼬집듯해보았다.

《무고보아야 안다. 밤낮 버리기만 하다가 세월이 가겠구나》

《아유, 아버지도 참 한심하다니까. 전교학생들이 한꺼번에 다 들고일어나야지 오빠네처럼 일어나는 학과는 일어나고 한편에서는 강의실에 태평스레 앉아 강의를 받고 그래서야 신문에나 나고 소문이나 내다 말았지 실제 보람이 나타나요?...》

헤림은 단박 항의조로 대들듯한다. 이제보면 헤림이도 이번 사태를 강건너 불보듯 남의 이야기를 읊기거나 하는데 그치는게 아니라 그도 역시 제 오빠처럼 싸움의 소용돌이속에 뛰어들고 있는것이 틀림없었다. 류행식 단발머리에 아직 숨털이 보시시한 그의 복스러운 얼굴에는 진정 안타까와하는 빛이 어렸다. 쌍까풀진 눈꼬리가 약간 들릴사하고 입술이 얇은 편인 딸의 모색을 얼없이 바라보는 성호의 뇌리에는 문득 지나간 학

창시절의 안해가 상기되었다. 딸애는 안해와 달라 눈등에 있는 조그만 수두자국이 더 인상적이지만 어쨌든 그 오돌한 성미까지가 짧은 시절의 제 어미를 신통하게 닮았다. 저런 나이때는 제 어미 진옥이도 얼마나 당돌하고 깔끔했던가?

4.19를 앞둔 어느날이었었다. 졸업반에 올라간 성호는 당시 대학신문 편집부일을 협조하고있었는데 공부를 끝마치고 나오다가 편집부에 들렀더니 편집기자가 노트장을 뜯어서 투고한 한 원고를 그의 앞에 내미는것이였다. 무심히 원고를 받아 읽던 성호는 깜짝 놀랐다. 글씨나 문장은 서투르지만 내용이 놀랄만큼 당돌한때문이였다. 그것은 너무도 인상적이어서 성호는 지금도 그 구절들을 가끔 상기하고는 한다.

《…학원사찰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키려는 시도는 악마에게 선행을 설교하는것이나 같다…》

그러니까 말로 따질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당국으로 하여금 학원사찰을 그만두지 않을수 없게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였다. 론조가 지내 날카롭고 파격한데도 있어 발표하기가 좀 어려울것 같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버리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성호는 필자인 진옥이를 만나기로 하였다. 진옥이는 곧 편집부로 왔는데 지금 헤림이 같은 단발머리의 애 어린 처녀였다. 그때 졸업반에 올라갔던 성호에게는 이제 2학년이 되었노라는 그가 손아래 누이처럼 가룩하게 여겨졌다.

《원고의 내용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비유나 표현들이 더러 있군요. 그런것을 고치자고 불렀습니다. 우리 대학 신문도 역시 검열이라는 판문을 거쳐야 나가니까…》

성호는 알아듣게 말하면서 악마라는 표현 대신에 다른 말을 바꿔넣자고 했다. 어린 처녀인만큼 상급생인 그가 깨우쳐주면 두말없이 응하리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진옥은 마치 그제 무슨 소리냐고 묻기라도 하는듯한 눈으로 그를 말끄러미 쳐다보기만 할뿐 응하려는 기척이 아니였다. 성호는 그가 아직 출판물의 검열이라는것이 얼마나 까다롭고 무지막지하게 진행되고있는가 하는것을 모르리라는 생각으로 다시 부연하였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모르겠지만 검열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 표현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나 따지는지 모르오. 그런만큼 지나친 표현들은 아예 빼버려야지 잘못해서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기만 하면 기사는 말할것 없고 신문전체가 나간다는 못나간다 하는 소동이 일어날뿐 아니라 편집책임자나 글을 쓴 사람까지 불러다니야만 한단말이요…》

성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였다.

《만일 그렇게 당국의 비위에 맞추자면야 애당초에 신문을 낼 필요도 없지 않아요?우리가 신문

을 내는것은 하고싶은 말을 하자고 내는것이라고 보는데…》

진옥이 되알지게 말하면서 편집부가 그런 립장이라면 원고를 도로 돌려달라고 했다. 성호는 무안으로 하여 숯불을 뒤집어쓴것 같았으나 다시는 아무 말도 더할수 없었다. 진옥은 표현 하나도 고치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그 원고는 각각 되고말았지만 지금의 헤림이도 그런 제 어미의 오돌찬 기질을 그대로 닮고있는듯했다.

《이제 두고보세요. 아직은 조용한것 같지만 우리 대학은 아마 한사람도 빠짐없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격렬하게 싸울게야요. 그러자니까 아무래도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할게 안아요?》

헤림은 다시 또 장담을 한다. 약간 토라질사해있는 그의 상기된 얼굴에 단단한 결심이 어려있다. 성호는 미쁘게 여기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돌이켜보면 자기네도 역시 4.19때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체험했던것이다.

헤림이가 다시 또 고개를 쳐든 때였다. 밖에서 갑자기 안해의 노기띤 목소리가 울렸다.

《헤림아! 너는 빨리 먹고 상이나 물릴게지 어제 그제 대학에 들어간게 무얼 아노라고 징당징당 사설질이나?》

아들 창근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것으로 하여 안절부절 못하던 안해는 대청에서 남편과 딸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딸까지가 그런 위험한 일에 발을 잠그고있지나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자 그 만에야 화가 더럭 난 모양이다. 이야기를 하던 헤림은 말할것 없고 남편인 성호까지도 안해의 그 서슬에 찔끔해져버렸다. 아버지와 딸은 다 같이 좀 계면쩍은 기분으로 순갈질만 하였다. 이때 대청에서는 다시 또 안해의 노기띤 목소리가 울렸다.

《애야, 너는 어찌자고 끼니까지 건너면서 그렇게 와-와- 밀려다니기만 하느냐? 너희들이 그런다고 당장 무슨 변이라도 날것 같아 그러니? 사람이란 이런 때 처신을 잘해야 한다. … 우리도 너희때는 그렇게 덤비기도 해보았다만 일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희생자가 나게 돼있어…》

말투를 미루어보면 아들 창근이가 돌아온 모양이나 저쪽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사랑방 미단이 여는 소리가 나는데 갇을념도 없을 눈치다. 성호는 쓴웃음이 나갔다. 아들의 의젓한 모습을 보는것이 기쁜 반면에 등이 달아하는 안해가 가소롭게 여겨져서다.

잠시후에야 사랑방 미단이가 다시 열리는것 같더니 창근이가 대청으로 올라서는 기척이 났다

《애야, 글썽 나도 너를 아예 딱 막자고는 하지 않는다. 남들이 모두다 투쟁으로 나서면 너도 빠지지 말아야지. 그저 앞장에만 서지 말라는게다. 남의 눈에 들어나지 않게만 하면 뒤탈이 없으니까…》

어조를 바꾸어 너그럽게 타이르는 안해의 목소리에는 다함없는 애무가 어려있다. 성호는 기가 막혔다. 안해는 아이들을 바른길로 이끌대신에 처세술을 설교하고있는데 성호에게도 그 심정이 리해된때문이었다.

대청에서는 툭툭하고 손으로 옷을 터는 소리가 난다. 안해가 아들을 잡아세우고 그러는것이라. 아들은 어미에게 몸을 말긴듯 잠시 잠잠하더니 오래잖아 미닫이가 드욱하고 열린다.

성호는 반사적으로 그쪽을 쳐다보았다. 넓은 이마에 눈썹이 짙고 얼굴이 희멀쭙한 아들 창근이가 불쑥 문턱을 넘어선다. 입을 굳게 다문 기상이 어딘가 근엄하고 심각한것 같기도 하다. 그와 눈길이 마주치자 창근은 곧 외면을 해버리며 방 한쪽에 가서 점잖게 앉는다. 성호는 그의 기색을 슬쩍슬쩍 살펴보았으나 창근은 마치 아버지인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듯 외면한채 침묵을 지키고있다.

부엌쪽 작은 미닫이가 열리더니 정성스레 바리개를 썩은 창근의 더운 밥그릇이 들어오고 뒤따라 안해가 국대접을 행주에 받쳐들고 분주히 들어온다.

《어서 나왔아서 먹어라. 암만 바빠도 끼니때야 집에 들어와서 먹고 나갈 일이지 지금이 몇시기에 이제 들어오느냐?》

아들의 밥바리와 국대접이며 찬그릇들을 하나하나 옮겨놓아주면서 타이르는 안해는 무던히 다심하다. 그러나 창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듯 그냥 무뎌죽히 앉아만 있다.

《애야 어서 먹으라니 그러는구나. 이 애야 너는 저리 비켜앉으려무나. 오빠는 점심도 건넜는데 오죽 시장하겠니? 다 자란 계집애가 그런 눈치도 모르면서 쫓쫓...》

안해는 아들에게 극진한 나머지 딸을 옥박지르면서 눈을 흘긴다. 아들에 대한 지나친 애무가 애꿎은 딸에게는 역증으로 바뀌어 떨어진것이다. 그러잖아도 늘 어머니에게서 지청구만 들어오던 헤림은 그만에야 밥술갈을 놓고 물러앉아버리고 만다. 아까부터 편잔을 받은 그는 입이 삐죽하니 나왔다.

《애야, 너는 마자 먹고 나왔으려무나. 어머니도 참 그 애는 왜 자꾸 옥박지르면서 그래요. 기도 못퍼게...》

창근이는 그제야 누이를 감싸는 일방 제 어미를 나무라기까지 하며 상앞으로 나앉는다. 성호도 술을 놓고 나앉고 밥상에서는 창근이만 혼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하였으나 안해는 그래도 술을 들 생각은 안하고 아들의 기백만 지켜보고 앉았다.

성호는 용렬해진 안해가 보기 민망하였으나 어엿하게 자란 아들을 보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래잖아 상앞에서 물러난 창근이는 어떻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자리에서 냉큼 일어선다.

《너는 또 어디 나가겠느냐?》

성호는 궁금하여 불러세웠다.

《네. 어디 좀 다녀와야 하겠습니까.》

의젓이 대답한다.

《서울에서는 기세들이 좀 숙어드는듯한데 너희네는 앞으로 어떻게 할참이냐?》

《서울은 좀 숙어지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대학 대표들이 모였었는데 서울 사태를 두고 모두 걱정들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 중심이니깐요. ...하지만 서울이 어떻게 되든 저희들은 끝까지 밀고나갈 결심입니다. 저희들이 잘 싸운다면 서울도 다시 타오를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창근은 자못 심각한 모양 잠간 생각을 가다듬어 말한다.

《저희들은 노동자들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이 합세해줄것을 바라고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되겠는지...》

창근은 더욱 무거워진 얼굴로 말끝을 마무리지 못한채 서있더니 미닫이를 열고 나간다. 그러자 어안이 병병해져 아들을 쳐다보고있던 안해가 황황히 그의 뒤를 따라나간다.

《애야, 나도 이제는 더 말리지는 않겠다만 제발 조심을 해라. 남들이 모두 들고일어나는 판이니가 모르노라 하는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디...》

《어머니, 정말이지 그런 말은 마세요. 어머니도 젊었을 때는 우리처럼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 어머니가 오늘은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진정 우리 자식들의 안녕을 바라신다면 저희들이 싸우는 마당으로 나와주세요. 만일 지난날에 싸우던 모든 사람들이 다 펼쳐나와 싸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다시는 어머니들이 마음을 조이지 않고 살아갈수 있을거야요.》

애원하듯, 간청하듯하는 안해의 말을 누르고 아들의 굵은 목소리가 의젓하게 울린다. 성호는 자신도 뒤통수를 얻어맞은듯만싶었다. 아들 창근의 말은 제 어미에게 한것이자 동시에 아버지인 그에게도 한것이라싶었다. 그도 역시 지난날에는 전횡을 반대해 싸웠었고 오늘도 위정자들에게 적지 않은 불만은 품고있으면서도 개인병원이라는 좁다란 울타리안에 파묻혀 신문장이나 들쳐보면서 학생들이 끝까지 잘 싸워주었으면 하고 원심이나 쓰는데 불과했다. 창근이네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시민들의 지원을 기다리고있는데 집안에서 원심이나 쓰고있어서야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4.19때는 리승만 의 허수아비를 불태우기도 하고 놈의 동상모가지에 줄을 매여 끌고다니기도 했었다. 그러던 사람들이 오늘은 남의 싸움에 막연한 기대나 가지면서 원심이나 쓰다니... 지난날



의 그 혈기, 그 기백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호소하는듯 힐난하는듯만싶은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못박히어 사라지지 않았다.

뚜벅뚜벅하고 대지를 힘차게 구르면서 나가는 아들의 구두뒤축소리가 나고 잠시후에는 황급하게 뒤따르는 안해의 신발끄는 소리가 난다. 안해는 아직도 싸움으로 나가는 아들을 잡지 못해 속을 태우고있다. 성호는 창근의 힘찬 구두뒤축이 자기 량심을 마구 탕탕 구르는것만 같아 더 앓아있을수가 없었다.

《아야, 너는 또 나가보지 않아도 되니?》

성호는 헤림이께 이르면서 급히 바깥으로 나섰다.

### 3

밖에서 왁자하니 떠드는것 같은 목소리에 잠이 깬듯싶었다. 성호는 누운채로 귀를 기울여보았으나 다시는 아무 기척도 없고 대청벽에 걸린 시계는 웅글게 네시를 친다. 그는 그제야 아이들생각이 불쑥 나면서 불안감이 치밀어왔다. 학생들의 투쟁이 더욱 확대되면서 로동자들과 일반 시민들도 합세하여나섰고 경찰놈들은 최루탄까지 쏘아대면서 더욱 류혈적인 탄압으로 나섰다.

창근이도 헤림이도 어제아침에 나간 뒤로 하루종일 돌아오지 않았다. 어제 저녁을 먹고난 성호는 기다리다 못하여 아이들을 찾아 나갔었다. 거리는 봉기자들과 경찰놈들과의 싸움으로 하여 긴장되고 상엄한 분위기에 싸여있었다. 급작스레 전변되어가는 정치정세와 담을 쌓듯하고 자기 병원의 좁은 울타리안에서 환자들과만 씨름을 하던 성호는 지나간 학창시절이 회상되면서 저도 몰래 흥분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진찰실에만 불박혀 오밀꼬밀하던 자신이 부끄럽고 죄스럽기도 했다. 그는 자기 아이들이 있음직한 대렬을 찾아 두어시간이나 몰아다녔으나 종내 만나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원, 아침에 나가 여직 들어오지 않는 애들을 만나지도 않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저것들이 어제는 총까지 쏘아대며 날치는데...》

눈이 까매서 그를 기다리고있던 안해는 그만에야 울상이 되어 꾸념을 했다. 성호자신도 몹시마음이 불안했다. 그의 눈앞에도 완전무장을 한 경찰놈들이 살기등등하여 날치던 모양이 선하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놈들의 곤봉과 총탄에 얻어맞아 쓰러졌으며 잡혀갔던가? 그런 판국에서 자기 아이들만은 무사하리라고는 결코 바랄수 없었다.

그들 부부는 무시로 일어나는 함성과 총성에 귀를 기울여보기도 하고 골목바깥까지 나가보기도 했다. 기다리기에 지친 성호는 마침내(설마하니 어떠랴) 하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못본채 안해보다 먼저 잠자리에 들고만것이었다.

그는 안해의 잠자리를 돌아보았다. 이불이 퍼

져 있기에 자고있겠거니만 여겼었는데 안해는 없다.

《아차, 이거 무슨 일이 생긴게로군...》

그는 가슴이 철렁하여 상반신을 벌떡 일으키었다. 잠옷을 바퀴입으려는데 밖에서 또 사람들의 고르쥔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잠옷바람으로 급히 미닫이를 열고 대청에 나섰다. 병원으로 나가는 일각의 바깥에서 분명 사람들이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성급히 신을 꿰고 나가 일각문을 연 성호는 눈이 등그래졌다. 먼저 나온 안해가 몇명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싱갱이를 하고있는데 저편 대기실 프락에는 두 학생이 창턱에 의지하여 비스듬히 쓰러져있기때문이였다.

《선생님, 우리 동무들이 경찰놈들한테 얻어맞아 몹시 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빨리 좀 봐주시시오. 시간이 급합니다...》

한 학생이 나서면서 간청을 한다. 학생들은 부상자가 급해 엎고 달려왔는데 안해는 《원장》인 자기가 외과의는 아닌때문에 보아줄수 없노라고 거절을 하여 싱갱이가 생긴 눈치다.

《어서 진찰실로 들어갑시다.》

성호는 선풍 진찰실로 들어가 불을 켜다. 안해는 뒤일이 두려워서 완곡하게 치료를 거절한 모양이나 성호는 뒤일을 생각할 경황이 없이 의사의 량심으로 우선 사람부터 살려놓고 보아야 한 다싶어서였다.

그는 자기 아이들에 대한 걱정도, 안해생각도 잊고 분주히 서둘렀다. 그의 머리속에는 다만 밤사이에 싸움이 매우 치렬하게 벌어진게로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악전고투하고있을 봉기자들에 대한 동정과 무지막지한 경찰놈들에 대한 분격이 차올랐다.

부상자는 상처를 여러군데 입고있었다. 곤봉에 되게 얻어맞은듯 골이 터져 피가 많이 흘렸고 귀바퀴도 절반이나 찢어졌으며 어깨와 잔등에도 심한 타박상을 입고있었다.

《상처가 매우 심하요. 입원실이 없으니 여기 대기실에서라도 안정을 하요.》

처치를 하고난 성호는 진심으로 권했다. 그러나 부상자들은 펄쩍 뛰며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닙니다. 우리 동무들은 지금도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이만 상처가 무어라고...》

성호는 그만 목이 짹 메였다. 머리와 얼굴을 보기 딱하도록 봉대로 치냈으며 겨우 앞이나 가려보게 남긴 눈등도 주먹같이 부어오른 학생들이 다. 여느 사람이라면 운신조차 못하고 신음하겠는데...

정의앞에서는, 진리를 위해서는 추호도 물려서지 않은 그 마음, 무엇이 이들의 심장을 이리도 강의하게 해주었는가? 성호는 더 아무 말도 못하고 송엄한 마음으로 그들을 마주보기만 했다. 부

상자들은 동무들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총총히 바깥으로 나간다. 진찰실에는 성호만이 혼자 남았다. 그는 자신이 뼈저리게 뉘우쳐졌다. 애절한 학생들은 빈사지경에 처해서도 죽음을 안가리고 싸움터로 달려가는데 세상물정에는 막히는게 없다고 자처하는 소위 지성인인 자기는 과연 무엇을 하고있는가 싶다. 잔등에 찬물을 끼여엎은듯만싶었다. 더구나 4.19때는 누구보다 못치않은 열혈청년으로서 과감하게 싸웠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그는 자신에 대한 혐오까지 느꼈다. 그는 심각한 자책속에 잠겨있는데 일각문이 열리더니 안해가 행주치마바람으로 나왔다. 요즈음 아이들걱정으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반쪽이 된 얼굴이 새파랗게 부르러있다.

《당신은 대체 어떻게 하자는거예요? 자기 애들한테는 암만 나가보라고 등을 떠밀어도 끄떡 않더니 다른 부상자를 치료에는 서슴없이 나서는데 이제는 병원도 아이들도 아예 쫓개치고말테예요? 똑똑히 말씀이나 하고 처신하세요.》

부상자들을 보아준것으로 하여 위탈이 있을가 봐 하는 소리인데 그 노여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자식들과 남편인 자기를 위해 자나깨나 마음을 쓰고 있다는것을 아는 성호는 그의 마음을 녹жат혀볼양으로 못들은척하고 참았다. 안해는 자기 기색을 놓칠세라 살피더니 다시 말한다.

《당신도 아마 투쟁이 지나가지만 하면 저것들이 얼마나 류혈적인 폭압으로 나서리라 하는것쯤 모르지야 않을테지요? 5.16때와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놈들의 복수전은 말할것도 없어요. 4.19때나 6.3투쟁이 지난 뒤에들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냈어요? 그런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당신이 아이들을 견제할 대신 그 불길에 뛰어들다니...》

책상모서리를 두손으로 힘주어 짚고 행악이라도 하듯 접어들던 안해는 안면근육이 쉴룩쉴룩하더니 마침내 눈귀에 이슬까지 맺힌다. 방금 처치한 중상자들이 다시 싸움터로 뛰쳐나가는것을 보고 그러잖아도 자책이 심하던 성호였다. 그도 더는 못들은것처럼 하고 지나쳐버릴수 없었다.

《당신이 것처럼 절박하게 생각하는것만큼 오늘을 나도 좀 이야기를 합시다.》

성호는 진찰의자를 책상앞에 당겨놓고 앉으면서 말했다. 안해도 진찰대에 걸터앉은게 오늘은 결판을 보자하는 눈치다.

《당신은 마치 창근이네 이번 싸움도 며칠간 그러다가 말려니만 여기고있고 그러면 또 저놈들의 폭압이 뒤따르려니만 여기는것 같은데 나는 그게 바로 잘못되었다고 본단말이요. 어제 창근이도 말했지만 저 애네 학생들뿐아니라 우리 남조선전체 주민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 힘을 합친다고 생각해보오. 나와 당신을 포함해서 8.15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청년학생들은 말할것없고 폭압과 전횡을 반대하여 싸운 사람들을 다 합친

다면 몇십, 몇백만만 되겠소? 모르기는 하지만 천만을 헤아리고도 남을게란말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 싸운다고만 생각해보오. 우리가 왜 그전처럼 울근불근하다가만 말겠소?》

성호는 따지는듯한 눈으로 안해를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안해도 무엇인가 가책은 되는 모양 아무말도 하지 않고 진중히 듣고있다. 성호는 다시 계속하였다.

《그런데 지난날에는 과감하게 싸웠다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외로웠던 지난날의 싸움을 한때의 혈기로 여기거나 혹은 전혀 잊어버리고 아무런 희망도 보람도 의의도 없는 그날그날의 호구에만 매달려버리고보니 4.19, 6.3 등등 의로운 학생청년들은 매번 피만 흘리고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하는 자유와 민주는 쟁취하지 못했다는 말이요.》

《.....》

《왜 한꺼번에 일어나서 힘을 합쳐 싸울 생각을 않고 이 알량한 병원에만 정신이 팔리는가말이요? 정치적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오늘의 형편에서 이 병원을 이제 확고한 우리것이라고 믿을수 있소? 우리가 만일 놈들의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린다고만 생각해보오.》

오래동안 생각해온 일이였고 그래서 량심의 가책도 받았으며 더구나 요즈음은 안해로 하여 더욱 더한 고충을 겪은 일이였었다. 그것을 꺼리질것없이 터놓고나니 안해의 반응여하에는 상관없이 속이 후련하였다. 그래서 성호는 자리에서 움쭉 일어나 방안을 두뼉뼉 거닐기 시작했다. 안해도 자못 심각한 모양 까딱 움직이지 않고 그런듯이 앉아만 있다. 4.19때는 그렇게도 열렬하고 견결하던 안해다. 그도 역시 사람인데 어쩌서 생각이 없겠는가? 그러나 그는 안해를 더 부추겨야 하였다.

《나도 물론 오늘의 이 생활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싶지는 않소. 그것은 매우 힘들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는 할 필요도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한가지만은 명백하오. 창근이는 일반시민들의 협조를 요구하였소. 지난날에 싸웠다는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의 투쟁을 강건너 불보듯하고 있겠소?》

성호는 이렇게 말하면서 창에 가 걸음을 멈추었다. 안해에게서 그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가 해서였다. 그러나 안해는 석고로 빚어놓기라도 한 모양 까딱 움직이지 않고 앉은채 반응이 없다.

날은 벌써 활짝 밝았고 간호원 무임이와 약제사가 나와 뜰앞과 정원을 거두기 시작한다. 안해는 그냥 말없이 일어서서더니만 안으로 들어가버리고만다. 수척해진 얼굴이 해쓱하게 질린것을 미루어보면 아직도 자기 깁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양이다. 성호는 어쩐지 마음이 서글퍼졌다.

이 알량한 병원을 꾸리노라고 저 안해와 맞잡고 얼마나 아글타글 애를 썼던가? 그런데 다 꾸려놓고보니 안해는 이 병원에 정신을 빼앗기여 젊었을 때의 그 정의감도 의협심도 깡그리 잃어버렸다. 지금의 안해에게는 생활에 대한 아무런 지향도, 포부도, 리념도 흔적조차 없는듯만싶었다. 사람이 그렇게 타락할바에야 병원을 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성호는 어쩐지 얻은것보다도 잃은것이 더 많은듯만싶은 마음의 공허를 메꿀수 없었다.

길길이 자라온 인조산의 참대밭에는 참대순이 무수히 뽕죽뽕죽 대숲고있다. 성호는 기운차게 돌아나는 그 참대순들이 자기 심장의 한복판을 꿰고 솟는것 같은 아픔을 느끼었다. 참대뿌리를 얻어다 옮길 때까지만 해도 자기네 부부는 마음이 옥돌같이 깨끗하지 않았었던가? 그런데 그때 심은 참대는 날을 따하 더욱 푸르싱싱해지기만 하는데 안해의 가슴에는 어째서 구름이 덮였는가?

성호는 한걸음 물러서서 안해를 리해해보려고도 하였다. 하고보면 그들은 오늘의 이 생활을 마련하느라 참기 어려운 마음고통도 겪었으며 육체적으로도 무척 힘이 들었다. 정치적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나 행복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다는것은 론리적으로 너무나 명백하다. 하지만 그 정치적안정을 얻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위해서는 힘에 겨운 싸움을 해야 하며 자칫 잘못되는 날에는 정의와 진리란 말은 한갓 꿈으로만 남게 되고 알뜰한 병원과 귀중한 생명만 빼앗기게 되는것이다. 4.19가 그랬고 6.3 봉기가 그것을 웅변으로 증명했었다. 사실은 그래서 그도 역시 창근이네 대렬에는 나서지 못하고있었다.

마음이 무거워진 성호는 이윽하여서야 안으로 들어갔다.

## 4

거리가 온통 피로 물들고있다. 성호네 병원에도 수많은 부상자가 들이밀렸다. 성호는 일반환자들을 안해에게 맡기듯하고 그는 전적으로 부상자를 치료하는데만 달라붙었다. 안해도 이제는 부상자에 대한 치료를 막자고는 못하고있다. 중상자들의 상처를 꿰매고 수술칼을 놀리는 그의 눈길앞에는 문득문득 자기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고는 했다

(이 애들도 심하게 다치지나 않았는지-)

봉기자들이 우세를 차지하고있던 어제까지만 해도 설마하니 어쩌랴 하고 대범하게 여겼었는데 형세가 급변하여 거리가 봉기자들의 피로 물들게되자 성호도 걱정이 자심했다. 성호는 불안감이 치밀 때마다 안해가 있는 소아과로 눈길을 보내었다. 그때마다 묘하게도 안해와 눈이 마주치곤 했다. 몹시 마음을 죄고있다는게 눈에 띄게 알렸

다. 자기 마음이 이처럼 불안할 때에야 어미의 마음이 오죽하랴?

그는 자식들로 하여 속이 까맣게 타들면서도 남편인 자기 눈이 무서워 감히 찾아가보겠다는 말을 못하고있을것이였다. 그 생각을 하면 성호는 공연히 안해를 욕박아준것이나 아닌가 하는 후회가 앞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감정도 안해의 눈치도 모르는것처럼 하고 치료에만 전념하였다. 대기실에는 미처 처치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 신음하고있고 처치를 받은 학생들은 상한 몸을 돌보지 않고 다시 싸움터로 달려나가는데 의사인 자기네가 어떻게 자기 자식만을 생각해서 병원을 비우랴만싶어서였다.

저녁무렵이였다. 안해가 황망히 달려오며 급한 소리를 했다.

《저걸 어떻게 해요? 우리 애가, 창근이가 총에 맞았다는데...》

아침보다 더 수척해보이는 안해의 얼굴은 질리다 못해 까맣게 죽었었다. 성호도 가슴이 맞방망이질을 하였다.

《그게 무슨 소리요? 누가 그러오?》

《저기 그 애네 대학동무들이 업혀와있어요.》

안해는 대답하면서 자기 있던 소아과로 눈을 보낸다. 과연 창근이네 동무들이 와있다. 성호는 곧 그리로 건너갔다.

《제가 부상을 입고 쓰러져있을 때였습니다. 저를 부축하고있던 동무들이 <저기 교기 기수도 총에 맞아 쓰러졌다.>고 하면서 어디론가 우-밀려가는것을 보았습니다.》

창근이가 총에 맞았다는것이 사실이라는 말에 진찰대에 누운 녀학생이 전해주는 대답이였다.

《그럼 빨리 와 처치를 받아야겠지 아닌가?》

성호는 아들이 앞에 있기라도 한듯 연성을 높였다. 그리고는 더 자세한걸 물어보아야 처녀는 그 이상 모르노라고 했다. 아들 창근이가 바리케트에서 교기를 휘날리던것을 보았었다는 이 처녀가 부상은 당했지만 의식만은 똑똑한만큼 그의 말을 믿어야 했다. 성호는 불안으로 하여 가슴이 활랑거렸으나 만일 부상을 입은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기별이 없으랴 하고 요행을 바라기도 하였다.

《아버지가 안가겠으면 나라도 가보아야겠어요. 애가 총에 맞았다는데 부모들이라는게...》

안해는 청원을 하다 말고 목이 메인다.

아침일이 상기되자 성호도 그 심정이 십분 리해 되었다.

《그럼 당신이 먼저 가보오. 나도 밀린 학생들이 나 보아주고 곧 가겠으니까...》

성호도 급해했다. 원망어린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는 안해의 눈귀에는 맑은것이 피여올랐다.

《서두르라니까 늦잡는구만...》

성호는 자기 감정을 누르기 위해 나무라듯 재촉 하였다. 안해는 그제야 마음이 진정된듯 분주히 준비를 갖춰들고 떠난다. 성호도 밀린 학생들의 상처만 보아주고 급히 그의 뒤를 따라 떠났다.

5월말의 길어진 해가 거의 넘어가고있는데 거리는 아우성을 치며 밀려가는 봉기자들과 그들의 진출을 막아보려는 군경들의 충돌로 불도가니마냥 끓고있었다. 사방에서 그칠사이없이 일어나는 환호성과 함성에 엇바뀌어 자지러진 총성이 울려오기도 했다.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밀려오고 밀려가는 거리를 줄달음을 치듯하는 성호는 불안함을 금치 못했다. 부상당한 그 학생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들 창근은 중상을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는게 답답하였다. 그는 창근이네 바리케트앞에까지 이르러서야 후유하고 모두 숨을 쉬었다. 바리케트우에는 그도 몇번본적이 있는 《X》대학교의 붉은 교기가 기세차게 나뭇기고있기때문이었다. 일단 안도의 숨을 쉬면서도 기발을 잡고있는 기수를 여겨보던 성호는 다시 또 가슴이 섬찝 했다. 연한 람색 옷내의에 머리를 수건으로 질끈동인 기수가 창근이의 모습이 아니기때문이었다. 성호는 창근이가 없는 경우 다른 학생이 그를 대신할수 있다는것을 미처 의식하지 못한것이다.

성호는 몇사람의 학생에게 물어서야 중상을 입은 창근이는 바리케트 한쪽옆에서 처치를 받고있다는것을 알아내었다. 성호는 곧 큰길을 건너 그리로 갔다. 여러명의 학생들이 근심어린 얼굴들로 뺨 둘러앉기도 하고 서기도 한 그가운데 창근이가 반듯이 누여있었다. 그리고 먼저 온 안해가 그의 저고리를 벗기는데 창근이와 친한 동무 형렬이가 그를 돕는다.

《저리 물러나 앉소.》

학생들을 헤치고 들어간 성호는 안해에게 이르면서 창근의 머리맡에 쭈그리고앉았다. 그는 우선 백랍같이 하얗진 아들의 얼굴색에 놀랐다. 윤기있던 머리칼에는 검은 피와 먼지가 뒤엉켰고 가슴팍은 저고리도 속옷도 피범벅이다. 자는듯 조용히 누운 창근은 가끔가다 긴 숨만 몰아쉴뿐 전혀 의식이 없다.

(아차 늦어진게 아닌가?)

성호는 의사의 육감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가슴을 저며내는 아픔을 느끼었다. 그는 몹시 불안하였으나 그런 티는 보이지 않고 아들의 상처자리를 들치었다. 탄알은 왼쪽 흉부와 그 아래 배허벅을 꿰뚫었다. 여기에도 간단한 약은 있는듯 약을 바른 흔적이 있기는 하나 상처에서는 그냥 피가 스며나오고있다.

성호는 곧 처치를 시작했다. 소독수로 상처자리를 닦아내면서도, 약을 바르면서도 그를 불

안하게 하는것은 출혈이 심한것이였다. 맥도 짙어보고 청진도 해보았다. 심장의 박동이 아주 약할뿐아니라 부정맥이 심했다. 그는 심각하니 아들의 숨결만 지켜보고있는데 옆에서 안해가 갑자기 《애야, 창근아! 애야!》하고 부르다가 그만 목이 메이고만다.

《왜 그러오? 왜?》

성호는 엄하게 나무랐다. 안해는 겨우 울음을 삼키며 앉았는데 숨결소리가 높다. 성호는 다시 한번 눈을 흘겨주고는 포도탕과 강심제주사를 놓아주고 수혈까지 하였다.

수혈은 역시 효과를 나타내어 창근이는 숨결도 맥박도 고르로와졌다. 성호는 그제야 마음이 좀 놓였다. 형렬이도, 그의 동무들도 지어 안해까지 얼굴에 화색이 도는듯했다.

《상처를 입었을 때는 지혈부터 시켜야지...》

성호는 형렬이와 학생들을 돌아보고 일렀다.

《아까는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형렬이는 모두숨을 내쉬면서 그의 말을 받더니만 잇는다.

《창근이가 첫 총알을 맞은것은 벌써 몇시간전입니다. 저앞에 밀려온 군대놈들은 정말 극악합니다. 놈들은 처음부터 마구 총질을 하더군요. 정황은 위급해졌습니다. 창근이는 바리케트우에 올라가 교기를 휘두르면서 웨쳤습니다. <한결음도 물러서지 말라! 퇴각은 죽음이다.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우자! > 우리는 그에게서 힘을 얻어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근이 목소리가 끊어지면서 기발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달려갔을 때 창근이는 배허벅에 총알을 맞고 쓰러져있었습니다. 상처자리를 대강 처매여 저기 바리케트아래 누여놓고 우리는 다시 또 싸웠지요.》

형렬은 위급하던 그때가 상기되는듯 창근이를 이윽도록 바라보다니만 계속하였다. 얼마후 그들은 다시 또 바리케트우에 교기가 휘날리는것을 보았다. 그들은 거기에 힘을 얻어 과감하게 싸우면서도 그 기발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할 경황이 없었다. 그들은 힘겨운 싸움을 견디고야 교기앞으로 달려갔다. 바리케트우로 기여올라간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기발은 그때까지도 그냥 바람에 휘날리는데 창근이는 기대밀등을 든듯히 틀어안고 가마니짚에 기대앉은채 의식을 잃고있기때문이었다. 그들은 창근이를 바리케트아래로 안아내린뒤에야 그가 또 한발의 총알에 중부를 관통당했음을 알았다.

《우리는 휘날리는 기발에 힘을 얻어 어려운 싸움에서 건뎔습니다. 교기는 우리 대학의 상징이니깐요. 그래서 창근이는 빈사지경에 있으면서도 다시금 바리케트로 기여올라가 기발로 우리를 고무하였으며 그러다가 또 한발의 총알을 맞았습니

다.》

이야기를 맺은 형렬은 강개한 얼굴이 된다.

《정말이지 우리는 기발에 고무되었습니다! 창근이는 그것을 알았기에 그 기발을 끝까지 지켜내었고 원썬놈들은 그래서 극악하게 기수를 쏘았지요. 지금 저 기발에도 무수한 탄알자국이 있습니다.》

옆에 있던 학생도 심정을 터놓는다. 성호는 아들의 소행을 두고 많은것을 생각하였다. 첫 탄알을 맞았을 때 손을 썼더라면 지금 이런 중태에 빠지지지는 않았을것이다. 그런데 아들은 몸의 아픔도 목숨도 돌보지 않고 다시 바리케트로 기여올라가 동무들을 끝까지 싸움으로 불렀다. 성호는 숭엄한 감정에 잠겨 창근이의 동정을 지켜보고있었다.

주위에는 어느덧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래동안 자는듯이 누워있던 창근이가 문득 긴 숨을 내쉬더니 눈을 슬며시 뜬다.

《애야! 창근아, 애야!》

안해가 어쩔바를 모르고 소리친다. 창근이의 마른 이마에 그의 눈물이 한방울 떨어진다. 창근이는 눈만 바로 뜨고있더니 또 긴 숨을 내쉬면서 팔다리를 얼마간 움직인다. 그러더니 《나 물, 물을 좀...》하고 입을 움질거린다.

《오냐 물을 주마, 조금만 기다려라.》

안해는 이러면서 급히 일어서려는데 저희 동무들이 수통을 기울여서 물을 먹인다.

《너무 많이 먹이지 마오.》

성호는 그들을 제지했다. 강심제를 또 놓고 팔다리를 주물려주자 창근은 좀더 피어났다. 주위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이 구호를 웨치면서 필사적인 싸움을 하고있다. 창근이는 얼마후에야 다시 또 눈을 뜬다.

《정신이 좀 드니?》

안해가 엎어질듯 그에게로 몸을 숙이면서 숨벽거리더니만 제 어미의 손을 더듬어 다잡는다. 그리고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오셨군요.》하고 힘겨웁게 말한다.

《오냐, 나도 너랑 함께 싸우자고 나왔다.》 안해는 어쩔바를 몰라하며 부르짖는다.

《창근이 여, 창근이.》

그의 동무들도 안타까운 목소리로 부른다. 성호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창근의 얼굴에는 좀더 생기가 살아났다. 그는 제 어미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만 뜨덤뜨덤 말한다.

《어머니, 우리하고 같이 싸워주세요... 우리는 어머니때부터... 아니 그보다 더 전부터 술한 사람들이... 미제와 독재를 반대해 싸웠는데도 아직 자유를 못찾았어요... 우리가 만일 이번에 또 잘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피를 흘려야 해요...》

창근은 몹시 힘이 드는듯 쉬었다가는 잇고 그

리고는 또 쉬어가며 이야기한다. 아버지인 성호에게는 물론 제 어미에게도 이런 이야기는 별로 한적이 없는 창근이었다. 그러던 그가 지금은 어쩐지 심중에 있는 말을 그대로 터놓는다. 성호는 그 말이 비단 안해에게뿐아니라 그자신에게도 그리고 남조선의 모든 부모들을 향해 하는 말처럼 들려 가슴깊이 파고들었다. 아들 창근은 그가 오랜 체험을 통해 도달한 경지, 진정한 자유를 쟁취하기 전에는 두고두고 피를 흘려야 한다는 그 세계를 터득하고있는것이다. 성호는 잠자코 고개만 끄덕이는데 안해가 맹세라도 하듯 이른다.

《오냐 알겠다.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나왔지 않니?》

《고마워요, 어머니.》

창근이는 진정 고마운듯 웃음까지 지어보이려고 하는듯하나 얼굴만 이그러져버리고만다. 성호는 아들의 손맥을 잡은채로 그의 동정을 놓칠세라 지켰다. 방금전까지 말을 번지던 창근이는 점점 더 의식이 흐려갔다.

《창근이, 아버지랑 어머니도 오셨는데 정신을 차리라구!》

《창근아, 애야!》

형렬이와 안해가 부르짖고 싸우던 동무들도 밀려와서 그들을 에워싸고 불렀다. 그런데도 창근이는 전혀 기백이 없더니만 잠시후에야 눈을 감은채

《아, 숨이... 답답하구만...》 하고 겨우 한마디 한다.

《창근이!》

《창근아!》

사람들은 비장한 마음으로 그를 불렀다. 창근이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것 같더니만 또 입을 움질거렸다.

《우리의 ... 기발을...》

사람들은 이 한마디를 겨우 알아들었다. 창근이는 끝내 숨을 거두고야말았다.

《창근이!》

《창근아!》

저희 동무들도 안해도 애타게 불렀건만 창근이는 다시 소생하지 못했다,

《이 원썬을 갇자!》

《원썬들에게 죽음을 주자!》

그를 둘러싸고있던 학생들은 비장하게 부르짖으면서 일제히 바리케트우로 치달아올라갔다. 그리고는 미친듯이 덤벼드는 원썬들에게 복수의 돌벼락을 안기기 시작했다.

성호는 앞이 캄캄하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의젓하고 릉름하던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자 자신이 꿈을 꾸는것만 같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창근이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니 그가 더욱더 중하게 여겨지고 그 없이는 살아가지 못할듯만싶었다. 자기가 쓰고있는

집도, 병원도, 모든것을 다 내어놓더라도 아들만은 있어야 했다. 그들 부부에게 있어 창근이는 그만큼 기쁨이며 희망이며 미래였는데... 그 아들이 자기결을 떠나고만것이었다.

《공부밖에는 모르던 네게 무슨 죄가 있다고... 네가 도와달랄때 처음부터 여기 나와 같이 싸웠더라면 너를 이 지경이 되게는 안했을것을...》

안해는 푸념을 해가면서 녀두리를 늘어놓는다. 성호에게도 창근이가 하던 말이 다시금 상기되었다.

《우리는 어머니때부터, 그보다 더 전부터 술한 사람들이... 미제와 독재를 반대해 싸워왔지만 아직 자유를 못찾았어요. 이번에 또 잘못하면 앞으로 피를 계속 흘려야 해요...》

8.15해방후부터 남조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독재를 반대해 싸웠으며 피는 또 얼마나 흘렸는가? 그런데도 민중에게는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있다 무엇때문인가? 민주의 자유를 위한 민중의 투쟁은 한때의 혈기도, 류행병도 아니다. 그러므로 애국적인 모든 사람이 한덩어리가 되어 끝까지 싸워야 하겠는데 그러지 못했었다.

## 독자편지

# 미래를 위해 바친 삶은 고귀하다

저는 《조선문학》에 실린 단편소설 《덕흥나그네》(정참운 1981. 5)를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소설의 이야기가 있었을 당시 저는 겨우 걸음발을 내짚던 때였습니다. 그때의 모든 일들은 이야기를 통해서나 책, 영화로서 알고있을뿐입니다.

미제침략자들의 광란적인 침략을 이겨내고 승리한 조국은 모든것이 불타고 모든것이 파괴되어 하나의 못, 한그람의 세멘트가 목마른 때였습니다.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은 우리 인민이 복구건설에서도 미제의 면상을 다시한번 후려갈겨야 했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혁명을 하려면 혼자만 잘살려는 리기주의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혁명하는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희생시킬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도시와 농촌에서 그닥 쓸모가 없어진 곡괭이나 삽이 하나의 커다란 생산수단이었던 시기 소설의 주인공은 오늘의 부강한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깨끗한 량심과 무한한 성실성을 묵묵히 바쳤습니다. 후퇴시기, 매물한 전동지를 찾기

성호에게는 아들 창근의 말이 지기네 부부에게만이 아니라 남조선의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며 청년들이 지닌 그 고귀한 녀은 온 남녘땅에 차넘쳐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사무치게 느꼈다.

《여보, 녀두리나 하고있어 무슨 소용이 있소? 어서 저 돌을 이 애네 동무들한테 넘겨주시오.》

성호는 저고리를 벗어 창근이를 덮어주면서 안해에게 일렀다. 그리고는 바리케트위로 올라가 창근이가 잡고있던 그 기대를 새로 나온 기수와 함께 튼튼히 틀어쥐고 기운차게 저으면서 거리 좌우에 나와 구름처럼 모여 서있는 일반 시민들을 향해 뻘뻘했다.

《시민 여러분! 4.19와 6.3때를 비롯해서 전횡을 반대해서 과감하게 싸운 시민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말고 대렬로 뛰어나와 학생들과 손잡고 싸우시다. 우리가 만일 학생들의 싸움을 구경이나 하고 있으면 앞으로는 두고두고 피를 흘려야 하며 우리들이 그렇게도 소망하는 자유와 민주는 쟁취하지 못하오!》

피타게 부르짖는 성호의 목소리는 학생들의 함성에 어울려 거들거들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위해 누가 보아주지도 평가해주지도 않았지만 뉘 뿐만이 아니라 달뜨는 밤까지 모든 힘을 쥘그리 바치는 기쁨에 젖어 거무스레해진 모자를 쓴 갱뿔한 얼굴의 덕흥나그네는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친근한 벗으로 동지로 안겨오는것입니까.

그때는 모두가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러관집주인같은 개인업자도, 장사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리운추구를 위해서 목전의 부유한 생활을 위하여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체면 없이 돌아갔습니다. 약간한 량심만을 판단하면 당시의 궁핍증을 면하고 잘먹을수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생명이 진하는 마지막순간까지도 《당신은 국가물자를 가지고 더 <선심>을 쓰지 마오.》라고 하는 덕흥나그네의 말은 제가 다루는 750kg의 공기마치소리처럼 세차게도 우리들의 가슴을 두드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사회주의 우리 조국, 창광거리도, 대규모의 야금기지도, 하나의 섬을 방불케 하는 대형선박도 우리의 힘, 우리의 자재, 우리의 설비와 기술로 척척 일떠세우는 오늘의 조

국을 위해 덕흥나그네는 이름조차 남겨놓지 못하고 몇개의 전동기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늘을 그리워하고 사랑했으면 공장이 드디어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몸을 지저누르는 피곤도 잊고 온밤 뒤척이며 담배를 피웠겠습니까.

그의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그를 앞당겨 오기 위한 헌신적복무가 있었기에 영광의 오늘이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도 알수 없는 덕흥나그네는 자재인수원이나 그의 아들뿐만이 아닌 우리 독자모두에게 언제나 친근한 모습으로 살아 있는것입니다.

**독자반향**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래일을 바라보며 조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위대하고 행복한것이며 그런 사람은 후세에까지 길이 전해지는것이라고...

지금 저의 집에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애가 자라서 오늘을 생각할때 제가 덕흥나그네의 그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남도록 래일을 위하여, 래일의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송복기동무가 일하는 공장 로동자 오운서)**

## 중편소설 《설죽화》를 읽고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별많은 여름밤이면 모기쑥내 향긋한 뜨락에 앉아 설죽화에 대한 옛이야기를 들려주곤하였다.

아마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희생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아버지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충직한 전사로, 당의 참된 딸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할아버지의 깊은 마음에서였으리라...

그때는 그 이야기를 그저 옛말로만 들었을뿐이었다.

오늘 새로 나온 중편소설 《설죽화》를 읽으니 그때엔 다 알지 못했던, 미처 느낄수 없었던 새로운 감동을 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침략자들이 쳐들어올 때 마다 조국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싸움에 한사람같이 일어나서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쳤으며 조국을 영웅적으로 방위하면서 반만년의 슬기로운 역사를 창조하였습니다.》**

중편소설 《설죽화》는 거란침략자들의 거듭되는 침략을 최종적으로 물리친 제3차반거란전쟁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우리 인민들의 애국심과 용감성을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힘있게 구가하였다.

소설의 중심에는 거란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용감히 싸우다 희생된 리관의 딸 설죽화가 서있다.

그는 열세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리별하고

굴암산 깊은 골안에서 외삼촌 홍예의 지도를 받으며 무술을 닦았다.

남아대장부들도 어려워 도중에서 칼을 꺾고 물러났다고 하였으나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사랑하는 조국 고려땅을 엿보는 거란의 오랑캐놈들을 짓부시기전에는 결코 갑옷을 벗지 않으리라는 모진 마음을 먹고 훈련에 열중하였다.

설죽화는 당돌한 성품과 굳은 결심, 꾸준한 노력으로 비범한 궁술과 무술, 기마술을 련마하게 되었다.

그는 서경의 사냥놀이에서 특출한 궁술을 시위하였고 강감찬으로부터 갑옷과 백마를 상으로 받았다.

설죽화는 그후 더욱더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렸으며 지혜로운 처녀장수로 자라났다.

우리 선조들의 애국심과 슬기를 다시한번 시위하고 거란침략자들에게 최종적타격을 준 장엄한 구주대전에서 그는 소년선봉장으로 무비의 용맹을 떨치고 자기의 꽃다운 청춘을 바쳤다.

설죽화! 그 이름처럼 그는 설한풍 휘몰아쳐도 그 빛을 잃지 않는, 나라 위해 먹은 맘 변치 않는 꽃, 고려의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당시 너자란 집안에서 남편이나 섬기고 살림살이나 하는것이 본분이였다. 갑옷을 입고 창검을 든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 그런데 설죽화는 어린 몸으로 남북을 하고 용약 싸움에 나섰다. 설죽화는 정든 고향 황하천가에서 사랑하는 세울이와 함께 어머니 모시고 행복히 살리라던 희망과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국을 끝까지 지켜싸우려는 바로 그 때문에 자기의 청춘도, 사랑도 서슴없이 조국에 바친다.

소설에는 또한 홍화진싸움과 구주대전에서 용감히 싸운 소년선봉장 세율이, 70고령의 몸에 갑옷을 입고 조국방위성전의 앞장에 선 명장 강감찬, 몸은 비록 불구가 되었으나 설죽화의 훈련을 지도하며 그와 함께 싸움에 나선 홍예, 남편과 외팔마져 나라에 바친 절개 굳고 근면한 설죽화의 어머니 홍씨 등이 나온다.

그들은 모두 거란침략자들에게 가슴아픈 상처를 입었고 오직 침략자를 물리치고 조상의 땅, 고령을 지키려는 일념으로 이 싸움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용감히 싸운다.

바로 이와 같이 조국방위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것을 가장 영예로운 일로 생각하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인민이 있었기에 외래침략자들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나라를 침공하여왔으나 한번도 우리 인민의 애국심과 용감성을 꺾을수 없었고 언제나 패배의 쓴맛만을 보아왔다.

중편소설 《설죽화》는 독자들로 하여금 외래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예로부터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조국을 지켜낸 우리 선조들에 대한 자랑과 긍지를 더욱 크게 하여준다.

설죽화! 그는 열일곱 꽃나이로 원쑤의 칼에 쓰러졌지만 그의 굳은 절개와 높은 애국심은 우리 선조들의 슬기로운 투쟁력사와 함께 영원할것이다. 지금도 나의 귀에는 아버지의 무덤앞에서 다지는 설죽화의 뜨거운 맹세의 구절구절이 그의 힘있는 목소리로 들려온다.

(그래요 아버지! 나는 참말로 설죽화가 될테어요. 나라를 위해 한번 먹은 맘 변치 않고 굳게 살아가는 역센 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편히 누워계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던 조상의 땅 우리 나라를 이 딸이 지켜가렵니다. 아버지가 못다한그 뜻을 이 딸이 기어코 이루어가렵니다. 아버지…)

《설죽화!》 어린시절의 그때처럼 나도 조용히 입속으로 불러본다. 그러면 두눈이 류달리 아름다운 처녀, 그러나 원쑤앞에선 사자와 같이 용맹한 설죽화가 화살이 비발치는 속으로 시슬푸른 장검을 비껴들고 달려가는 모습이 우렁치 않게오고 그와 함께 결전의 한복판에 서고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낀다.

나는 오늘 경제건설의 전초선에 선 병사이다.

오늘도 우리 조국 남녘땅에는 나의 원쑤,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 미제, 침략과 패배의 역사를 쌓은 미제가 멸망의 내리막길에서 발버둥치며 새 전쟁의 칼을 갈고있다.

하기에 나는 자기앞에 맡겨진 경제과업을 두배 세배씩 해제끼는것으로 원쑤의 숨통을 더 힘껏 조이고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을 지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혁명전사로, 충성의 꽃으로 더욱 붉게붉게 필것이다.

아름다운 우리 강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우리 조국을 지켜 우리 부모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침략자들에겐 언제나 천배, 만배의 죽음만을 주리라.

중편소설 《설죽화》는 높은 사상예술성과 주인공의 빛나는 형상으로 하여 독자들, 특히 우리 새세대들의 가슴에 뜨거운 조국애와 민족적자부심을 키워주며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투쟁에서 친근한 길동무로 될것이다.

(평양승강기공장 홍정순)